

October 2013

# Gardenin

Monthly

가든인 10월호

## SALE COUPON

온라인으로

### 테르메덴 50% 할인권

### Season item

초보 도전  
다육 키우기

### Flower Festival

10월의  
국내 꽃 축제

### Special issue

조경 문화의  
NEW 트렌드  
ARI Garden

## Monthly Gardening

- ☒ 씨앗 채종 & 보관
- ☒ 튼튼한 종자 정선
- ☒ 추식구근 심기
- ☒ 병충해 방제

## CHECK LIST

김장배추 무발 관리  
마늘 양파심기, 웃거름 주기



10,000원

ISSN 2288-1719



# 대한민국 대표 우리꽃!

야생화 육종·생산 전문... 화훼 본고장인 유럽으로 수출

##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국내최초 로얄티 품목으로 화색이 다양하고 장기간개화합니다.



## 코레우리 버티알타시리즈

키가 작고 화수가 많으며 노란색으로 한정된 기존의 화색군을 많은 노랑색, 주황색 등으로 넓혔습니다.



## 가우라 시리즈

키가 작은 왜성종부터 잎에 무늬가 있는 품종 등 조경용 최고의 인기품목



## 상록만디패랭이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 겨울엔 상록으로!



## 부처꽃 탐

화색이 진하고 꽃의 크기가 커진 업그레이드 부처꽃



## 금강애기리린초

잎이 조밀하고 컴팩트한 초형의 기린초



## 백두산애기리린초

표복성의 가을단풍이 좋은 상록성 기린초



## 예고



패랭이 스위트베리

패랭이 피카소체리

황금자리공

부처꽃 황금

분홍쫄레

조팝 글든바

제품문의



031.634.7990

www.uriseed.com

Book cover story

## 숙근해바라기

해바라기는 1년생이다.

해바라기는 식용을 위한 작물로 재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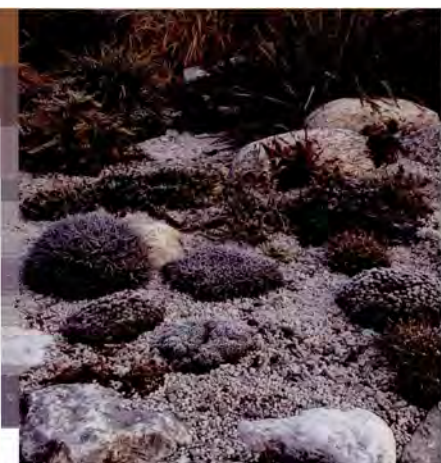
가까운 중국에서는 지금도 끝없이 펼쳐진 해바라기 농장은 흔하게 볼 수 있다. 2004년 여름, 중국에서 유명한 연꽃 품종을 개발하는 회사를 방문했다. 이 회사는 중국내륙인 안후이성의 작은 농촌마을에서 3대째 연꽃을 개발, 육성하는 회사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종류의 연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나선 것이다.

교통이 아주 불편할 뿐만 아니라 차에서 내려 한참을 논두렁을 타야만 했는데 이때 나타난 연꽃의 식물이 해바라기의 일종이란 걸 알고는 놀란 적이 있다. 해바라기가 다년생이 있다는 사실도 놀랐지만 야생에서 겹꽃을 발견했으니 더 놀라운 것이었다.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한 원종이 확보되었다. 이후 계속 선발하여 지금은 아주 좋은 품종으로 만들어졌고 어쩌면 더욱 깔끔한 흙꽃도 복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육성과정은 흙꽃을 겹꽃으로 육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반해 이 품종은 겹꽃에서 원래의 흙꽃을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니 말이다.







# Contents

October 2013



속근해바라기  
Helianthus

키가 80~120cm 정도인 다년생  
해바라기로 약간의 습기가 있는 곳을  
좋아한다. 발개미와 같은 땅속충이  
있어 번식이 빠르다. 포인트 식물로 좋다.

## 3 커버스토리

### 6 이달의 야생화

참 예쁘네, 넌 이름이 뭐니

### 8 가을 하늘의 편지지 아스타

서정적 감성을 자극하는 가을꽃

### 10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꽃 정원에도 가을이 오고 있다

### 14 박공영의 이달의 가든 관리

10월의 정원은 소리 없이 바뀐다

### 18 정원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

아리가든의 특징과 시공 방법 소개

### 26 가을 정원의 멋 그라스

계절미를 더해주는 가을 핫 아이템

### 30 잎의 무늬가 아름다운 비비추류

정원과 뜰의 터줏대감인 초본성 식물

### 34 유럽의 상사화 콜치쿰

국내서는 생소한 콜치쿰 재배 방법

### 36 고양식 선인장 페스티벌

선인장의 매력에 빠지다

### 38 아가자기한 지태가 수심가지

세상에 대한 모든 것

## 42 베란다 정원 관리

추파일년초 꽃씨 심는 달

## 44 우리집 정원으로 야생 생물 끌어들이기

야생 생물이 좋아하는 환경 만들기

## 46 정원과 개는 상극?

개를 키우는 가드너들을 위한 조언

## 48 식물의 온도

생명의 조건인가, 해를 입히는 도구인가

## 50 가정원에 식물의 병해충

찬 바람이 불어도 기죽지 않는 잣빛곰팡이병

## 52 Gardening DIY

와인병으로 미니 온실 만들기

## 54 초보 도전! 추식구근 심기

무스카리, 톨립, 수선화 심는 방법

## 58 초보 도전 II 양파 심기

양파,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재배과정

## 60 시즌 아이템 호박

할로윈 추수감사절을 대비하는 자세

## 62 안완식 박사의 토종이야기

오천만의 주식인 쌀

## 64 이달의 텃밭 관리

김장 관리와 함께 마늘 심기

## 68 지구를 살리는 청소년 농부 프로젝트

태양열 조리기 만들기

## 70 낙엽 지는 산야에 가을을 외치는 꽃

들국화

## 74 시골 소녀의 맑은 모습을 담은 들국화

썩부쟁이 종류와 스토리

## 76 10월의 국내 꽃 축제

꽃을 찾아 떠나는 가을 여행

## 82 10월, 세계 속의 가든 이벤트

스페인 이베르플로라 외

## 84 우리꽃 아카데미 회원들이 골프장에 간 이유

골프장에서 진행된 잔디 깎기

## 88 정원으로 꿈꾸는 사람들

박수환의 하늘 정원

## 92 스코틀랜드의 코티지 가든

정원의 한 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 94 나이가아라 파크 보타닉 가든

폭포의 웅장함과 식물원 예술미의 조화

## 98 미국의 암스트롱 가든

미국 거대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화훼판매상회

## 102 가드닝 푸드 아롱이롱 차돌보쌈구이

파파야와 파프리카 소스를 곁들인 별미 보쌈

## 104 Ask your experts Q&A

독자, 전문가에게 답을 묻다

## 107 Garden in News

농진청 희귀박과채소 전시회 소식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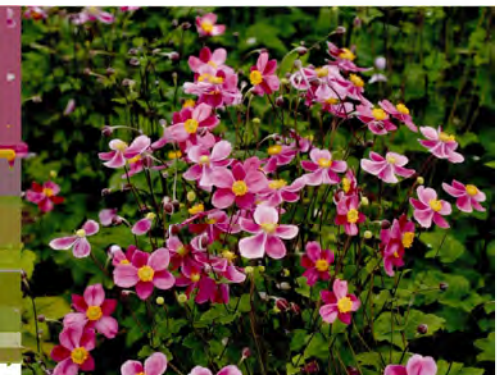


# 이달의 야생화

우리는 많은 세월과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꽃을 보면서 되뇌곤 한다. '참 예쁘네. 넌 이름이 뭐니?' 라며 이름이라도 알았으면 할 때가 있다. 이 계절에 꽃을 피우는 다양한 식물과 함께 이 계절에 심기에 좋은 식물들을 알아보자.



▲ 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 var. *latilobum*  
구절초는 흔히 볼 수 있는 들국화로 많은 종류가 자생한다. 주로 물 빠짐이 좋은 건조한 땅을 좋아하여 석축 돌 사이 혹은 정원의 가장자리에 심는다.



▲ 속근 아네모네 하드스펜 *Anemone hupehensis* 'Hadsphen Abundance'  
일반적인 구근아네모네는 이른 봄에 피는 작은 키의 구근식물이다. 속근성의 이 품종은 키가 약 1m까지 자라는 풀종으로 우리의 정서에 잘 맞다.



▲ 수크령 *Pennisetum alopecuroides*  
수크령은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이 그라스 식물로 다양한 현장에 심는다. 무리를 지우는 것보다 독립포기로 심는 게 더욱 좋다. 많은 종자가 떨어지므로 주의한다.



▲ 속근꽃향유 *Eisholtzia stauntonii*  
일년초인 꽃향유와는 다른 관목성의 꽃이다. 향이 좋고 벌과 나비가 많이 찾는 식물이다. 울타리나 돌 축대 사이에 심으면 효과적이다.



▲ 상사화 '아리수' *Lycoris flaviescens*  
상사화 아리수는 우리꽃이 야생종을 도입하여 선발한 품종으로 일반 상사화와는 다른 향향, 맑은 노랑 등의 색을 보인다. 꽃무릇이나 상사화 등과 혼합 라인을 형성하면 더욱 돋보이는 식물이다.



▲ 아스타 *Aster novi-belgii*  
순백색의 아스타, 가을 햇살아래 피어나면 눈이 부신다. 마음도 맑아지는 꽃이다.



▶ 충꽃 *Caryopteris incana*  
별이 좋아하는 해안성 식물로 내륙에서는 월동이 어렵지만 종자가 떨어져 다음해에도 계속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사진은 우리꽃에서 개발 중인 하양의 충꽃품종이다.

‘참  
예쁘네.  
넌  
이름이  
뭐니?’

▶ 해국 *Aster sphathulifolius*  
해국은 제주도과 울릉도 등 우리의 섬이나 해안지방을 대표하는 가을꽃이다. 건조에 강하고 내염성도 매우 강하다.



▲ 억새 '파랑새' *Miscanthus sinensis*  
억새 파랑새는 야생 억새보다 키가 작고 꽃이 단정하며 꽃이 피기 전 잎이 파랑색을 가지는 매우 고급스러운 그라스이다.



▲ 코레우리 버티시리즈 *Coreus verticillata*

코레우리 버티시리즈는 우리꽃에서 개발한 신품종으로 유럽과 미국, 호주 등 전 세계로 수출되어 로열티를 받는 품종이 되었다. 5월부터 피어나 11월 서리가 내리면 휴면하는 최고의 정원 및 분화용 품종이다.







▲ 아스타 춘추 Aster dumosus\_prot, Anton kippenberg



▲ 아스타 래시 Aster novi-belgii\_Lassic



## 가을 하늘에 편지를... 아스타

글 사진 박공영 (우리꽃 대표, 이학박사, 현 한국조경사회 생태분과 위원장)



▲ 아스타 발리드 Aster novi-belgii\_Marie Ballard



▲ 아스타 화이트 Aster novi-belgii\_White Swan



▲ 아스타 펠로우 Aster novi-belgii\_Fellowship



▲ 아스타를 혼합해 심어도 매우 아름답다.

아스타는 흔한 말로 하면 들국화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언어에 의한 혼란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 원예인들이 느끼는 혼란은 더욱 심각하다.

이것은 식물을 부르는 이름이 지역마다 국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이란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통의 규약으로 정한 것이 학명인데 학명을 부르는 사람과 국내이름인 영명과 향명을 부르는 사이에서 오는 혼돈이다. 우리가 보통은 학명으로 부르는 것은 국내종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아스타는 그래서 국내 종을 뺀 것으로 보면 된다. 사실 벌개미취, 쑥부쟁이, 과꽃 등 외우지도 못하지만 많은 우리나라 식물들의 학명의 속명이 모두 아스타(Aster)이다. 자 그러면 현재 원예종으로 개발되어 국내에 도입된 아스타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스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매우 많은 종류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스타는 대체로 늦여름에서 가을에 피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다년생으로 한정해서 설명한다면 재배가 매우 쉬우면서 번식도 잘되는 식물로 꽃이 없는 가을에 너무도 서정적인 색을 발산하는 꽃이라 더욱 사랑받는다.

가을의 국화꽃이 정열적이라면 아스타는 서정성에 호소하는 그런 꽃이다. 편지지의 배경으로 쓰일 것만 같은 색으로 가을 하늘과 너무도 잘 어울린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꽃이 너무 곱고 아름다워 정말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괜시리 누구에게나 한편의 시를 쓰고 싶어 질 것이다. 만약 그도 아니면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밤이 주세요~'라는 가요가 절로 나올법한 꽃이다.

보통 열매로는 번식을 잘 하지 않고 포기나누기 혹은 삽목을 통해 번식한다. 대체로 생육이 강건하여 잘 자라지만 흰가루 병에 약한 품종들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키가 큰 종류는 지주대를 세워 주거나 장마전과 8월 이전 2~3회의 커팅으로 키를 낮추어 주지 않으면 꽃이 피었을 때 쓰러져 그 아름다움이 반감될 수 있다.

너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고 장마 이후 주기적으로 흰가루 병을 예방하는 약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캐내어 포기를 나누어 심는 것이 더욱 아름답고 균일한 꽃을 볼 수 있다. 퇴비는 충분히 주어야 화색이 고와지고 더 오래간다. 화분재배를 할 때는 장마가 끝나면 자란 줄기를 심목해 화분의 사이즈에 맞게 3~5개 정도를 심어 재배하면 아름다운 화분이 된다. 물론 여러 가지 품종을 섞어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글·사진 서준혁 우리꽃 상무



▲ 꽃 북송아의 열매가 탐스럽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많은 생명체가 겨울을 준비한다. 다람쥐는 열심히 도토리를 주워 모으고, 사람은 누런 들판의 곡식을 창고에 쌓는다. 그리고 많은 식물들은 고개를 숙인다. 벼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노랑꽃창포도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빨개지는 것도 있다. 고추도 토마토도 빨갱게 익는다. 누런 것도 있다. 오이도, 참외도 익으면 누렇게 변한다. 감계 익는다. 포도가 그렇고 자리공의 열매도 까맣게 익는다. 그래서 이들을 가을색이라 한다. 가을은 빨갱고, 누렇고, 검고 또 하얗다. 우리꽃 정원에 가을색이 오고 있다. 아직은 9월의 햇살이라 완전한 가을 색은 아니지만 이미 가을은 왔다.



▲ 에키네시아의 거친 꼬투리도 가을의 멋이다.

## 열매, 그대로 두고 볼까?

우리는 말의 뉘앙스에 많이 혼돈할 때가 있다. '탐스런 열매를 딸까? 씨앗을 딸까?' 탐스런 열매는 두고 보고 싶기도 하고 따서 먹고 싶기도 하다. 씨앗은 또 반드시 따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든다. 우리정원에도 이렇게 헛갈리게 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나 이른 봄에 환상을 가져다 준 꽃북송아는 자두만한 크기지만 많이 열리고 그 맛도 일품이라 정원에는 오히려 안정맞춤인 종이다. 키도 150cm 이내로 자라는 정원수다. 에키네시아, 모나다, 억새, 풍접초, 버베나 등의 많은 식물들이 종자를 맺고 딸구게 되는데 이제 결정해야 한다. 두고 볼 것인지 따 모아야 할 것지를 말이다.



▲ 모나다 씨앗의 다 빼버린 꼬투리가 가을의 멋스러움을 더한다.

## 가을에도 꽃은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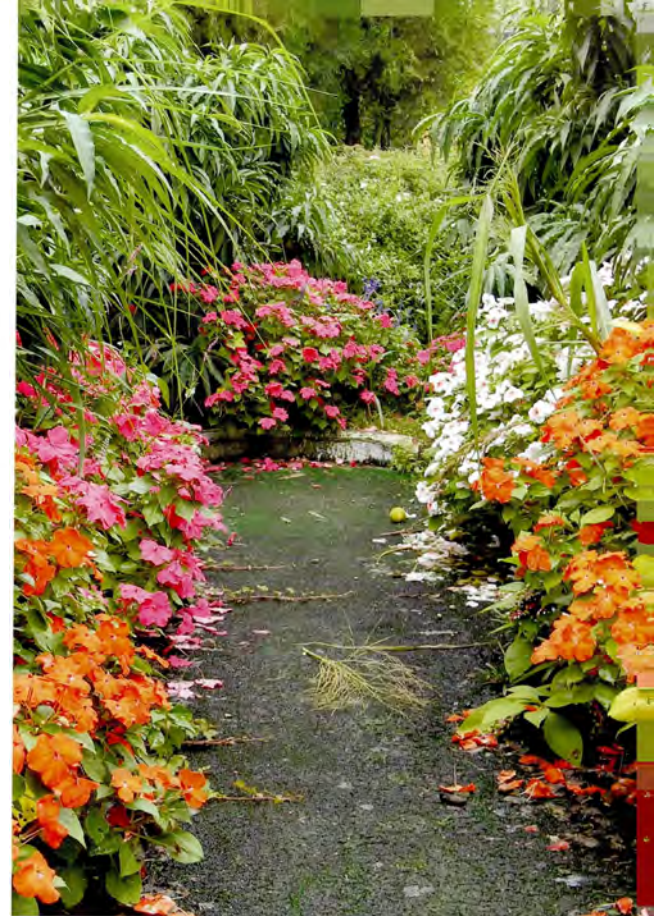
꽃은 시도 때도 없이 핀다. 이는 식물의 사랑도 시도 때도 없다는 말이다. 겨울에 피는 봄(?)도 있다. 우리꽃 정원의 많은 일년생들은 가을이 되어도 피는 종류를 선택해 심었다. 임파첸스, 풍접초, 버베나, 메리골드 등이 대표적이고 다년생으로는 우리꽃이 개발하여 세계에 수출하는 상록잔디파랭이,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그리고 가우라 '베아비 시리즈'까지 다양하다. 이들 4계 성 개화식물은 어떤 정원에도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많은 계절 개화식물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쇠퇴하는 순간에도 기본은 항상 되어 주는 꽃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0월은 국화, 아스타의 계절이다. 흔한 국화는 정원에 잘 심지 않는다. 대신 잘 가꾸어진 화분을 들이거나 정원에 심어 가을이 지나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좋다. 이 계절 추천 식물로 '하늘옹달'이 있다. 하늘옹달은 10월에 피기 시작하면 12월까지도 그 색을 유지하는 특수식물이다. (특수식물에 대해서는 다음 호(11월호)에서 집중 다룰 예정이다.) 하늘옹달은 낮에는 꽃잎을 벌리고 해가 지면 닫아 버리기 때문이다.

늦게까지 피는 꽃이라면 평의비름 '만추'도 한 몫 한다. 평의비름 '만추'는 8월에 초록으로 피어 9월에 분홍으로 바뀌고 10월에 빨강으로 변하며 11월에 갈색으로 변하였다가 12월 눈이 오면 하얗게 눈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흥미로운 것이 빨갱게 보이는 꽃은 사실 열매(삭과)이다. 열매의 꼬투리가 꽃처럼 보이는 것이다. 정원에 한 포기씩 포인트로도 좋고 군락을 이루어 심어도 좋은 우리꽃의 대표꽃이다.



▲ 가우라와 아스타 그리고 저 뒤편의 꽃백이 더 선행해지는 이유는 겨울이 올 것이라는 예보와 같다.



▲ 꽃북송아 길에 핀 임파첸스는 서리가 오기 전까지는 색이 점점 더 짙어진다.



▲ 늦게 피는 하늘옹달의 색은 가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중의 하나이다. 이 꽃이 12월초 까지도 갈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 그라스라 말해야 품 난다.

그라스는 사실 풀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통 목축에서 쓰이는 풀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잔디나 화본과를 말하는 것이다. 화본과 식물은 외떡잎식물로 길이 생장을 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난 소나 양떼목장에서 주로 이용하던 풀은 빨리 자라야 하고 부피도 많아야 한다. 만약 소가 풀을 뜯고 나면 바로 자라야 또 먹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잔디 깎기를 생각하면 된다. 봄여름 잔디는 깎아도 자란다. 지겹도록…….

그라스는 꽃을 보는 식물이 아니라 선을 보는 식물이고 색을 보는 식물이다. 그리고 바람까지 섞어서 보는 그런 식물이다. 그래서 그라스는 멋있다. 아니 그라스를 보면서 멋있어 해야 교양 있고 품이 나 보인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라스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에 피어나는 갈대와 억새 천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억새를 정원에 심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올가을 다시 억새를 잘 보라. 그리고 정원에 심을 때는 그라스라고 표현 해 보라. 좀 더 멋있게 보일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라스에 폭 빠질 수 있는 소양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다. 어릴 때 가을하늘이 소중하고 아름다웠겠는가. 이제, 보이는 파란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무조건 그라스를 사랑한다 말하자. 우리는 유식해지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워진다. 품 난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정원의 그라스를 이룰 때는 사초과, 화본과, 방동사나과 부들 그리고 백합과의 일부 식물까지 그라스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선이 아름다운 풀로 이해하면 되겠다.



꽃이 줄어드는 정원에 겨우와 오리 커리가까지 정원의 구성요소가 되었다.  
풀도 잘 먹지만 꽃도 잘 먹어 생육이 때는 정원을 훼손하는 무리가 되기도 한다.

## 포인트는 가을에 산다.

우리는 많은 정자를 짓는다. 옛날엔 가장 아름다운 산천(山川)에 방점(傍點)을 찍듯이 정자를 지었다. 우리는 정자를 여름에 이용하고 가을에는 본다. 정자는 참 묘한 느낌으로 여름과 가을이 다르다. 유럽정원에는 파빌리온이 있다. 물론 휴게를 목적으로 하지만 많은 경우 경관을 목적으로 한다. 그 파빌리온의 주요 쓰임새는 휴식이나 간단한 파티를 이용하는 장소로 이용되지만 사실 가장 열려에 두는 것은 정원의 포인트 즉, 방점을 찍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정자를 지을 때 동네 안에 지은 것이 아니라 동구 밖 저 멀리까지 내려다보이는 정자나 아래에 짓거나 가장 아름다운 계곡의 바위위에 화룡정점을 찍듯 포인트로 생각했던 것이다.

필자는 우리 한국의 전통조경의 정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을 들어서 이루는 일체 자연, 그래서 우리가 자연성 회복의 시대에는 더 정통이란 것이다. 아무튼 우리꽃의 정원에도 샘플로 지어진 정자, 파빌리온이 있다. 이 포인트는 가을과 겨울에 더욱 빛을 발한다. 정원의 어디에서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낙엽이지고 겨울이 오면 간혹 덩그러니 혹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나게 하는 정겨운 장소가 되기도 한다. 우리의 정원에 샘플로 시공된 정자는 우리 꽃답게 벽에도 식물을 심어 여름에는 시원, 겨울에는 따뜻하면서도 운치를 겸하는 새로운 개념의 정자이다.

아무튼 가을이 오면 어디에서 찍어도 포인트가 되어 주는 명물이 되었다. 그리고 가을이 더 깊어지는 11월 15일은 우리꽃에서 준비하는 이벤트가 있다. 많은 사랑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우리꽃이 매년 개최하는 우리꽃 지식나눔축제가 올하는 모든 꽃들이 저가는 늦가을에 진행하는 것도 많은 의미가 있다. 정원은 가을까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존재해야 하고 지금 꽤 어려운 조경계도 다시 준비하는 좋은 정원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



## 파빌리온

- ▲ 어디에서 찍어도 포인트가 된다. 사실 꽃을 찍었는데 어느새 들어와 앉았다.
- ▼ 동선과 잘 어울리는 정소에 자리했다.





## 10월의 정원은 소리 없이 바쁘다

글·사진 박공영 (우리꽃 대표, 이학박사, 현 한국조경사회 생태분과 위원장)



### 채종은 육성가의 꿈일까? 농부의 준비일까?

가을이 되면 많은 식물들이 휴면을 준비한다. 일 년 동안의 생명활동을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일 년 생은 종자를 만들어 떨어뜨리고 우리의 정원 식물인 다년생 꽃은 종자나 혹은 큰 꽃눈으로 많은 명숙줄기를 준비하기도 한다. 그리고 줄기의 양분을 땅속으로 내리며 겨울 동안 자신의 몸과 내년에 나올 새로운 꽃눈을 보호할 마지막 자람을 한다.

그리고 나무들은 잎에 있는 많은 양분을 줄기로

되돌리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노랑, 붉은 형형 색색의 색으로 잎을 물들인다. 그리고 두꺼운 갑옷으로 내년의 싹을 보호한다. 때문에 정원사들이 가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년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이다. 그것이 올해를 마무리 하는 것이기도 하다.

### CHECK1. 채종 씨앗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곳에서 건조

정원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씨앗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씨앗 채종을 하면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서 말려야 한

다. 종자는 생명을 잉태한 가장 작은 단위이다. 완전히 후숙되지 않은 종자를 딱딱하다고 막 대하거나 거칠게 다루게 되면 생명 유지에 매우 불리해진다.

채종이 꼬투리째 되었으면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야 한다. 종류의 식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이면 대부분의 종자는 마르게 된다. 종자를 감싸고 있는 종류는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파종할 때 꺼내어 파종하는 것이 좋으므로 그대로 보관한다.



▲ 가을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왔다. 설악산의 단풍이 10월을 전후해 절정을 이룰 것이라다. 사진은 2012년 우리정원의 10월 사진. 암석가든이 온통 단풍으로 물드는 시기이다.

### CHECK2 정선 튼튼한 종자 정선, 품종명과 날짜를 표기해 보관

종자가 다 마르게 되면 정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바람을 날려서 정선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선풍기나 자연바람을 이용한 방법이다. 바람의 방향에서 비켜난 자리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에 수직된 종자를 떨어뜨리게 되면 바람의 힘에 의해 이물질이 날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이때 좋은 종자는 앞쪽에 쌓이는 것이고 나쁜 종자 혹은 쪽정이는 좀 더 멀리 날아가 쌓이게 된다.

내년에 이용할 종자는 가까이에 떨어진 튼튼한 종자를 모아서 다시 한번 건조한 후 깨끗한 종이봉투에 담아둔다. 이때 정확한 품종명과 채종한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또 키질을 하거나 물속에 넣어 채질을 하는 정선방법도 있다. 이와 같이 정선의 방법은 종자의 크기, 수량과 그 식물의 고유특성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면 된다.



▲ 에케네시아 품종 선별원종 수집. 시간과 품종을 정확히 기록하고 채종 보관해야 한다.



▲ 후룩스의 육성 소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후룩스 종자를 조심스럽게 채종하는 모습. 후룩스는 종자가 익으면 '딱딱' 하는 소리를 내며 튕겨 나가 채종이 매우 어렵다.



▲ 노랑꽃참꼬의 꼬투리가 터졌다. 이 이전에 모두 수확해야 한다.





▲ 주로 빗자루로 이용했던 땃새리, 이 품종은 우연히 우리꽃 정원에 태어난 친구인데 모양이 볼 형으로 매우 아름답다. 지금이 열매를 한껏 달고 있는 시기이다.



▲ 큰평의비름 '만주'는 한참 개화 진행 중이고 에케네시아의 열매는 이제 곧 떨어질 기세다. 열매의 고풍리가 아름다운 경우도 있지만 방치하면 정원을 무질서하게도 한다.



▲ 이제 채소정원의 일손도 거두어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 그러나 이 가을에 내가 길러 밧보았던 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의 맛있었던 기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 가을 뒷밭에 작업이 완료되면 그 진해물이나 비닐 등은 모 두 수거하여 밖으로 반출해야 이듬해 병충해를 줄일 수 있다.



▲ 배추의 노란 속살에 무엇을 싸 먹을까?



▲ 황금자리공은 잎이 황금색으로 밝은 정원을 제공한다.



▲ 우리꽃에서 개발한 황금자리공의 열매이다.

### CHECK3 보관 습도를 막아주고 낮은 온도 유지

대부분의 종자는 휴면을 하게 되므로 자연 상태의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도 된다. 하지만 오래 두고 쓸 종자라면 종자가 발아와 생장에 필요로 하는 물(습도), 온도, 햇빛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습도이다.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종자는 보관할 수 있지만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썩게 되거나 발아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온도이다.

그러나 온도는 직접적인 발아를 하지 않아도 주어진 시간에 발아를 고르게 하는 힘, 즉 발아제와 발아율 그리고 기간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종자는 습도를 막아주고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우리 주변에 가장 좋은 종자 보관소는 김치냉장고 혹은 냉장고의 야채 보관 장소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원산지의 자연환경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겨울은 추위가 있다. 따라서 야생화 종자는 냉동실에 보관해도

무방하다. 만약 열대식물의 종자라면 냉동실에 보관하거나 너무 낮은 냉장실의 온도보다는 습기방지제를 봉투에 넣어 상온 보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참고로 우리꽃에서 개발한 황금자리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자리공은 무법자가 아닌 환경오염의 지표종으로 유용한 식물이다. 다시 말하면 토양이나 환경적 오염에 의해 일반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곳에도 살 수 있다는 특성을 나쁘게 폄하할 일은 아니다. 대신 좋은 환경에서는 자리공이 잘 발근되지 않는다.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는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기도 싫다. 따라서 어떤 식물은 좋고 어떤 식물은 나쁘다는 식의 생각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존재 이유와 존귀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 CHECK 4 커팅 새순이 자랄 수 있도록 위에서 커팅

식물의 커팅은 이제 점점 위로 올려야 한다. 식물의 줄기와 잎은 겨울에는 식물의 옷과 이불이 되어 준다. 많은 야생화 종류들은 추운 겨울이 오면 땅속으로 들어가 휴면을 하게 되지만 겨울눈의 위치에 따라 내한성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완전히 땅속에 눈을 감춘 식물은 좀 덜하지만 꽃창포와 꼬리풀과 같이 토양의 표면에 있거나 허브식물과 반관목성인 식물들은 지상부에도 눈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을 너무 늦게 잘라버리면 내년 봄에 꽃을 보지 못하거나 영양 죽을 수도 있다.



▲ 방석처럼 형성된 지리대사초, 지리대사초의 이듬해 썩은 지상부에 있다. 따라서 현 상태로 두지 않고 썩듯 잘라버리면 겨울동해를 입거나 नी려 잘려 고사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순이 자랄 수 있게 하거나 정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커팅을 하더라도 땅으로부터 점점 높은 위치로 올려가며 잘라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방문객이 많은 정원이라면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원에서는 가을 서리가 내리기 전에는 충분히 잎을 자라게 하고 눈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초겨울이 되면 눈을 제외한 모든 줄기를 단정하게 잘라내는 대신 두툼한 빗집이나 낙엽 등으로 잘 피복해 주어야 한다.

### CHECK 5 채소정원 배추 무밭의 물주기 중요

채소 정원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시작되고 있다. 10월에는 8월과 9월에 심은 김장 무와 배추는 물론 쪽파가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팔뚝정도로 자라고 배추는 포기나 들기 시작한다. 이제 김장용 배추의 70%는 습해가 걸렸다. 무와 배추의 땅에 붙어 있던 튼튼한 잎이 두 팔을 벌린 듯한 기세로 점점 더 올라가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란다. 이미 두 번의 비료가 뿌려졌을 것이다.

이제 배추가 서로 잎이 닿게 되고 결구가 시작될 때이고, 무는 뿌리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한다. 토양은 항상 습도가 있어야 하므로 물주기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토양이 건조하게 되면 결구가 잘 되지 않고 자람도 늦게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의 경우 건조 후 갑자기 비가 오거나 하면 터지고 갈라져 상품성을 잃어버린다. 배추의 경우는 속이 썩는 석회결핍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때문에 비료는 잎이 파진 자리 만큼 거리를 두어 주고 물은 거의 매일 주어야 한다. 지금부터는 물 주기가 관건이다.

중부지방에서는 10월 중순으로 마늘심기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고 보리 파종도 마쳐야 한다. 양파는 10월 늦어도 초순에 파종, 육묘를 하여 11월 초순에는 정식 완료되어야 한다. 고추는 최대한 빨리 수확하고 새로운 고추를 자랄 수 있도록 한다. 마무리된 고추밭과 토마토 밭의 잔재물은 잘 말려서 태워버리거나 밭에서 철수하여 내년 봄을 줄일 수 있다.

### 가을을 즐기면서 내년 봄 정원의 색을 준비하자

9월에 제정한 일과 중 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등 2년생 식물들의 파종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파종해야 한다. 우거진 줄기와 마른 가지들 정리하고 나타난 토양에 내년 봄의 색을 염두에 두고 풀종 선정, 정원의 구석구석 씨앗을 날려 주는 것만으로 단조로운 정원을 다양하고 아름답게 바꾸어 낼 수 있다. 가을을 즐기면서 해도 좋은 간단한 작업이다.



▲ 정원에 핀 양귀비는 전년도 가을에 일정한 정도 성장해야 이듬해 풍성한 꽃을 피울 수 있다. 너무 늦게 파종하면 발아가 되어도 겨울 동해로 죽게 된다.



▲ 정원관리에서 있어서는 한 달 잎이 추식구근 심는 작업이다. 양파와 마찬가지로 11월 상순을 넘기면 불발한다.





# 대한민국 新조경의 대표적인 정원테마 아리가든 ARI (Alpine Rock Island) Garden

▲ 아리가든 공사로 변화된 중부 C.C의 모습

글·사진 박공영 (우리꽃 대표, 이학박사, 현 한국조경사회 생태분과 위원장)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산하를 금수강산이라고 했다.  
우리의 전통 조경은 삶속으로 금수강산을 자연스럽게 옮겨놓은 철학적 표현이었다.

아리가든을 적용하기 전 중부 C.C의 모습



## 우리의 전통조경은 자연 철학

선조들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정자를 세워 경관미를 완성했는가 하면 움막을 지어도 낮고 작은 창을 두었다. 앉아서도 뒤돌아 작은 자연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혜를 담은 줄 알았던 것이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정지(부역)와 가까운 곳에 텃밭을 두고 장독대를 두어 인위적이라는 자연을 삽입함으로써 조경을 완성했다. 물론 조경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았다. 여름이면 울밑에 봉선화가 피고 하얀꽃해 하얀 부추꽃이라도 피었다. 남도의 텃밭에는 향이 있는 배초향도 또 몇 포기 길들이고 참취의 하얀 꽃과 달밤에 은은하게 빛나는 지붕의 박 덩굴은 가을이 되기도 전 한 아름의 박을 달기도 했던 게 우리네 일반 가정의 풍경이었다. 물론 밥 짓는 연기 까지 경관에 더하면 더 향



▲ 중부 C.C현장으로 3월에 실시한 공사과정이다. 우선 설계에는 없던 계류와 폭포를 추가로 기획해서 진행한 아리가든이다. 면적은 약 1500㎡로 규모가 크다. 경사가 매우 심해 폭포를 적용함으로써 동적인 느낌을 더했고 심한 경사를 줄일 수 있었다. 메인의 사진은 가을에 촬영한 사진이다. 새로운 정원의 섬을 연출했다.



기로움이 묻어났던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해석하면 조경이고 정원이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주 보면 그 가벼움이 읽혀지는 일본 정원과 중국의 과시형 조경을 굳이 직역하여 "경치를 만든다"로 해석한다면 우리 한국의 전통성은 자연을 끌어들이 수목이나 기타 식물 등 자연적 소재를 오히려 절제하여 억지로 자연을 조성하는 방법을 피한 선조들의 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사실 궁궐과 향교 혹은 고래 등 같은 기와집도 자연 속으로 혹은 자연 속에서 하나의 자연적 구조물이 되게 하여 스스로 자연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전통 조경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약하다거나 혹은 없다고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서구 선진 가든인들이 우리 초가지붕의 아름다운 선과 한옥의 처마선 기와의 조형미에 감탄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전통 정원이 가지고 있는 자연을 품어 안는 지혜를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정원의 문화에 많은 생각을 해 왔다. 경관을 조성하고 정원을 가꾸면서 해외의 유명한 공원이거나 정원을 여행하면서 처음에는 약간의 기도 죽었다. 일본의 섬세하게 잘 가꾸어진 정원을 보면서 놀랐고, 중국의 거칠지만 위용을 과시하는 정원을 보면서 우리의 정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했다. 특히 유럽이나 북미의 유명한 정원이나 공원을 여행하면 항상 맞닥뜨리는 일본의 정원테마와 중국의 정원테마는 확실한 포

▼ 청문 앞에 작은 정원에 적용되어 암석에 의한 볼륨감은 없지만 식물과 식물사이의 여백으로 시원하면서도 밝은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맷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정원은 거의 없고, 간혹 있다하더라도 공원의 언저리에 기와집이나 정자를 생동맞게 앉혀놓고 한국정원으로 소개되거나 사각형의 연못에 두발을 담고 있는 정자가 고착되었다. 그곳에는 자연이라는 것이 없었다.

사실 선진 외국 정원에서 필수요소로 인식되는 파빌리온(pavilion)은 기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중요한 경관적 구성요소인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전통 정원 양식이라고 소개하고는 정원 한 구석에 억지로 구겨 넣은 듯한 모습에서 차라리 피하고 싶어 돌아가기도 했었다. 한국적 자연과 그들의 자연은 다르다. 그리고 파빌리온을 경관적 포인트로 활용을 하듯 그렇게 경관적 화룡점정과 같은 곳에 적용해야만 우리의 멋이 살아있는 전통성이 가치

▼ 이곳은 스타트하우스 앞인데 많은 사람들이 경계에 앉서 머무르게 되는 곳이다. 면적은 작지만 아주 다양한 종류가 식재되어 계절감이 뚜렷하고 화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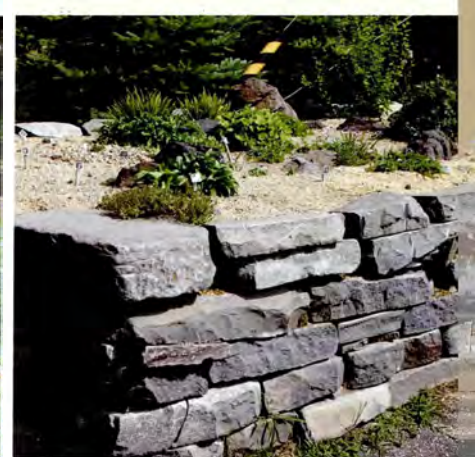




▲ 라데나 C.C의 삼각지에 섬처럼 조성하여 사면에서 감상 가능하도록 조성했다. 고객들로부터 아리가든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자 라데나C.C는 1만㎡이상을 아리가든으로 조성했다.



▲ 영국의 대표적인 큐가든의 락가든. 사각의 돌을 담장과 같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올리면서 락가든용 식물들을 주로 적용했다.



▶ 일본 홋카이도의 식물원에 조성된 암석가든으로 주로 고산의 키 작은 식물들을 적용했다. 다소 밋밋해 보인다.

를 발할 것이다. 우리의 자연환경은 매우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지금도 정자를 많이 짓고 있다. 도심공원에 한 두 군데는 필수요, 아파트단지내 정원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소재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선조들이 자연스러운 미를 완성하고 자연과 교감하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정자로 다가오지 않는다.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건축적 경관이 서구화된 개인들 주택에도 옥상이나 정원에 우리 전통양식을 흉내내거나 변형된 정자를 구겨 넣듯이 들어놓고 있다. 물론 최적의 경관미와 기능성을 잘 살려 정원에 포인트로 안성맞춤인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때문이라면 현대적인 모양의 파빌리온이 맞을 것이다. 우리의 정원은 이미 전통의 자연에서 빠져나왔고 건축물은 서구화되었기 때문이다.

## 한국의 새로운 가옥 구조 혹은 정원에 알맞게 창조한 새로운 테마정원

이런 저런 이유로 필자는 많은 고민을 했다. 이미 우리의 가옥 구조는 바뀌었다. 정원도 바뀌었다. 어떻게 하면 세계에는 없는 우리의 새로운 환경과 잘 어울리는 정원테마를 창조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해외를 돌면서 그들의 건축 혹은 공원이 잘 창조되거나 관리된 정원에 감탄을 하면서 참 부러워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의아한 생각이 들고 어딘지 모를 어색한 정원 테마가 있었다. 바로 락가든(Rock Garden)이라는 테마를 접하면서 어디서 참 많이 본 듯한 것이었다.

우리의 석축문화와 다를 게 없었다. 우리는 집을 짓거나 도로 혹은 토목용 할 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돌을 쌓아올리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었다. 우리는 지천에서 보고 있고 오히려 피하고 싶어지는 어쩔 수 없는 토목적 개념이 정원의 한 테마로 사랑받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의 락가든에는 법칙이 있었다. 바로 돌을 쌓는 방식과 식물의 선정과 식재방법이 화양목 혹은 철쭉으로 획일화된 우리의 석축과는 달랐다.

“그래 우리나라에 맞게 돌과 잘 어울리는 정원 테마를 탄생시켜 보자.” 그때부터 우리의 자연과 아름다움 그리고 감성까지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했다.

바로 백두산이었고 초가지붕의 박과 박꽃이었다. 그리고 하늘과 밥 짓는 연가까지도 정겨운 우리만의 특별한 정원을 생각했다. 필자는 백두산을 10번 이상 올랐다. 그때마다 온전히 천지를 볼 수 있는 행운도 따랐다. 백두산은 정상부근이 모두 하얀색의 화산석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초가집, 빗바랜 화색의 초가지붕 위의 박넝쿨은 두리 동실한 하얀 박을 1개 혹은 2~3개씩 모여 달았고 하얀의 박꽃을 피워낸다. 파란 가을 하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고 달이라도 떠오르면 그 정감에 절로 시가 나오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 자연을 담았다. 그 이름을 고상하게 아리가든(Alpine Rock Island Garden)이라 명명했다. 섬이 되어야 하는 까닭은 이미 우리의 자연은 길과 건물과 사람으로 질려 독립 공간적 경관미를 살려

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 우리꽃 이전 농장에 모델정원을 만들었다. 그 모델정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모든 설명이 끝이 났다. 많은 고객들이 앞 다투어 조성 의뢰를 했다. 특히 등록된 이유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노하우는 식물의 상호 관계와 생리, 생태적 특성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00종 이상의 식물이 적용되는데 식물의 선정과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일 년도 안 되어 망가진다.

## 유럽의 암석 가든과는 다르다

아리가든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종류의 꽃이 우리의 정자에 자연미를 더해주듯 작은 정원이라는 단위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모양과 색채를 나타낸다. 유럽의 암석가든은 암석가든 식물로 분

류된 식물들을 이용하는데 주로 고산성의 키작은 식물들이다. 아리가든에는 역사와 같이 키가 큰 식물은 물론 몇몇 관목과 교목도 적용한다. 특히 포천석 등 회색의 둥근형의 돌을 이용하여 초가지붕에 눌러앉은 박과 같이 정겹게 놓여야 한다. 때문에 돌만 놓아도 아름답고 조형미가 있어야 한다. 물론 초가집의 지붕 선과 같은 마운딩은 기본이 된다. 하늘이 보이거나 보일 것 같은 느낌이라야 한다.

돌 놓기가 완성되면 검은 부직포로 토양을 모두 피복하고 비워만 노출되도록 한다. 이때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현장여건에 따른 식물 층을 선정하고 이들의 적절한 배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우선하여 포인트 식물을 먼저 배치한다. 대체로 키가 크게 자라는 식물들 먼저 적용하는 것이다. 설계 도면에 잘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여건과 놓



▲ 아리가든의 큰 장점은 계절감이 뚜렷하고 고급스럽다는 것이다. 다양하게 적용한 식물이 피고 짐을 계속하다가 겨울이 오면 그라스와 상록의 식물들이 어우러져 비위와 함께 색다른 조형미를 연출한다.



▼ 중부CC의 스타트 하우스 앞 친솔입로는 4계절 아름답다. 시간이 지나 너무 포기가 무성해지면 일부를 제거하고 커팅도 해 주어야 한다.



인 돌, 마운딩 각도에 감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리가든은 겨울에도 아름답다. 상록의 식물과 겨울에도 좋은 그라스 혹은 관목들이 적절하게 배치되기 때문이다. 물론 동선의 앞쪽에는 키 낮은 식물이 배치되는 것은 당연하다.

식물 심기가 완료되면 화산석으로 멀칭을 한다. 화산석은 어두운 색을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 너무 어두운 정원이 되기 때문이다. 화산석은 주로 흰색을 띄는 종류가 좋는데 하천에서 채취한 것이 좋다. 화산석의 멀칭 효과는 매우 좋다.

정원을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하게 하고 부직포를 보이지 않게 하는 성격도 있다. 잡초를 방지하고 여름에는 통풍과 습도를 유지시키고 겨울에는 보온과 지온을 끌어 올리는데 매우 유용하다. 피복의 두께는 2~3cm가 가장 좋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면 고양의 살수기로 바위에 묻은 흙과 이물질 등을 씻어 내고 충분히 물을 주어 마무리 한다.

아리가든은 유지 관리가 매우 쉽다. 식물의 생장 시기에 따라 약간의 컷팅과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가 기대 이상으로 자랄 때 솎아주는 것과 일부

발생하는 잡초 제거가 전부다.

한국조경의 새로운 정원테마 아리가든, 이제 현대적인 한국 정원의 중요한 자량거리가 될 것이다. 유럽에 락가든이 있다면 한국에는 아리가든이 있다. 석축개념과 같은 암석가든이 아닌 자연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정원을 만드는 일인 것이다. 아리가든에는 바람도 있고 하늘도 있고 우리의 발 짓는 향기도 담은 대한민국의 새롭게 창조된 차별화된 대표적인 정원테마이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의 중심부에 한국의 정원으로 아리가든을 소개하고 싶다. **in**

## 아리가든의 동일 지점에서의 계절 변화

아리가든은 오직 적용된 식물에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다.

잡초 혹은 식물 상호간의 경쟁을 최대한 줄여 튼튼하고 긍정적인 심미적 밝은 경관을 연출한다.



Spring



Summer



Autumn



Winter





## ARI Garden 조성 시공 현장 스케치



1. 조성할 부지에 잡초와 표토층을 걷어 낸다.



2. 양질의 토양을 추가 지붕과 같은 형태로 마운딩을 주어 그 선이 아름답게 한다.



3. 호흡이 잘 맞는 장비 기사와 협력하여 돌의 위치를 정한다. 이때 작업 책임자가 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돌을 놓고 나면 그 자체로 아름다워야 한다.



4. 돌이 놓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삼각형으로 연결되고 사람의 눈이 분산되면 안 된다. 사진의 아래 줄지어진 돌 모양은 바람직하지 않다.



5. 돌이 놓여지면 다시 면 정리를 하고 부직포를 깔게 된다.



6. 부직포는 토양만 피복하는 것으로 바뀌는 노출시킨다.



7. 부직포에 구멍을 뚫고 식물을 심는다. 화산석을 잘 퍼서 깔아 완료한 상태. 수압이 강한 호스를 이용해 돌을 씻고 물을 충분히 주면 완성된다.



8. 늦가을에 완성되어 겨울을 나고 봄을 맞이한 아리가든은 아름다움과 함께 심미적 서정성 까지도 담은 듯하다.



## 가을 정원의 멋

## 그라스

국내에서도 그라스가 조경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라스는 계절의 풍취를 더해 주는 정원의 경관과 감성 아이템으로, 또는 혼합식재의 포인트 식물로 유용하다. 이번호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적용이 유용한 종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예를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그라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글·사진 강은지 기자

그라스는 사초과와 화분과로 대표되는 선형의 잎이 주요 감상포인트로 쓰이는 품종군이다. 계절별로 과감한 변화를 주는 그라스는 정원에 새로운 면이 나타나게 하며 겨울경관에 수직적으로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킨다. 품위있는 초형과 호리호리한 화서와 줄기, 색깔 있는 잎 등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라스는 생장 형태에 따라 포기가 점점 크게 자라는 종류와 지하경 생장을 하여 넓게 퍼지는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포기가 커지는 종류는 조밀하게 성장하여 형태가 고급스럽고 다른 군집으로 침입하지 않는다. 다른 숙근초들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하경 생장을 하는 종류는 땅속 줄기에 의해 퍼져나가 공격적이다. 침입성이 강한 종류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그라스는 금세 전체 지역을 덮어버릴 수 있으므로 잘 가꾼 화단에는 맞지 않다. 그라스를 선택하기 전에 그라스가 어떻게 자라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식재후에 일어날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관리 | 한번 자리 잡으면  
관리는 거의 필요 없다.**

햇빛이 많이 들고, 촉촉하거나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또는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 pH 범위가 5.0에서 8.0까지 다양한 타입의 토양에서도 잘 자라며 비료는 거의 필요 없다. 어떤 그라스는 따뜻한 온도에서 잘 자라고, 어떤 것들은 서늘한 온도를 좋아하므로 생장과 휴면온도를 확인해야 한다. 보통 매일 직사광선이 세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 내리쬐는 곳이 가장 좋다. 너무 음지에서 이러한 그라스품종들은 꽃이 피지 않을지도 모르며, 느슨하게 자라고 잘 넘어지는 경향이 있다. 가을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특징 | 다양한 질감의 선,  
인테리어 효과 최고**

- 그라스는 다른 가든 식물보다 토양을 상대적으로 가리지 않는다.
- 지피식물, 침식 방지 그리고 수직적인 디자인 요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 벌레와 질병이 거의 없다.
- 영양분 요구량이 적다.
- 볼 줄기 자르기를 제외하면 관리가 필요없다.
- 빨리 자라는 경우, 3년이면 완전히 성숙한다.
- 말린 그라스는 실내외의 장식으로도 쓰인다.
- 김의털처럼 아주 얇고 고운 질감부터 큰 억새의 거친 느낌까지 다양한 질감을 준다.

**종류 | 종류마다 특성과 맛이 다르다**

● 무늬엽주그라스

그라스 중 가장 하얀색의 잎을 가진 종으로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는 생육이 극히 불량하거나 휴면에 들어가지만 서늘해지는 가을과 봄에는 매우 밝은 하얀색을 보여준다.



▲ 잔디밭을 경계로 라인 식재되어 있는 모습.

● 억새 모닝라이트

잎이 가늘고 긴 억새로 잎의 선형이 아름답고 전체적인 초형도 안정적인 억새이다.



▲ 안정된 초형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선형의 잎과 붉은색 꽃대가 고급스런 모습을 보여주며 열식되어 있다.

● 상록갈사초

진한 초콜릿의 브론즈색으로 흐르는 머릿결 같은 품이 고급스럽다. 대형화분에 재배하여 디스플레이용으로 좋으며 특히 특별한 공간 연출에 최적의 소재이다.



▲ 메인식물의 외곽 라인쪽 부소재로 사용되었다.

● 파니콤

아름다운 가을햇살에 잘 어울리는 그라스로 무리를 이루어 식재하면 더욱 좋다. 지하경을 뻗어 번식하고 매우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는 식물이다.



▲ 분홍색 에키나와 혼성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 아이스댄스

가죽과 같은 혁질의 잎에 크림색의 무늬가 뛰어나고 겨울에도 상록이며 내용성이 좋아 활엽수 아래 지피용으로 좋다.



▲ 암석가든에 난과 같은 초형의 아이스댄스가 돌연으로 식재되어 있다.

● 억새 그린라이트

그린색의 초형이 아름답고 가늘고 긴 선형의 잎이 멋스러운 경관을 보여준다.



▲ 보행로 계단 옆으로 열식되어 있는 경관



● 대사초 골든라이트

음지의 좋은 소재로 황금색무늬가 강렬하고 약간의 습기를 좋아하지만 건조에도 강하다. 소나무정원의 건조지에도 좋다.



▲ 입산 고봉로 수목 아래 음지에 옥잠 엘레강스와 식재되어 있는 모습. 골든라이트의 황금색과 엘레강스의 블루색이 아름다운 색감 대비를 이룬다.

● 플락카

카네이션 잎을 닮은 푸른잎사초로 파랑색 잎은 매우 고급스럽고 질감이 섬세해 지피식물로 매우 좋다.



▲ 푸른색의 질감이 돋보인다. 노지에 재배되고 있는 모습.

● 무늬갈풀 페세이

대형의 식물로 아름다운 무늬와 꽃은 6월에 최고의 경관을 보여준다. 대부분 수변식물로 좋고 대형의 군락 식재에 유리하다.



▲ 하얀색 무늬의 잎과 꽃이 최고의 절정인 6월의 모습.

● 무늬글리세리아

수변과 습지, 수중 어디서나 생육이 가능한 무늬 종 식물이다. 무늬가 가을까지 좋아 이들만의 군식도 유리하다.



▲ 무늬글리세리아는 수중 20cm까지 생육이 가능하다. 수중 식물로 소 물속에 식재되어 있는 모습.

● 카가

밝은 숲속 혹은 양지에 좋다. 녹색의 잎은 질감이 좋고 메트형성이 좋아 지피용으로 알맞은 품종이다.



▲ 디딤돌 양쪽으로 다른 식물과 경계가 되도록 라인식물로 점식되어 있다.

● 탈수염풀

그라스 중 대체로 빠른 봄에 효과적이며 꽃이 피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군식하거나 열식하는 대형 군락의 형태가 아름답다.



▲ 경마공원의 무지개 화단에 탈수염풀이 식재되어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 하코네클로아

하천이나 연못가에 심으면 늘어져 흔들리는 모습이 일품이다. 음양지 모두에 잘 적응하고 그늘지 역을 아주 밝게 해 준다.



▲ 점식되어 있는 하코네클로아 사이에 심록진디패랭이를 에워싸며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 빨강꽃과 노란색 잎이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 무늬억새

대형의 그라스품종으로 무늬가 매우 아름다운 억새로 단독, 군식, 혼식, 혼성 식재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 무늬억새가 뒤쪽 라인에 하얀 무리를 이루며 군식되어 있다.

● 종새풀

섬세한 털 같은 모양으로 녹색의 아름다운 양잔디의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군식하면 좋다. 서늘한 계절을 좋아하고 건조에 약한 면이 있다.



▲ 식생 매트로 하우스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모습.

● 무늬여우꼬리그라스

노란 무늬가 일품이고 무늬가 좋아 하천 촉방 등의 라인식물로 좋다. 양지에서 반음지까지 생육이 가능하다.



▲ 노란무늬의 무성한 잎과 여우꼬리모양의 꽃이 조화를 잘 이루며 식재되어 있는 모습.

● 무늬새

그라스 중 빨리 개화하는 종으로 혼합 식재 등에 좋다. 봄에는 무늬가 가을에는 마른 잎이 아름답다.



▲ 군식으로 식재된 무늬새의 무늬와 이삭이 마치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상시킨다.

● 역새 리틀제브라

잎에 가로로 호피무늬가 있고 일반 호피역새에 비해 키가 작아 쓰라짐이 없는 특징이 있다. 그라스 화단 중간중간에 포인트 식물로 적용하면 좋다.



▲ 봄, 여름에는 삼색조팝의 잎과 꽃을, 늦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역새 리틀제브라를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 역새 파랑새

키가 작은 역새로 잎 전체적을 블루톤의 질감이 좋고 군식, 열식, 포인트 식재 등 어디에 적용가능하다. 키가 작아 쓰라짐 없이 화단 식재시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 키가 큰 무늬억새 사이로 키 작은 역새 파랑새가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내뿜고 있다.

● 에버골드

상록성의 크림색 무늬가 좋아 분화용으로 혹은 조경용으로 뛰어나다. 건조한 숲의 활엽수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소나무 아래도 생육 가능하다.



▲ 에버골드의 무늬와 늘어지는 형태적 장점을 살려 디스플레이용으로 화분에 심어 배치한 모습.

● 파란김의털

잎의 질감이 좋고 햇빛이 좋은 배수가 잘되는 건조지용으로 좋다. 질서있는 열식과 군락 식재에 좋다.



▲ 디스플레이용으로 화분에 식재되어있는 모습. 청색의 느낌이 매우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 홍 띠

붉은 잎이 주는 아름다움으로 고급정원에 많이 이용된다. 강한 결속력으로 지피용으로 최상이다.



▲ 그라스화단 앞쪽에 포인트로 식재되어 있다.

● 흰줄무늬대사초

잎의 외곽에 흰줄무늬가 있고 음지의 좋은 소재이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습기를 좋아하지만 건조해도 강하여 소나무정원의 건조지에도 적용가능하다.



▲ 나무 아래 음지 사면에 군식되어 있는 흰줄무늬대사초.

● 사초 아우레아

황금무늬가 아주 고급스러운 양지 및 반음지 식물로 낮은 물가에 식재가 가능한 사초이다.



▲ 연못의 돌틈사이 다른 수변식물과 어울려 심겨져 있다.



## 잎의 무늬가 아름다운 호스타류



글·사진  
이중석  
서울여대 명예교수  
국립수목원 초빙연구원



▲ 1. 주걱비비추의 꽃.

옥잠화를 포함한 비비추(Hosta)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과 중국의 동북 부지역에 분포되어 자라는 지역 특산식물이다. 추위에 잘 견디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환경 적응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원과 뜰에 흔히 심겨지는 여러해살이의 초본성 식물이다.

### 화훼 선진국에서 인기 높은 정원식물

우리나라에는 비비추를 비롯하여 참비비추, 주걱비비추, 좀비비추 등이 전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자라고 있는데 특히 전남 신안의 홍도나 흑산도에 는 희귀한 흑산도비비추가 자라고 있다.

그런가하면 중국의 일월산에서 처음 발견된 일월비비추가 있고 제주도의 한라산에는 한라비비추와 방울비비추가 자생한다. 이외에도 이삭비비추와 해인비비추, 금산비비추, 둘산비비추, 봉화비비추 등이 있지만 일반가정에서는 옥잠화를 비롯하여 비비추가 흔히 재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많은 종류의 잎무늬종의 비비추(Hosta)들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잎무늬종의 비비추에 관한 관심

도가 그리 높지는 않으나 미국이나 영국, 화란, 독일 등 서구의 화훼 선진국에서는 동북아시아지방이 원산지인 원추리, 국화, 억새류, 수크령 등과 더불어 매우 인기가 높은 정원식물 중의 한 가지에 속한다.

도심이든 시골이든지간에 우리나라의 들이나 정원 그리고 가로변의 화단에서 자주 눈에 띄는 식물이 비비추와 중국 원산의 옥잠화이다. 특히 옥잠화는 도입식물이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재배되어온 민속식물이라서 이들은 이미 자생식물이나 다름없이 취급하고 있는 귀화식물이 되어 버렸다.

그런가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자생지인 비비추류들은 1812년경 처음으로 서양에 전해졌는데 서양에서는 이를 방황식물로 사용하여 많은 품종들이 개발되었으며, 지금은 유럽 등지에서 널리 선호되고 있는 인기 식물이 되었다.

### 반음지 식물로 수분이 풍부한 곳에서 생육

원래 비비추류는 반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서 수분이 풍부한 것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가의 돌 틈 사이에서 잘 자라는가 하면 높은 산 정상부의 습지 풀밭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다. 추

위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한성이 강하지만 겨울철에 지상부로 뿌리가 드러나서 건조하고 매마르게 되면 곧잘 고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반음지 식물이지만 햇볕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나무숲속이나 극심한 음지쪽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며 반대로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이는 땃밭 아래에서도 잘 견디지 못한다. 설명 다소 겹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잎 끝이 황갈색으로 타들어가거나 황화현상이 나타나서 관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침나절에 햇볕이 들어오거나 나뭇잎 사이로 간간히 살짝살짝 햇살이 비치는 곳에서 잘 자라는데 특히 잎에 무늬가 들어있는 종류들은 더욱 그러하다.

한편 옥잠화를 비롯한 넓은 잎을 가진 비비추 종류들은 물론 잎이 작고 엽육이 얇아서 연약한 좀비비추는 여름철에 뿌리부근의 지온이 높아지고 과습하여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 잎자루의 기부에 곰팡이병이 발생하여 잎이 주저앉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름철이 되면 포기부근의 지표면을 바르나 짚으로 피복을 해주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곰팡이병을 방제하는데 효과적이다.



▲ 1. 주걱비비추.



▲ 2. 옥잠화꽃

### 생각의 전환, 음식 장식용으로는 어떨까

옥잠화나 비비추의 어린잎은 씹이나 나물로서 식용이 가능지만 나온지가 오래된 잎은 잘 먹지 않는다. 과거에 시골에서는 밥을 먹다가 생선가지가 목에 걸렸을 경우, 얼른 달려 나가 마당의 가장자리나 장독대 옆에 심어놓은 옥잠화의 잎을 따다,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옥잠화 잎으로 쌈밥을 만들고 그걸 꿀꺽 넘기도록 했다. 목구멍에 걸린 가시가 씻겨 내려가도록 하는데 옥잠화 잎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목구멍 가시를 처리하는데 이용하기보다는 아름다운 잎무늬종의 비비추류의 잎은 음식을 장식하는데 이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떡갈나무의 넓은 잎으로 떡을 싸는데 이용했다면, 무늬비비추의 넓은 잎은 접시위에 깔고 그 위에 떡이나 생선회, 고기를 올려놓아 아름답게 장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 크기가 작은 무늬종의 좀비비추 잎은 음식의 액세서리 장식용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마치 파슬리 잎을

음식의 장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정원에 꽃을 가꾸고 기르면서 생각을 바꾸고 용도를 바꾼다면 좀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다.

관상용을 식용으로, 식용을 관상 및 장식용으로 용도를 한번 바꾸는 생각도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들을 모은다면 원가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법도 하여 기대가 된다.

### 1.주걱비비추

우리나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종류로서 일반 비비추와는 달리 잎이 좁고 너비에 비하면 긴 편인데 무늬는 들어있지 않다. 돌 틈 사이에 심거나 화단에 부분적으로 집단 식재하여 푸른 잎을 감상하기도 하며 늦 여름철에 자주색으로 피는 꽃을 감상하기도 한다.

### 2.옥잠화

중국이 원산지인 옥잠화는 고려시대 이전에 들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잎 모양은 둥근 난형인데 연록색이고 엽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잎 표면에는 윤기가 있다. 8월 말경에 마치 비녀를 닮은 듯한 하얀 꽃이 긴 꽃대의 끝부분에서 차례로 피며 향긋한 꽃향기도 풍긴다.

### 3.은하(銀河)

좀비비추의 한 품종으로서 필자에 의하여 육성되었고 2008년 2월에 품종 등록이 이루어진 바 있다. 초록색 바탕의 잎에 유백색의 미세한 작은 반점들이 무수히 찍혀있어서 마치 은하수를 연상케 하는 무늬가 나타나는 소형종이다. 주로 초물분재용으로 알맞으며 미니화분에 재배하면 좋은 품종이다.

### 4. 홍도(紅島)

흑산도비비추의 한 품종이며 필자에 의하여 육성되어 2007년 2월에 특허등록을 마친 국내육성 품종이다. 전남 신안군에 있는 홍도에서 종자를 채집하여 파종하면서 변이체를 유발시켰는데 황록색 바탕에 잎의 가장자리에는 노랑색의 무늬

▼ 3. 은하



▼ 4. 홍도







▲ 5. 옐로우 드림(Yellow Dream)



▲ 6. 화이트 에지(White Edge)

가 또렷하게 들어있고 내부쪽에도 세로무늬가 들어가는 전형적인 중투호(中透繻)이다.

5.옐로우 드림 (Yellow Dream)

제주도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좀비비추의 종자를 이용하여 필자가 육성한 품종이며 2010년 7월에 특허등록을 마쳤다. 황금빛을 띤 연두색을 가진 잎으로서 색상이 균일하고 깨끗한데 색상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환상적인 엽색을 지니고 있다.

6. 화이트 에지 (White Edge)

녹색바탕에 임가장자리가 백색인 전형적인 북문인 좀비비추 품종으로써 필자가 육성하여 2007년 5월에 품종등록이 완료된 품종이다. 생장과 번식이 잘 되는 품종으로서 반응지의 피식재용으로 알맞은데 초물분재용으로도 이용성이 높다.

7. 옐로우 티아라 (Yellow Tiara)

외국품종인 골든티아라(Golden Tiara)에서 선발한 황금색의 엽색을 가진 품종인데 필자가 2009

년 6월에 품종등록을 했다. 잎은 좀비비추보다 넓은데 잎 전체가 노랑색에 가까운 황록색이며 성질이 강하고 환경적응성이 좋아 정원의 지피용으로 알맞은 품종이다.

8.블루 에지 (Blue Edge)

연두색 바탕에 임가장자리가 진한 초록색인 소형종의 비비추로서 녹중투호(綠中透繻)의 무늬를 가진 품종이다. 필자가 2007년 5월에 품종등록을 마쳤으며 햇볕이 강하면 색상이 또렷하지 못하므로 화분에 심어서 광선조절을 잘 한다면 아름다운 잎을 감상하기에 좋은 품종이다.

9.화이어 앤드 아이스 (Fire & Ice)

1999년에 육성된 외국품종인데 Patriot라는 품종에서 파생된 변이종이다. 초록색과 백색의 색상대비가 또렷한 백중투(白中透)무늬의 중륜종(中輪種)으로 성질이 매우 강건한 편이다. 반응지쪽이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면 색상발현이 잘 되며 간접광선이나 음지에서는 부진해진다.

10.캐비탄 (Kabitan)



▲ 10. 캐비탄(Kabitan)



▲ 11. 자넷(Janet)

일본에서 육성된 것으로 보이는 소형종으로 진한 황록색 바탕에 임가장자리는 초록색의 선이 둘러져 있는 녹복륜(綠覆輪)이다.

잎은 비교적 좁고 너비에 비해 긴 편이며 가장자리에는 잔잔한 굴곡이 있다. 엽색은 아름답지만 엽성이 약한 편이어서 노지에서 방치하여 재배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품종이다.

11.자넷 (Janet)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연두색 바탕에 진한 초록색이 임가장자리에 들어가 있다. 잎의 크기는 중간정도에 속하는데 잎육이 두텁고 엽성이 강하여 화단용으로 적합한 품종이다. 지나친 양지쪽이나 고온조건이 되면 색깔이 다소 흐려지고 또렷하지 못하게 되므로 반응지에서 길러야 아름다운 무늬를 감상할 수가 있다.

12.유니비타타 (Univittata)

외국품종이며 새잎이 나와서 자랄 무렵에 초록과 백색의 대비가 가장 뚜렷한 품종인데 도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종류이기도 하다. 언제 도입되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유사한 품종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식재되어 있고 간혹 화분에 심어서 기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잎은 약간 뒤틀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끝부분이 살짝 꼬인다.

13.펫트리엣트 (Patriot)

외국에서 육성된 중대형종의 품종으로 1991년에 발표된 품종이다. 원래 프란씨(Francee)라는 품종에서 나온 변이종인데 잎은 치밀하고 강하며 색상대비가 또렷한 것이 특징이다. 잎은 단단하고 비교적 빠르게 자라며 엽맥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화단용이나 화분용으로 알맞은 품종이다.

14.썬파워 (Sun Power)

외국 품종이며 1986년에 발표된 대형종으로 잎이 크고 풍부하다. 엽색은 전면적으로 황금색에 가까운 연두색인데 햇볕을 잘 받게 되면 더욱 노랗게 된다. 그러나 광선이 지나치게 강하면 일소현상이 나타나서 잎이 타는 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관상가치도 상실한다. 잎이 넓어서 풍성하게 보이는 것이 장점이다.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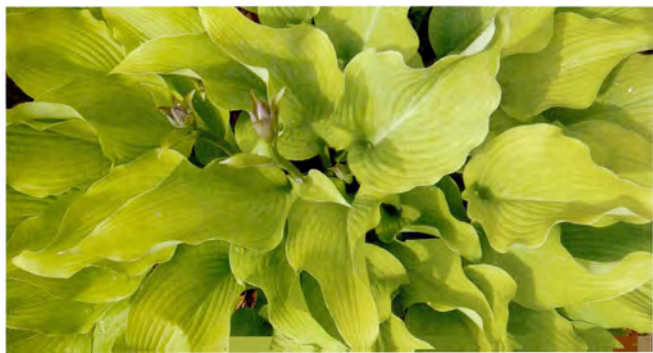
▲ 12. 유니비타타(Univittata)



▼ 8. 블루에지(Blue Edge)



▼ 9. 화이어 앤드 아이스



▼ 14. 썬파워(Sun Power)



▼ 13. 펫트리엣트(Patriot)



연분홍 청초한 매력

## 유럽의 상사화 콜치쿰

글·사진 류제 (파워블로그 류제의 정원 <http://blog.naver.com/bomyunny3>)

콜치쿰은 봄에는 잎만 존재하고 가을에는 꽃만 올라와 피어 유럽의 상사화라 할 만한 화초이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겐 생소한 꽃이지만 분홍빛 청초한 느낌의 꽃은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답다. 이번 호에서는 콜치쿰 재배법에 대해 알아보자.

**습성은 상사화류,  
화형은 크로커스를 닮았다**

콜치쿰은 지중해 연안 지방이 원산지인 백합과의 구근식물이며, 우리네 상사화와 비슷하게 봄에는 잎만 자라고 가을에는 꽃만 피는 습성이 있다. 이렇듯 습성은 비슷하지만 콜치쿰은 상사화와는 꽃 모양이 매우 달라서 크로커스와 비슷하게 생긴 꽃이 핀다.

겉꽃 품종도 존재하는데 이들의 꽃 모양은 마치 수련과 같이 땅 위에 수련이 핀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콜치쿰은 화색이 흰색과 분홍색, 두 가지 정도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한국에서는 분홍색 품종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단조로운 느낌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모아 심는다면 마치 가을에 진달래가 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가을에 개화하는 구근식물을 찾고 있는 이에게 추천할 만한 구근식물이다.

**식재 | 양지바르고 배수가 좋은 곳**

콜치쿰은 여타 구근식물처럼 양지바른 곳을 좋아하여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심는다. 봄에만 잎이 있



기 때문에 낙엽수 밑에 심어도 되나 꽃도 햇볕을 잘 봐야 색이 잘 들기 때문에 역시 사철 양지바른 곳에 심는 것이 좋다. 키가 작으므로 키가 10cm 이상인 식물과 같이 심지 않는 게 좋고, 정원 가꾸기 장처리에 심는 것이 어울린다.

**토양 | 비옥하고 배수가 좋은 것**

토양은 비옥하고 배수가 좋은 토양을 좋아하므로 이런 조건에 맞는 곳에 심어준다. 토양 배수가 좋지 못하면 생육이 좋지 않고 구근이 썩기 쉽다.

콜치쿰은 화분 재배도 잘 되는 편이다. 작고 예쁜 화분에 하나씩 깎구기보다 높이 20~30cm 되는 화분에 3~4구를 심어 가꾸는 것이 더 아름답고, 내년엔 꽃을 볼 확률도 높아진다.

콜치쿰은 특이하게도 흙에 심지 않고 햇볕이 적절히 들어오는 밝은 책상 같은 곳 위에 구근만 놔두어도 꽃이 피는 성질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개화한 콜치쿰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꽃이 진후 바로 꽃을 제거하고, 구근을 흙에 심어주어야 잘 자랄 수 있다. 꽃 감상 후 바로 구근을 흙 속에 심어야 한다.

**구근 심기 |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콜치쿰은 구근 모양이 대단히 특이해 처음 보는 사람은 심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은데, 뾰

럼 튀어나온 부분이 아래를 향하게 심으면 된다. 구근은 톱밥처럼 깊게 심지 않고 얇게 심는 것이 좋는데 구근 위로 흙이 3cm정도 덮이게 하면 좋다.

**물주기 |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콜치쿰은 구근식물이라 정원에서는 가을에 심하지 않다면 물주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화분 재배 시에는 꽃이나 잎이 있을 때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고 휴면기에는 구근을 화분에 그대로 둔 채 물을 주지 않아도 된다.

비료는 가을 무렵 콜치쿰이 심긴 곳에 완효성 비료나 퇴비를 충분히 얹어주고, 잎이 있는 봄~초여름에 액체 비료를 1000배 희석한 액을 2~4주에 한 번 준다.

**번식 | 주로 분구로 번식**

콜치쿰은 실생과 자연적으로 늘어난 구근으로 분구 번식이 가능하지만 실생 번식은 톱밥의 경우처럼 색이 뜬 후부터 꽃을 보기까지 4~5년 이상 걸린다.

씨앗을 맺은 포기의 구근이 약해져 내년의 개화가 실통치 않게 되므로 주로 분구로 번식한다. 콜치쿰 구근은 잘 늘어나는 편은 아니지만 비료를 충분히 주면 구근이 늘어나는데 소소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병충해 | 적합한 환경에서 재배한다**

콜치쿰은 강한 독성을 품고 있어 특별한 병충해가 없다. 그러나 그늘지고 습한 땅갈이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 키울 경우 포기가 허약해져 구근이 썩기 쉬우므로 구근을 양지바르고 배수가 좋은 곳에 심는 것이 중요하다.

**월동 | 대전 이남 지방부터  
노지 월동 가능**

콜치쿰은 따뜻한 지중해 연안 지방이 원산지라 대전 이남 지방부터 노지월동이 가능하고 중부 지방에서의 노지 월동은 잠정할 수 없다. 중부 지방에서 콜치쿰을 키울 때는 화분 재배하여 겨울엔 0~10도 사이의 차가운 장소에서 월동시킨다.

중부 지방에서 노지 월동을 꼭 시키고 싶다면, 눈 녹은 물이 땅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충분히 넓은 비닐로 콜치쿰이 심긴 땅을 덮은 후 눈이나 낙엽을 두껍게 깔아주면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

**구입 | 인터넷에서 1만원 정도로 비싼 편**

콜치쿰은 9월부터 구근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한 구에 10,000원 정도로 비싼 편이다. 9월 현재 꽃씨물에서 판매중이다. [in](#)



## 2013 고양시 선인장 Festival

## 선인장의 매력에 빠지다

글·사진 정승환 기자 / 자료협조 경기선인장연구소



▲ 용선목(Myrtillocactus geometrizans Cons) 다수의 가지가 발생해 나무모양으로 자라는 선인장이다.

다육식물과 선인장. 특히 선인장 하면 미국 서부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L’ 자 모양의 기둥이 상상된다. 선인장은 사막지대에 분포하는 수는 적고, 약간의 자목이 있는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지난 9월에 열린 2013고양시선인장페스티벌에서는 이런 다양한 선인장들을 만날 수 있었다.

기둥처럼 길고 다육질의 몸통에서 솟아 나온 뾰족한 가시들. 사막에서나 볼 수 있는 선인장들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걸 보니 마치 서부영화의 배경을 옮겨 놓은 듯하다. 2013선인장페스티벌은 선인장의 다양성과 조화라는 주제가 어울릴 만큼 다양한 선인장과 선인장을 이용한 조경 등을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구분하기 어려워하지만 선인장은 다육식물의 범주에 속한다. 선인장은 약 2,500여종이나 되는 지구상 식물의 대단위 패밀리(family)이다. 선인장의 조직이 많은 수분을 오래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선인장 표면에는 깊은 주름이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주름 복사열로 인해 식물체내의 온도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라디에이터(radiator)역할을 한다고 한다.

선인장도 곤충을 매개로 꽃가루를 날라 수정하는 총매화이다. 보통 개화기간은 최대 7일 정도이고 평균 1~3일동안 개화된다.

## 선인장 가시가 관상 포인트

선인장은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갖고 있어 관상가치성이 매우 높은 식물이다. 특히 선인장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가시. 선인장의 가시는 사막에서 수분의 증산을 막기 위해 잎이 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시는 동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진 기능을 갖고 있다. 지난 5월호 본지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육식물과 선인장의 차이는 가시자리의 유무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가시자리가 있다면 선인장이다. 가시는 습기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모은 물은 흙으로 한방울 한방울 떨어져 수분을 유지하게 한다. 선인장 가시는 자체로 관상의 가치가 있다. 가시 색깔의 다양성과 길이의 굵기, 가시 개수도 종류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가시자리 중앙에 큰 중앙가시 1~2개, 중앙가시 주변에 5~20개 정도의 가시가 있다.

## 크게 3과로 분류 가능

선인장과 식물은 크게 나뭇잎선인장아과(Peireskioideae), 부채선인장아과(Opuntioideae), 기둥선인장아과(Cereoidae) 등의 3개의 아과로 분류할 수 있다. 약 30종 정도 되는 나뭇잎선인장아과는 목본성 쌍자엽식물에 가깝다. 몇몇 예외를 두고 낙엽, 상록활엽수로 다육화는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부채선인장아과는 둥글고 평편한 과육이 두터운 형태(방상)이거나 구상의 줄기 마디를 겹친 것까지 넓은 형태의 것들이 해당된다. 크기는 다양하지만 지면에 뻗는 것부터 높이 10m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기둥선인장아과는 선인장 진화의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선인장들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두꺼운 기둥 모양부터 가는 끈처럼 생긴 것, 기둥을 달은 것, 구상이나 편구상으로 생긴 것, 공작선인장이나 게릴선장 등과 같이 생긴 것들이 포함된다. 속, 종별로 구분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겠다.

## 밤에 산소를 내뿜는 ‘산소음이온 발생기’

선인장은 건조에 강한 진화된 CAM식물로,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구분된 일반적 식물과 달리 낮에는 기공을 열어 수분을 손실하는 대신 명반응으로 인한 포도당을 중간저장물로 물에 저장하고, 밤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포도당으로 변화시켜 부산물인 산소를 방출한다. 이것은 실내에서 인간이 호흡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다. 한방에서는 뇌혈전이나 고혈압환자들의 병 치료에 선인장을 기르는 것을 권한다고 한다. m



▲ 난익(Cereus peruvianus). 마치 두꺼운 지팡이를 묶은 이 선인장은 높이가 10m에 이른다.

## 2013 고양시선인장 페스티벌에서 만난 다양한 선인장



▲ 거취목(Ferocactus horridus Br. &amp; R.). 높이 약 1m 정도 되는 선인장이 페스티벌의 기둥처럼 서 있다.



▲ 근위주(Stetsonia coryne). 서부영화의 마지막 정면에 항상 등장하는 선인장 중 하나이다.



▲ 금호(Echinocactus grusonii Hildm). 황금색의 가시가 일품인 선인장이다. 보통 300년정도 산다고 한다.



▲ 적봉(Ferocactus stainesii Br. &amp; R.) 선홍색가시가 마치 밤송이를 연상케 하는 선인장.



▲ 대봉룡(Neobuxbaumia poliocephala(DC.) Backbg). 사람 키보다 큰 선인장으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크는 선인장이다.

## 선인장기르기

온도. 자생지의 낮 온도가 40°C 이상 올라가고, 야간에 영하로 떨어지는 최악의 환경에 생육하는 것이 선인장이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생육 온도는 낮 최고 30~40°C, 야간은 최저 10°C 정도일 때에 잘 자라는 종류가 많다.

광.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기를 때 이해를 갖는 것이 바로 햇빛 없이 실내에 두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겨울이라도 4시간 정도의 일조는 꼭 필요하다. 화분에 재배할 때는 강한 광선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봄부터 가을까지 적당한 차광해 주면 생육이 순조롭다.

물주기. 생장중에는 화분 겉흙의 1/3 정도가 마르면 관수한다. 표면이 젖어있는 화분에는 관수하지 않는다. 관수시에는 화분 아래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용토. 최적의 용토 및 배합율은 없다고 한다. 자신이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용토 사용도 달라진다. 선인장을 식재하기 전에 용토를 담은 화분에 물을 관수해 물빠짐이나 건조상태를 파악해 조절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비료. 선인장은 타식물과 비교해 생장속도가 느린 편이므로 비료가 필요치 않다. 비료 없이 용토에 심어 추비하나, 심을 때 비료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 초보가 키우기 쉬운 다육 세덤(Sedum)

글·사진 정승환 기자  
/ 도모말 햇살바람&다육(cafe.daum.net/sundayuk)



가을이다. 다육식물이 가장 멋진 색깔을 뽐어내는 시기가 바로 시월이다. 하지만 단순히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 생각해 그냥 방치해 두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무지한 가드너들이 있기 마련이다. 초보자가 가장 키우기 쉬운 다육식물인 세덤, 밤낮의 기온차가 가장 큰 시월에 세덤 색깔의 화려함을 만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세덤형, 꽃에서 향기가 나는 등 다양한 것들이 많다. 짧고 긴 가락들이 군집을 이뤄 폭죽이 터지는 형상을 연상케 하는 꽃은 '양종앗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햇빛, 통풍 중요...과습에 주의**

햇빛에 따라 잎 색깔의 변화가 많은 것이 특징인 만큼 햇빛이 매우 중요하다. 이씨의 말에 따르면 햇빛은 다육이 예뻐지게 하기 위한 도구. 통풍은 다육이 살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한다.

세덤은 추운 겨울에 강하지만 습기에는 약하다. 특히 저온기 화분의 용토에 습기가 많으면 부패를 일으키고, 잎이 물러져 버릴 수 있다. 건조한 상태, 즉 통풍을 유지하는 것이 세덤 관리의 중요한 점이다. 물관리는 다른 다육들과 비슷하지만 소송록 등의 세덤은 3~4일에 한 번씩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도록 염두해 두어야 한다. 온도에 신경 쓰는 가드너라면 삼목시기는 4~6월, 12°C 이상의 온도가 적당하다. 또 충분히 생육하는 시기까지는 15°C 이상으로 보온하는 것이 좋다.

**화려한 색깔...일교차가 비밀**

가을은 다육식물들에게는 자신의 색깔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기이다. 단순히 계절의 변화만으로 다육의 색깔변화가 시작하지만 더욱 가을의 색조를 물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미경 씨는 세덤과 같은 다육식물이 색깔을 잘 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다.

"다육을 키우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요. 단풍이



▲ 소비자들에게 인기 높은 세덤속인 황금세덤(Sedum makinal 'Ogon') (Ougano).

Tip

**다육이 물들이기**

낮은 저녁에 스프레이로 잎에 찬물을 살짝 뿌려 준다. 이것은 잎의 온도를 크게 하여 색깔이 변하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

물들이는 조건이 일조량 많았을때, 일교차가 많았을때, 먹을 수 있는 양분이 적었을 때가 되어야 해요."

이미경씨의 설명에 따르면 봄과 가을이 일교차가 가장 큰 시기라는 점이다. 보통 기온차가 2~3도로 차이가 나니 입추가 지나고 9월부터 다육들은 물들이 시작한다고 한다.

이런 일교차를 더 크게 하기 위해 마니아들이 쓰는 방법도 소개했다. 저녁에 스프레이로 찬물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다육식물의 잎이 느끼는 온도가 더 떨어지므로 순간적으로 기온차를 높일 수 있다. 안개 낀 지역이 물이 더 빨리 드는 것도 같은 이유다.

세덤은 실생번식보다는 잎꽂이, 염상으로 번식하는 것이 빠르다. 조그마한 자루에서 뿌리와 신초가 나오는 기쁨은 다육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기쁨이다. 10월, 가장 키우기 쉽고 예쁘게 물드는 다육식물 세덤 속을 키워보는 것이 어떨까?

## How to

한번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다육식물 분갈이

촬영협조\_이해미(햇살바람&다육 카페지기)



1. 집에서 예쁜 화분을 준비했다면 바로 분갈이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다육은 아가보이데스이다.
2. 다육의 뿌리가 모두 나올 정도로 조심스럽게 뽑은 다음 흙을 털어낸다.
3. 털어낸 뿌리를 가위로 자른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많으나 뿌리를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다고 한다.
4. 다육은 배수가 중요. 굵은 마사토와 배양토를 6:4의 비율로 해두는 것이 좋다.
5. 다육을 심는 것이 완성되었다면 가볍게 뿌리와 흙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화분을 두세번 바닥에 가볍게 치면 분갈이 완성이다.

▲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에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낙엽을 정리하고 있다. 세덤속은 잎꽂이 쉬워 살짝 돌려 따서 심기만 하여 쉽게 번식이 가능하다.

보통 다육식물하면 에케베리아 아니면 세덤, 세덤은 다육식물 중 가장 인기 있는 종류 중 하나이다. 부천의 다육식물 판매장에는 다양한 다육들이 가을의 기온변화와 햇빛에 자태를 뽐내고 있다. 아직 9월이라 절정의 아름다움을 관상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변화할 세덤이 품은 아우라는 다육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을 눈을 유혹하기 쉽다.

**다양한 종류와 수형관리 쉬운 세덤**

"여러 다육들이 있지만 그 중 모양이 가장 다양

한 세덤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육식물이에요. 또한 번식도 빠르고 가격도 저렴해 인기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특히 다른 다육들은 생장속도에 비해 변화가 적은 반면 세덤은 색깔이 변화무쌍한 것이 특징이죠."

부천이 다육식을 전문 판매점 '햇살바람&다육' 이미경 사장은 세덤이 일반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 열거했다. 특히 세덤은 모양을 잡아 수형을 키우는 것도 쉽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세덤은 나무처럼 직립하거나 옆으로 기는 로



## Sedum 아기자기한 자태가 수십 가지

### ● 구슬엽이 (*Sedum morganianum*)



자랄수록 머리무게로 인해 줄기가 아래로 처지는 구슬엽이는 흐르는 듯한 수형으로 가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슬엽이 이외에도 옥주영, 세뽕, 모르가니눔 등으로 부른다.

직사광선 또는 밝은 그늘에 두어야 웃자람 없이 성장한다. 연한 백록색의 길고 가는 통통한 잎이 줄기를 따라 로제트형상으로 촘촘히 박혀 있는 듯 하다. 목질화 된 줄기는 강하고 튼튼해 보인다. 관리는 배수가 잘되는 토에 건조하게 관리하고 적습시에 잎이 잘 떨어지도록 조심히 다루야 한다. 월동 온도는 3°C 이상 되어야 한다.

### ● 라울 (*Sedum 'clavatum'*)



일본과 국내 일부에서 '클라바텀'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식물이 있다. 이것이 '라울'과 같은 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라울'은 분이 많고 색깔이 탁하지만, '클라바텀'으로 유통되는 식물은 분이 적고 밝은 옥색이다. 이 둘은 거의 유사해 구별하기 쉽지 않다. 라울은 매우 잘 자라는 품종으로 키우기는 어렵지 않다. 줄기가 얼룩 무늬의 목질이 보이는데 키우는 기간이 길수록 줄기가 목질

화가 뚜렷해진다. 잎은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늦은 겨울에서 이른 봄에 별 모양의 흰색의 꽃이 핀다. 햇빛이 잘 들거나 부분적인 그늘에서 잘 자라는 편이다. 춘맹, 송록과 비슷한 향이 난다.

### ● 레드베리 (*Sedum Rubrotinctum 'redberry'*)



홍옥보다 작아 미니홍옥이라고도 한다. 작은 초록 알들이 뿔뿔히 뿔뿔히 손을 대면 툭하고 잎을 떨어뜨린다. 햇빛이 적으면 초록빛을 내고, 많으면 빨간 빛으로 물드는 품종이다. 꽃색은 노랑이다. 번식은 잎, 줄기, 자구로 가능하다. 봄부터 여름동안의 생육기간 중에는 녹색이다. 가을에는 관수를 줄이고 직사광선을 쬐어주면 줄기가 굵기 시작해 단풍이 들 듯이 붉은빛으로 물든다. 다소 건조하게 키우는 것이 좋다.

### ● 롱구아폴리아 (미정)



'롱구아폴리아'라는 이름 이외에 롱기폴리아 등으로도 유통되고 있다. 여름에 맑은 초록색인 롱구아폴리아는 가을이되면 초록색이 사라지고 은은한 붉은 빛이 감돌기 시작한다. 보통 하루 4~5시간 이상 햇빛을 보게 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건조하게 키워야 한다. 햇빛이 강할수록 생육상태가 좋다고 한다. 번식은 잎꽂이, 자구 삽목 등 다양하게 번식이 가능하다. 관수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두 번 정도 흠뻑 주며 저면관수를 하는 것이 좋다. 월동 온도는 3°C 이상이다.

### ● 부사 (*Sedum treleasei*)



명월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일본명으로는 천사의 물방울이라는 의미의 천후현변경이라고 한다. 토레아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밝고 옥색인 잎은 짧고 두툼해 마치 터질 것 같다. 봄부터 가을까지 하루종일 햇살이 비치는 곳에 두면 밝은 노랑색으로 변한다. 개화는 늦은 겨울에서 봄에 달은 노랑꽃이 피어난다. 잎꽂이나 줄기를 자르는 꺾꽂이 둘다 뿌리를 잘 내린다.

### ● 소송록 (*Sedum multiceps*)



이름처럼 작은 소나무가 연상된다. 또는 미니 분재처럼 보인다. 은은한 솔향기가 나고 오랜시간 자라면 고목나무처럼 단단해진다. 작은 나무모양 기둥과 같은 줄기의 가지 끝에 짧고 가는 다육잎이 밀생하는 형태이다. 여름이 휴면기이고 봄부터 여름사이 열은 노랑색의 작은 꽃송이 아름답다. 다른 다육식물에 비해 물을 좋아하고 물이 적으면 잎이 작아진다. 이때는 물을 흠뻑 주면 다시 원상태로 활짝 핀다.

### ● 수빙 (*xSedeveria 'Soft Rime'*)



국내에서 수빙으로 많이 알고 있는 소프트 라임은 Sedum과 Pachyphylum 등 속간 교배로 이뤄진 것이다. Sedum 속은 아니지만 세덤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기에 소개한다. 구슬엽이와 비슷하지만 물이 잘 들며 소프트라임 이름처럼 나무에 내린 서리라는 의미로 수빙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 잎끝이 붉게 물들며 맑은 초록색깔을 띠며 아름답다. 줄기는 목질화로 성장하고 줄기 끝에 촘촘히 알들이 형성되어 키가 높은 화분에 늘어지도록 수형을 관리하면 좋다. 수빙은 여름철에 잎색이 많이 빠지면서 성장을 하므로 약간 건조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물을 흠뻑 주는 전면관수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 ● 조이스톨러크 (*Sedum 'Joyce Tulloch'*)

작고 연한 잎들이 겨울에 붉은색으로 물드는 조이스톨러크는 둥그스름한 잎장이 달린 형태이다. 적색의 줄기는 길게 늘어뜨린다. 꽃은 보통 4월부터 개화하기 시작하며, 하얀색 꽃이 피는데 꽃대가 어수선했다 보인다. 춘분기 밝은 곳에 햇빛을 쬐어주게 하고 물은 건조한 듯 한달에 두 번 기량 흡



백 전면관수한다. 줄기가 얇아 수형을 잡기는 쉬우나 웃자람이 심하니 주의해야 한다.

### ● 청솔 (*Sedum corynephyllum*)



겨울이 되면 잎 끝부분부터 노랑색으로 물드는 품종으로 청솔 이외에 금송, 팔전대, 녹후엽변경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 겨울 실내에 두면 청솔이라는 이름처럼 푸른 소나무를 닮았고, 꽃꽂이 자태로 자라는 특징이 있다. 잎장이 길쭉하고 특이해 작은 바나나나무를 연상케 한다. 탕크 탕크한 질감이 전해지는 두툼한 잎이 매력적이다. 청솔은 5°C 이상에서 월동이 가능한 청솔은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분홍색 꽃이 핀다. 태양 빛을 많이 받으면 초록잎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잎 끝에 붉은 점이 생겨 매력적이다. 주로 길게 자라는 줄기를 적당한 길이로 전지해 꺾꽂이 해주지만 잎꽂이도 가능하다.

### ● 춘맹 (*Sedum 'Alice Evans'*)

봄의 새싹이라는 의미의 춘맹(春萌)은 이름대로



바라보면 봄의 색깔이 물씬 풍겨난다. 특히 콩을 볶은 향긋한 냄새가 난다. 가늘하지만 기다란 잎은 로제트 형상으로 러너(Runner)로 성장한다. 특히 춘맹은 Sedum lucidum(송록)과 sedum clavatum(라울)과의 속간 교배종으로 초록색이 강하지만 노랑색으로 물들면서 잎 끝에만 붉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봄부터 여름까지 흰색의 별 모양의 꽃을 핀다. 성장이 다소 더딘 편이다.

### ● 환엽송록 (*Sedum lucidum 'Obesum Cristata'*)

둥근잎송록, 마쓰노미도리, 마루하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세덤 속이다. 잎이 통통하고 둥글둥글하면서 광택이 있다. 햇빛을 받으면 잎 끝부분이 붉은 갈색으로 변한다. 자라면서 이름처럼 소나무 향기가 나는 환엽송록은 식물체 지름이 3cm이며 송록보다는 잎이 둥글고, 적갈색으로 양갈라져 물드는 것이 특징이다.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줄기 끝에 꽃대가 나와 별 모양의 흰색 꽃이 무리지어 핀다. 더위에 많이 약하지만 여름철에는 물을 매우 적게 주어야 한다. in



선선한 바람이 부는 시월은

# 추파일년초 꽃씨 심는 달

글·사진 오하나(파워블로거, 허브향 가득한 퀘럼에 화단 <http://blog.naver/e1512>)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만 해도 과연 가을이 올지 의문이었다. 그럼에도 시나브로 시간은 흘러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다. 가을은 식물을 키우기가 적당한 계절이다. 한여름이 더위와 병충해로 시달려야 했다던 가을은 서서히 병충해에서 해방되어 다시금 생명이 움트는 시기이다. 기왕 식물을 키울 것이라면 아무 씨앗이나 무조금 심기 보다는 가을에 파종하는 추파일년초 씨앗을 심어보자.

## 봄과 가을이 새싹 올라오는데 가장 적당한 계절이다

보통 씨앗을 처음 심는 사람은 씨앗의 심는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심고는 한다.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온도가 있듯이 씨앗 또한 새싹이 올라오는데 적당한 시기가 있다. 사람도 힘들어 하는 한 여름에는 씨앗 또한 온도가 높아 새싹이 나오기를 꺼리고, 몸이 덜덜 떨리는 한 겨울에는 온도가 너무 낮아서 꺼린다. 따라서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봄과 가을이 새싹이 올라오기 가장 적당한 계절이다.

## 가을과 봄 중 어느 계절이 더 씨앗을 심기에 적합할까

화초의 특성에 달려 있다. 고온에 약한 화초인 미나팬지, 포피 등의 화초의 경우에는 되도록 가을에 씨앗을 심는 것이 정답이다. 만일 초봄에 씨앗을 심을 경우, 한창 성장할 때 여름의 고온을 만나게 되면 시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을에 심기 좋은 추파일년초의 씨앗을 모두 가을에만 심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금잔화, 수레국

화 등의 화초의 경우에는 2~3월쯤에 파종하면 5~6월에 꽃을 감상할 수 있고, 더욱 화려한 꽃을 감상하고 싶다면 9월~10월쯤에 씨앗을 심으면 된다.

## 왜 10월이 가을 씨앗을 심는 적기라 하는 것일까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식물들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잎을 떨구어 잎의 수를 줄이고 심지어 뿌리만 남아서 월동을 하는 식물도 생긴다. 한마디로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많이 자란 상태보다는 최대한 낮은 상태로 겨울을 보낸다는 것이다. 가을에 파종하는 화초의 경우, 너무 씨앗을 빨리 심으면 너무 많이 자란 상태에서 겨울을 맞게 되어 얼어 죽을 수 있다. 또 너무 늦게 심으면 어린 새싹일 때 겨울을 맞게 되어 동사(凍死)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노지에 심을 예정이라면 9월 중순에서 10월쯤에 심는 것이 적당하다.

## 따뜻한 베란다나 온실에서 파종할 경우에는 예외이다

우리나라 노지에서 월동을 하기 힘든 추파일년초의 경우, 온실에서 파종하는 편이다. 온실이나 베란다는 추운 날씨 때문에 새싹이 얼어 죽을 염려가 없어 초가을이든 겨울이든 무난하게 씨앗을 심을 수 있다. 또 추파일년초는 일반 화초나 허브 씨앗에 비해 비교적 저온에서도 발아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 이때 랩이나 투명 비닐 등으로 씨앗을 심은 흙 위를 덮어 주면 온도를 올려주는데 도움이 되어 새싹이 올라오는데 유리하다.

## 수레국화 파종하기



1. 수레국화 씨앗을 심기 위해 모종 트레이에 파종용 상토를 채운다. 수레국화는 발아가 잘 되는 편이어서 직접 화단에 씨앗을 심어도 새싹이 잘 올라오는 편이다.
2. 상토에 손가락이나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어서 수레국화 씨앗을 심고 흙을 덮어준다. 흙이 마르지 않게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며 새싹이 올라오길 기다린다.
3. 수레국화 새싹이 어느 정도 자라자 임시로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심는다. 베란다에서는 새싹이 웃자라기 쉬운데 그럴 경우 흙으로 복토를 하여 주면 좋다.
4. 풍성하게 잘 자란 수레국화를 더 큰 화분에 옮겨 심어준다.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심는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큰 화분에 옮겨 심어도 된다.
5. 5월이 되어 온도가 올라가자 수레국화의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초봄에 심으면 2~3달이면 꽃대가 올라오고, 가을에 심으면 조금 더 걸리는 편이다.
6. 화사하게 핀 수레국화의 꽃이다. 가을에 씨앗을 심으면 꽃이 더 화려하게 피게 된다.

## 오하나가 추천하는 가을파종꽃 Best 4

### 금잔화 (Calendula officinalis)

속명인 Calendula는 달의 초하루를 calendae라고 로마인들이 부른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꽃이 1개월 동안 피는 것으로 한 달을 추정했다고 한다. 또 금잔화 꽃이 지면 그날은 비가 올 것이라고 점치기도 했다. 추위에 강한 추파일년초이지만 여름 고온까지 꽃을 볼 수는 없다.

### 꽃양귀비 (Papaver spp.)

양귀비 하면 아편의 원료라 생각하지만 화훼용 양귀비는 식물원이나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다년생 및 일년생도 있지만 대부분 이년생이다. 꽃색은 적색과 더불어 흰색, 노랑색, 주황색 등 다양하다. 햇빛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좋은 곳에서 생육이 좋다.

### 팬지 (Viola tricolor)

지자체에서 도로의 화단이나 길가에 가장 잘 식재하는 꽃중에 하나이다. 초가을에 씨앗을 뿌리는 추파일년초로 일년생화종 중 가장 추위에 강하다. 영하 5°C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적당한 생육 온도는 10~20°C이지만 30°C가 넘으면 웃자라서 볼품이 없다.

### 페튜니아 (Petunia spp.)

화단용 일년초로 여름을 알리는 대표적 꽃중에 하나다. 하지만 개화기를 조절할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다. 봄에 개화를 보려면 전년도 초가을에, 여름에 개화를 보려면 이른 봄에 파종하면 된다. 페튜니아는 장일식물로 저온단일에서는 마디가 짧아지고 개화가 지연, 고온 상일에서는 마디가 길어지고 개화가 빨라진다. in



### 작년에 활짝 핀 수레국화

작년 초봄쯤 블로그 이웃님께 나눔 받아 씨앗부터 키운 수레국화 꽃. 다양한 컬러의 수레국화 씨앗이 섞여 있더니 분홍색, 보라색 등 화려한 꽃으로 활짝 피었다. 초봄에 씨앗을 심어 5월말쯤에 꽃을 피웠다. 가을에 씨앗을 심었다면 찬바람 맞으며 더욱 화려한 수레국화 꽃을 피웠을 것 같다.

### 가을에는 국화 화분을~

종로 꽃시장에서 너무 예뻐서 구입한 국화 화분. 가을을 대표하는 꽃답게 제철을 만나 여기저기에서 국화화분이 눈에 띈다. 구입한 국화를 하얀색 함석통에 옮겨 심었더니 베란다가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우리집 정원으로

## 야생 동물·곤충 끌어들이기



딱정벌레

## 정원의 친구, 곤충

모든 동물과 곤충들은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서로 먹고 먹히는 의존관계에 있다. 정원에 야생 생물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 이들은 적이 아니라 정원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식물은 야생 생물을 위한 서식처, 음식, 물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빈약한 건분품 같은 정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정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열매가 맺히는 덩굴, 은신처 제공

인동덩굴이나 클레마티스 같은 덩굴성 식물은 양

도시발달로 아파트, 빌딩 등의 건물들이 농사를 짓던 시골까지 점차 잠식해가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야생 생물들이 우리의 뒷마당에서 서식처를 찾고 있다. 공해가 심한 도심지에서 살아가는 나비들에게 윈도우 박스와 같은 작은 정원은 음식과 휴식을 취하는 오아시스와 같다. 야생생물과의 협력은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 공급원일 뿐 아니라 작은 새들의 보금자리이자, 곤충들이 겨울을 나는 은신처가 되어준다. 또 상위 포식자들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주며, 새와 곤충들이 좋아하는 식물을 심어 꽃과 열매를 공급해준다. 가을에 떨어진 낙엽더미는 겨울철 곤충과 딱정벌레의 귀중한 은신처가 된다. 컨테이너에 심은 생울타리용 블루베리, 산사나무, 가막살나무 같은 식물들은 음식과 서식처의 중요한 공급원이 된다. 열매가 맺히는 생울타리는 새들이 열매를 다 먹을 때까지 전정하지 말고 기다려준다.

여름철은 새들이 동지를 틀고 있는 시기이므로 전정을 하지 않는다. 특히 겨울밤 덩굴에 작은 새들이 숨기 좋도록 너무 짧게 전정하지 않는다. 옆

Tip

## 진딧물 경보, 무당벌레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는 정원에서 발생하는 진딧물을 효과적으로 없애줄 수 있다. 또한 무당벌레는 나비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자료: 화분 안에 담긴 정원(도시출판J&P) 중에서

에는 미국담쟁이덩굴, 인동덩굴, 농소화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려준다. 또 가시가 있는 관목을 심어주어 새들이 육식동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해준다.

## 새를 끌어들이다

곤충을 유인하는 꿀이 많은 식물과 꽃들은 새들 두 유인하게 되는데, 꽃이 진 후 열매가 저절로 땅에 떨어지고 나서도 꽃대를 그대로 둔다. 겨울에 그곳에서 거미들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제거해준다. 엘더베리, 섬개아광나무 같은 베리류 관목이 있으면 개동지뼉귀, 찌르레기 같은 새들이 찾아온다.



개동지뼉귀



찌르레기

## 야생 생물이 좋아하는 식물리스트

##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

나비들은 꽃에 꿀이 많고 일찍 꽃이 피는 식물을 좋아한다. 매리골드는 눈길을 사로잡는 형태와 색상으로 나비들을 끌어들이기에 좋은 식물이다.



## 벌이 좋아하는 꽃

배초향, 꽃지치, 프렌치 매리골드, 라벤더, 마조람, 갯개미취 등



## 새들이 좋아하는 식물

노란데이지, 코스모스, 엘더베리, 예기늘스, 등골나무, 예기나세아, 해바라기, 가막살나무속 식물



## 어스름녘의 즐거움

달맞이꽃이나 꽃담배 같이 저녁에 향을 풍기는 식물을 심어 어둠 속에 반짝이는 별처럼 꽃들이 반짝여 나방을 끌어들이다.



##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충은 야생 생물의 중요한 먹이가 되므로, 해충을 제어하기 위해 정원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식물을 혼합하여 식재하면 해충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다. 혼합식재를 하여 얻는 미적인 효과와 함께 야생 생물을 위협하지 않고 해충과 병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함께 심으면 유용한 식물들이다.

- 매리골드와 토마토, 마늘과 장미, 두가지 혼합식재는 진딧물을 방제하는데 효과적이다.
- 한련화와 양배추를 함께 심으면 애벌레들이 한련화를 더 좋아하므로 애벌레에 의한 양배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당근과 파 또는 양파를 함께 심으면 파와 양파에서 풍기는 강한 향에 의해 당근 파리를 방제할 수 있다.

Tip

## 야생 생물을 만날 수 있는 간단한 팁

-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심으면 야생생물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
- 월동라워 아로우, 세툼은 겨울철 긴 기간 동안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식물이다.
- 향기가 있는 꽃들은 정원에서 사람들에게 후각적 즐거움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나비와 나방을 끌어들이기 쉽다.
- 일반적으로 검꽃보다는 홑꽃에 꿀이 더 많다.
- 정원에 딱정벌레, 나비 등이 좋아하는 배기품을 심어 다양성을 확보한다.
- 집초를 밟을 때에도 심어놓은 식물들 사이에서 야생화가 자라는 것을 허락하도록 한다.



## 정원과 건(犬)은 상극?

## 개를 키우는 가드너를 위한 조언 I

글·사진 정승환 기자

정원을 가꾸는 사람에게 '개를 키울 수 있느냐'에 대해 물어보면 쉽게 답을 못한다. 인간처럼 이성을 가진 개가 아닌 이상 정원을 갖고 있는 가드너 입장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 정원과 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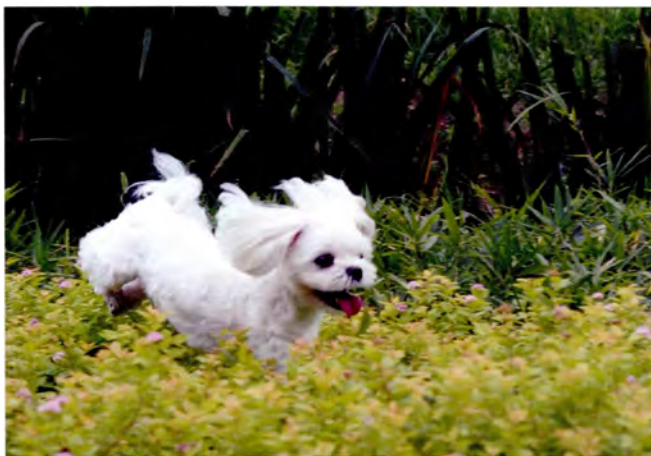
가드너들이 정원을 관리하다 혼자서 벅할 때 누구의 도움이라도 있다면 고마울 일이다. 본인이 키우는 애완견에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개들은 주인의 말보다는 본능에 따른다는 점. 특히 구멍을 파는 습성은 정원을 가꾸는 가드너에게 골치 아픈 일이다. 정원과 친화적인 개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있다. 개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방법은 아이가 입에 무엇인가를 넣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 쉬울 수 도 있다. 당신의 애완견을 교육시키는 것이 정원으로부터 개를, 개로부터 정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 개와 정원, 분리할 것을 고려

정원을 위해서라면 정원과 개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즉, 구분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권한다. 정원과 구분할 때 개가 있는 곳은 그늘진 곳을 선택하면 더욱 좋다. 울타리의 재료로는 나무, 철, 벽돌 등으로 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성과 개의 호기심에 덜 눈에 띄게 할 수 있다. 눈에서 안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울타리와 정원 간격을 어느 정도 두어 개의 가시거리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 좋다. 개가 정원에 관심을 갖는 순간 막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애완견의 배설물은 잔디에게는 독약

개가 당신의 정원, 특히 잔디에 소변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변은 흙의 pH를 낮춰 산성으로 만들고, 염분기가 남아 있어 잔디에게 악영향을



▲ 무작정 뛰는 애완견들을 마냥 귀여워 해야 할까. 애완견의 주인이 아닌 정원의 가드너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다.

준다. 또 오줌에는 질소성분이 들어있어 잔디의 질소과잉증상을 유발한다. 이에 보이는 즉시 물로 희석시키는 것이 좋다. 희석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석회를 뿌려 pH를 중화시켜야 한다. 또 오줌의 해에 저항을 갖고 있는 클로버를 심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잔디 이외에 텃밭을 가진 텃밭 가드너라면 배변물을 농사에 이용하는 것도 좋다. 전통농업은 축분



▲ 정원을 망치는 개가 있는 장소와 정원의 구분이 필요 하다.

과 오줌으로 밭을 일구어 왔다. 또 배변물에는 토양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서 숙성시켜 퇴비를 만들어 보기를 권한다. 이번에 친환경 농법을 실천해 보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 개의 성별에 따른 잔디해



암컷은 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오줌을 누는 경향이 있다. 수컷은 영역 확장 본능으로 한 장소가 아닌 여러 곳에 소변을 본다. 이것은 여러 잔디를 손상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개들이 씹지 않는 소재를 사용

어떤 개들은 무엇인가를 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얇은 나무에 이빨을 갈고 싶어 하는 것은 동물의 본능이다. 그래서 채소나 나무의 모종으로 사용되는 지주대는 얇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작은 식물을 키울 때는 지주대를 얇은 천으로 덮어 개로부터 손상이 잘 안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또 유인선 등은 고무 소재를 사용해 덜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채소나 관상용 나무들로 가든을 만든다면 바닥의 배드를 목재나 벽돌 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개가 땅을 파는 흥미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개의 접근을 막기 위해 텃밭 또는 정원의 식물 주위에 와이어 등을 둘러 개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정원을 망치는 개가 있는 장소와 정원의 구분이 필요 하다.

## 개들을 위한 인위적 통로 만들기

개들의 습성은 이동 방향성이 일정치 않다는 점. 이런 애완견들을 위해 지나다닐만한 통로를 만들어 준다. 이왕이면 관상용 나무류로 울타리를 사용해 자연스러운 길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

개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소나무 잎 등을 놔두면 개들이 좋아한다. 개들은 이동 통로가 불편하면 금세 다른 통로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늘진 곳에 개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함께 모래더미를 추가하면 대부분의 개들은 굉장히 좋아한다.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으로부터 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이야기 해 보겠다. in

## 애견을 위한 추천 Plants

개가 식물의 주위를 빠르게 걷거나 냄새를 맡는 등의 행동은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잠재적 피해로부터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리적 환경에 강한 식물을 심는 것이 좋다.

## ● 개 키우는 정원에 심기 좋은 식물

모란, 플록스, 버베나, 루드베기아, 사스타데이지, 맥문동, 셀비어, 맥시코 양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채진목(준베리), 산국수, 고광나무, 총총나무, 라일락, 소나무, 붓들레야 등도 개 키우는 정원에 키우면 좋은 식물이다. 관목류로는 에스칼로니아(범의귀과), 월계수, 마취목, 블루베리, 가막살나무 등이 있다.



▲ 맥문동



▲ 버베나



▲ 모란



▲ 셀비어

## ● 개들이 주의해야 할 독성 식물

디기탈리스, 은방울꽃, 헬레보레, 매발톱꽃, 델피늄 등과 같은 미나리아재비과 식물들은 개를 키우는 가드너라면 심기 전에 고려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매자나무와 호랑가시나무 등과 같은 가시덩굴류는 줄기에 있는 가시 때문에 일시적으로 개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의 눈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심는 것을 자제한다.



▶ 델피늄



▲ 디기탈리스



## 식물의 온도

## 생명의 조건인가, 해를 입히는 도구인가

글 정승환 기자



▲ 화훼를 재배하는 온실, 식물마다 생육에 맞는 온도를 맞춰야 최고의 상품을 재배할 수 있다.

봄이 되면 개화하는 식물도 있겠지만 가을의 온도는 여러 꽃들을 피게 한다.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겪어야 발아하는 식물들, 이것은 종자 휴면타파의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중 온도가 식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 온도와 식물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식물에게 있어서 온도의 기능은 체내의 모든 대사를 관할하는 효소물질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활성도의 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온도가 중요한 셈이다. 매일 이야기하는 식물의 적온도라는 것은 식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말한다. 또 임계온도는 식물의 잘 자랄 수 있는 최저와 최고의 온도 범위를 말한다.

씨앗수준에서 뿌리가 나오는 '발아'가 되기 위해서도 식물마다 최적의 온도가 있다. 시네라리아, 금어초, 델피니움 등과 같은 경우는 10℃의 낮은 온도에서 발아가 잘된다. 반면 아스파라거스, 콜레우스 등은 30℃의 높은 온도에서 발아한다. 이런 발아들은 발아온도가 항상 일정할 때보다 온도가 변화할 때 발아가 잘된다. 온도가 변하는 '변온'이 종자 내 발아역제라는 자물쇠의 열쇠 역할을

을 한다. 그래서 빨리 발아가 되도록 인위적으로 변온을 주기도 한다.

### Tip 기온에 의한 식물 장애 용어

**열해** 식물의 생육 최고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생리작용에 장애를 보이며 고사하는 현상  
**냉해** 식물의 적온보다 낮은 범위의 저온에서 식물이 피해 받는 현상  
**한해** 겨울철 저온에 의해 작물 조직내의 결빙이 일어나 식물이 받는 피해  
**동해** 늦가을 영하온도에서 작물이나 식물이 전부 얼어버리는 현상

### 고온 속 식물은 호흡 과다

온도의 효과는 학교에서 배운 광합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일반적인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온도는 0~40℃로 범위가 넓다. 반면 온대지방 식물들은 약 15~25℃에서 높은 광합성량을 보인다. 또 고산지대 수목은 훨씬 낮은 온도에서 최대 광합성량을 보인다. 얼마나 신기한가. 자신에게 맞는

온도 범위가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문제가 생긴다. 식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이상고온현상은 최대의 적이다. 이런 고온으로 인해 식물은 피해를 입는데 체내수분함량이 높은 조직은 50~60℃에서 피해를 입는다. 주전자 속에 물이 데워지는 현상이라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수분이 거의 없는 종자는 섭씨 100℃ 이상에서 견딜 수 있다. 채소 종자를 소독할 때 약 72℃의 열로 처리하는 건열처리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이 종자가 견딜 수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종자는 견디고, 유해미생물만 죽게 된다.

하지만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종자에서 발아한 식물의 세포막은 망가지고, 성질이 변해 막 자체의 활성이 바뀌게 된다. 특히 온도 증가는 호흡의 과다로 이어져 에너지 소모가 증가하고 수분을 과다하게 배출해 탈수 상태에 빠진다.

### 겨울, 준비되지 않은 식물에게는 냉해 피해

반대로 저온에 견디는 식물들의 능력은 생육 환경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열대나 아열대지역의 식물들은 온도가 15℃정도 되어도 생육 장애가 발생한다. 내한성 기작을 갖춘 온대나 한대지역의 수목들은 급격한 저온변화가 아닌 이상 영하 20℃이하에서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식물

이 충분히 내한성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식물 조직은 냉해, 동해를 입게 된다. 마늘을 심어놓고 일찍 한파가 찾아오면 구가 비대하기 전에 저온 피해를 받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것은 식물체내의 수분이 원인이다. 식물체 내 수분의 어는점이 높아 세포보다 먼저 어는 것이다.

### 개화를 위한 온도조절 유전자 존재

온도에 따라 광합성과 호흡 등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효소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 개화를 하기 위한 온도를 어떻게 결정할까? 이것은 최근에 그 해답이 나왔다.

지난 9월 고려대학교에서 식물과 기온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발견해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되었다. 기존에는 식물이 온도에 의해 변화를 갖는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온도변화를 통해 개화시기를 조절하는 기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런 식물의 기온변화를 대응하는 유전자가 그

열쇠다. 즉, 기온이 20℃이하로 내려가면 유전자(FLM)가 대기온도변화에 감지하는 단백질과 결합해 개화를 앞당기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꽃피는 시기를 늦추게 된다.

이 기작을 알아냄으로써 유전자와 단백질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봄철의 급격한 온도변화와 이상고온에서 식물의 생산성 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온도가 식물 생육에 가장 적합한지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이제 전문 가드너의 열반에 오른 셈이다.

### 주요 화훼 최적온도

▲ 아질레아  
주간 17~27℃, 야간 13~18℃▲ 칼란코에  
주간 21℃, 야간 16℃▲ 백일홍  
주간 16~23℃, 야간 13~18℃▲ 페튜니아  
주간 15~21℃, 야간 10~16℃▲ 팬지  
주간 8~13℃, 야간 5~10℃

###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식물이 있다



▲ 필로덴드로넬 셀로움(Philodendron)



▲ 앓은부채(Symplocarpus foetidus)



▲ 연꽃(Nelumbo nucifera)

외부의 온도변화에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식물이 있다. 마치 인간의 체온처럼 말이다. 인간의 온도 체계는 상당히 복잡하다. 외부 기온이 내려가면 신체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온도를 유지하려 한다. 신경계에서 온도를 판단해 교감신경을 통해 피부 땀샘을 통한 수분 증발을 막고, 몸의 털을 곤두세운다. 또 순환계에서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속도를 높인다. 반면 보온할 유익도 없는 식물은 어떻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필로덴드로넬 셀로움이라는 식물은 기온이 4℃일때 꽃의 온도가 39℃, 기온이 39℃일때는 46℃이라

는 점이다. 기온과 꽃의 온도 차이가 각각 34℃, 7℃인 것이다. 과학자들은 필로덴드로넬 셀로움의 온도가 높은 지점을 연구한 결과, 벌 등의 곤충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곳에서 열 발생율이 높다는 것을 알아냈다. 즉 이곳에 온도조절센서가 있다는 뜻이다.

앓은부채와 같은 천남성 식물들도 영하의 온도에서 15~22℃의 온도를 유지한다. 낮에 활동하는 곤충들은 햇빛으로 인해 체온을 유지하지만, 야행성 곤충들은 이런 어려움을 앓은부채와 같은 식물들에 의존한다. 보통 딱정벌레들이 밤에 이런

종류의 식물들에 붙어있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이런 곤충류들로 앓은부채가 수정을 통한 번식을 이어나가는 생존능력의 진화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잘 아는 연꽃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식물들로 알려져 있다. 연꽃은 외부 기온이 10℃이하로 떨어져도 32℃를 유지한다고 한다. 하지만 연꽃은 곤충에 의해 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 연꽃류들은 수분이 필요한 시기 이전에 따뜻한 물에 식어버린다.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꽃이 정상적으로 자라나도록 돕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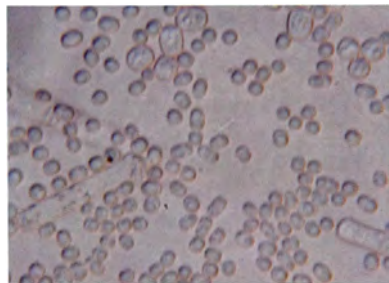
찬바람이 불어도 기죽지 않는

## 잣빛곰팡이병



글 · 사진  
차병진  
충북대학교 식물학과 교수

달력이 한 장 넘어가고 비 몇 번 내리더니 계절이 확실히 바뀌었다. 아침 저녁로는 긴 소매 옷이 더 편안할 정도로 바람도 선선해졌다. 이렇게 더위가 물러가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식물병원균들을 그렁지도 않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는 말은 메뚜기나 뜨내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식물병도 한 철'이다. 그렇게도 기세등등하게 식물을 괴롭히던 병원균들도 기온이 낮아지면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찬바람이 불고 낙엽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병원균들이 겨울잠에 들어간다. 배는 고프데 먹이는 없고 날은 추우니 잠자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다른 식물병원균들과는 달리 날이 추워도 기죽지 않고 곳곳이 잘 버티는 병원균이 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오히려 한여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그의 이름은 바로 잣빛곰팡이병균(*Botrytis cinerea*)이다.

일반적으로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들이 가장 잘사는 온도는 25℃ 이상인데 비해, 잣빛곰팡이병균은 그보다 더 낮은 온도를 좋아한다. 잣빛곰팡이병균은 영하 2℃부터 영상 35℃까지 매우 넓은 온도 범위에서 모두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23℃ 정도이다. 따라서 기온이 20~25℃ 정도이며 습도가 높을 때는 20 시간 안에 감염이 이루어지지만, 기온이 이보다 높든지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감염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잣빛곰팡이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Botrytis*는 자연계에 매우 흔한 곰팡이로서 식물이 자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존재한다. 이들은 환경만 적당하다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양한 물질을 영양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온실 안에서도 쉽게 생존하며 많은 종류의 식물을 공격한다. 하지만, 잣빛곰팡이병균은 보기와는 달리 겁이 많고 소심하여, 건전한 녹색조직에는 침입하지 않으며, 죽거나 늙은 조직, 그리고 상처가 있는 조직들에만 침입하여 병을 일으킨다. 늙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조직이라면 잎, 눈, 꽃, 가지 할 것 없이 식물체의 모든 부분을 공격하여 병을 일으키므로 어떤 면에서는 '식물병원균계의 하이에나'라고 불려도 될 듯하다.

이들이 감염하는 식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토마토와 상추 등 채소류로부터 커다란 나무까지 거의 모든 식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정에서 키우는 식물들도 예외 없이 모두 이 병에 잘 걸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약한 것들은 아프리카 바이올렛, 아마릴리스, 베고니아, 칼라디움, 제라늄, 칼라릴리, 시네라리아, 콜레우스, 다알리아, 드라세나 등이며, 철쭉, 동백, 장미, 국화 등에도 잘 나타난다.

잣빛곰팡이병은 감염된 식물의 종류와 감염된 부위, 그리고 생육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감염된 조직의 부분적인 갈변으로부터 시작한다. 습도가 높을 때는 감염된 부분의 표면에 잣빛의 솜털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며, 살짝만 건드려도 먼지 같은 것이 날리기도 한다.

특히 꽃에서는 꽃잎의 부분적인 갈변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노화나 총채벌레의 피해와 혼동되기도 하므로 진단에 주의해야 한다. 노화에 의한 꽃잎의 갈변은 바깥쪽 꽃잎부터 시작되며 꽃잎의 끝 또는 가장자리부터 진전되어 들어온다. 그러므로 가운데 또는 중간의 꽃잎들에서부터 증상이 나온다면 *Botrytis*에 의한 잣빛곰팡이병일 가능성이 높다.

잣빛곰팡이병균은 처음에는 식물체 표면에 하얗게 자라기 시작하지만 바로 색이 짙어지면서 회색으로 변한다. 여기에 잣빛의 먼지 같은 포자들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며, 이것들이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널리 흩날린다.

온실에서는 정적관수와 같이 공기의 미세한 움직임만 있어도 포자들이 흩날린다. 때로는 감염된 식물조직의 표면 또는 내부에 균핵이라 불리는 흑갈색 내지 흑색의 작은 알갱이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상태로 묵묵히 때를 기다린다.

*Botrytis*는 식물을 감염하기 이전에 이미 영양원이나 어떤 먹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늙은 꽃잎이나 죽은 조직, 기주식물의 상처 난 부분에서 스며 나온 영양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먹이를 바탕으로 병원균은 더 강한 공격력을 갖출 수 있으며, 스트레스 받은 조직을 감염한 이후, 그것을 교두보 삼아 건전한 조직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해 간다. 감염된 조직에는 열은 갈색 내지 진한 갈색의 잣빛무늬가 나타난다. 습도가 높을 때는 병이 훨씬 더 심해진다.

이 병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청결과 환경개선이다. 식물체 또는 토양 표면의 죽은 조직이나 죽어가고 있는 조직은 반드시 제거한다. 또한, 식물체가 상처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온실을 가온하거나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 내부의 습도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공기 중의 수분이 응축되어 습도가 높아지는 새벽에는 환기가 필수다. 원활한 통풍은 *Botrytis*의 활동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다.

## 잣빛곰팡이병 방제

추가적인 방제수단으로는 살균제나 생물적 방제제 사용이 있다. 하지만, 일부 *Botrytis* 집단은 특정 살균제에 대하여 저항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특정 살균제 또는 작용기작이 비슷한 살균제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벤지미다졸 계열의 살균제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흔히 나타나고 있어, 이 살균제들은 더 이상 잣빛곰팡이병을 방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 이상의 *Botrytis*들이 디카르복시미다졸 계열의 살균제들에 대해서도 저항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 살균제도 피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침투성살균제'들은 연용하였을 경우 저항성이 쉽게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다른 곰팡이나 세균을 이용하여 잣빛곰팡이병균을 억제하는 방제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생물적 방제제들은 환경에도 친화적이고 사람과 동물에도 해가 없으므로 가정에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물적 방제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미생물들은 *Streptomyces lydicus*, *Streptomyces griseoviridis*, *Trichoderma harzianum* 등이다. in





## 와인 병으로 미니 온실 만들기 BOTTLE GARDEN

글·사진 우정아 가든디자이너

와인 병을 이용해 미니 온실인 보틀(bottle) 가든을 만들어 보자. 잎이 어린 식물들은 쉽게 말라 죽는 경우가 많아 키우기가 까다로웠는데, 이런 식물도 보틀 가든 안에서의 수분 순환 작용으로 쉽게 키울 수 있다. 식물이 하는 증산 작용이 수분 순환으로 이어져 병 안에 공중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 관리법

배수 구멍이 없는 디자인으로 배수층(맥반석, 마사토) 보다 많은 관수는 뿌리가 썩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수분 순환 작용으로 병 속에 수분 증발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시야로 보이는 배수층에 완전히 물이 마르면 관수 한다. 관수는 스프레이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비료는 식물의 생장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료만을 공급한다.

### 재료



▲ 아디안텀



▲ 피토니아



▲ 히포에스테스



▲ 트리안



▲ 와인병



▲ 맥반석



▲ 배양토



▲ 마사토



▲ 미니 포크와 나무 젓가락



## Step by Step



1 병을 물로 깨끗이 닦고 말린 후 맥반석으로 배수층을 만든다.



2 종이를 말아 나팔 모양으로 만들고 마사토를 넣는다.



3 배양토를 넣는다.



4 포크와 나무 젓가락을 연결한 것을 이용해서 아디안텀을 병 속에 넣고 포크를 이용해 흙에 심어 준다.



5 피토니아를 아디안텀 옆으로 넣고 뿌리를 흙으로 덮는다.



6 히포에스테스를 아디안텀과 피토니아 옆으로 넣고 뿌리를 흙으로 덮는다.



7 나무 젓가락으로 모양을 잡아 주고 스프레이를 이용해 병 안쪽과 식물에 묻은 이물질들을 씻어낸다.



## 화초도 동물처럼

# 동면하면 크고 예뻐진다

글 소순복 기자 사진 및 자료 협조 가든조아(www.gardenjoa.com)

꽃만큼이나 꽃의 씨앗 모양도 가지가지이다. 꽃을 보는 것만 좋아하고 가꾸는 것에 무관심했던 이들이 상상하는 꽃씨 모양은 단순하다. ‘꽃씨는 조그맣고 둥그랴다.’ 그게 전부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꽃씨의 모양과 종류는 다양하다. 구근은 특히 그렇다. 언뜻 보기에는 마른 양파 같고, 씨앗이라기보다는 열매 같다. 그런데 그 튼실한 씨가 다가오는 봄, 상춘객들의 마음을 뒤흔들 바로 그 주인공. 튤립이나 수선화, 백합의 종자이다.



### 구근식물 키우기 어렵다? 쉽!

역시 놀란다.

10월은 구근을 심어야 하는 계절이다. 물론 봄에 모종을 사다 심으면 금방 개화된 꽃을 볼 수 있지만, 전문 가드너들에게는 심어야 제 맛인가 보다.

구근을 심는 고수들이 생각보다 많다. 역시 가드너들은 부지런하다. 물론 구근은 동면을 해야 이듬해 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지만, 가드너들에게는 특히 봄을 준비해야 하는 계절로 더 의미가 있다. 여하튼 공이나 뱀만 동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근도 동면이 필요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말한다. 구근은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고,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크게 손이 가지 않아. 초보자도 도전해 볼만한 식물이라고 추천한다. 물과 햇빛 공급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구근 자체에 많은 양분을 저장해 둘 수 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휴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꽃이 진 후 구근을 땅 속에 그대로 두면, 여름 장마철에 구근이 썩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때문에 이를 캐서 보관해 놓았다가 다시 심는데, 수선화나 무스카리 등은 그냥 심은 채로 놔두어

도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구근식물은 땅에 심으면 바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심어야만 성장하고 꽃이 핀다. 그렇다고 모두 가을에 구근을 심는 것도 아니다. 구근식물은 춘식구근과 추식구근으로 나누는데, 한자 풀이대로 봄에 심는 다 해서 춘식(春植), 가을에 심는 다 해서 추식(秋植)으로 구분한다.

다시 말해 춘식구근은 봄에 심어서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고, 추식구근은 가을에 구근을 심어 이듬해 봄에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다.

다. 대표적 춘식구근으로는 다알리아, 글라디올러스, 칸나, 칼라, 아말릴리스 등이 있고, 추식구근은 아네모네, 칼라디움, 프리지어, 히아신스, 백합, 튤립, 수선화, 무스카리, 크로커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 구근 크기의 2~3배 깊이로 심는다

구근을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가 잘되는 토양과 해가 잘 드는 장소이다. 토양이 무겁고 젖어 있다면 굵은 모래, 유기물 등으로 토양을 개선한 뒤 식재한다.

구근을 심으려면 구근을 심는 깊이와 서로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심어야 한다. 보통 구근 크기의

2~3배 정도 깊게 심어야 하는데, 모래지역 또는 서리가 잘 내리는 지역에는 구근 크기의 4~5배 깊이로 심는 것이 좋다.

구근의 크기가 제각각인 만큼 심는 깊이도 다소 차이가 있다. 각기 다른 개화기를 가진 종들을 한 곳에 심으면 이듬해 봄 관상시기를 늘릴 수 있어 좋다.

때문에 한 화분에 수선화, 튤립, 무스카리 등을 혼합해 심는다. 구의 크기가 가장 큰 수선화를 가장 깊은 곳에 심고, 이어 튤립, 구가 가장 작은 무스카리 순으로 심으면 내년 봄 풍성한 화분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떡을 시

루에 찌든 흙과 구근을 번갈아가며 켜켜이 심는 것이 포인트다. 베란다에서는 화분이나 스티로폼 박스에 심으면 보온효과와 함께 내년 봄 예쁜 꽃을 볼 수 있다.

### 다른 식물과 혼합해 식재하면 더 아름답다

노지에 심을 경우에도 다른 식물들과 혼합하여 식재하면 더욱 관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스텐베기아와 같은 작은 구근은 암석식물과 같이 식재하면 보기에 더 좋고, 큰 잎과 꽃을 가진 백합과 크라넴은 혼합 화단이나 관목 위주의 화단에 심으면 빈 공간을 채우고 자연스러움을 더해 준다. in



### 무스카리

학명 : *Muscari comosum*

크기 : 10~30cm

꽃색 : 흰색, 보라색, 푸른색, 청자주색

개화시기 : 4월~5월

꽃말 : 실망, 실의

시중 판매가 : 20구 기준 2만원(가든조아)

스토리 : 속명의 *Muscari*는 그리스어 'moschos'로 사향 냄새가 나는 것에서 유래된 만큼 향이 진하다. 앞은 짧고 좁은 깔판한 형태이며, 10~30cm 길이의 꽃대에 수십개의 꽃이 포동송이처럼 달렸다.

4월경 3~4주간 꽃이 피며, 국내 전역에서 월동이 가능하다. 정원 화분 어디에서나 잘 자라며, 구근 번식도 잘 된다.

### 튤립

학명 : *Tulipa gesneriana*

크기 : 20~60cm

꽃색 : 적색, 분홍색, 황색, 자색, 복색

개화시기 : 4월 ~ 5월

꽃말 : 빨간색은 '사랑의 고백', 노란색은 '헛된 사랑' 등

시중 판매가 : 20구 기준 3만원(가든조아)

스토리 : 네덜란드의 상징인 튤립의 원산지는 사실 터키다. 16세기 후반 유럽 전역으로 퍼졌는데 이색적인 모양이 관심을 모으며 귀족이나 대상인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다고 한다. 튤립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꽃으로, 꽃의 수명이 다른 구근식물보다 긴 것도 매력 포인트다. 튤립은 아침에 벌리고 저녁에 오므라들기를 반복한다.

### 수선화

학명 : *Narcissus tazetta* var. *chinensis*

크기 : 20~40cm

꽃색 : 백색, 황색, 분홍색

개화시기 : 3월 ~ 5월

꽃말 : 자기에, 자기주의

시중 판매가 : 20구 기준 3만원(가든조아)

스토리 : 수선화의 속명인 나르키소스(Narcissu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나르시스는 언뜻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물속에 빠져 죽었는데, 그곳에서 수선화가 피었다고 한다. 그래서 꽃말이 '자기애(自己愛)'이다. 수선화는 한번 심으면 해가 지날수록 더 풍성한 꽃을 피운다.



## 초보 탈출 개념부터 알아

### ★ 춘식구근(봄에 심는 구근)

춘식구근은 봄에 심어서 여름에 꽃을 피우는 꽃을 말한다. 늦어도 5월말까지 구근을 심어야 한다. 꽃은 11월까지 피는데, 개화 시기는 꽃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춘식구근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캐내서 저장해야 한다. 봄에 심는 구근은 비교적 부드러운 겹질로 되어 있고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것이 많다.

### ★ 추식구근(가을에 심는 구근)

추식구근은 가을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심어서 봄에 꽃을 피우는 구근을 말한다. 추운 겨울을 땅속에서 보내는 겨울의 낮은 온도가 봄에 싹을 틔우는 필수조건이다. 여름에는 땅위의 잎이나 줄기는 죽고 땅속의 뿌리는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6월 구근을 캐서 보관한다. 추식구근은 대체로 단단한 표면을 가지고 있고 추위에 강한 온대가 원산지인 화초가 대부분이다.

## 구근이 좋아하는 환경 베스트 3

### 1. 물이 잘 빠지는 건강한 토양

구근은 배수가 잘 된 토양에 오래된 퇴비나 거름을 더해준다. 토양 입자가 작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토양에서는 물과 관련된 병이 발생되기 쉽다. 보수력과 배수력을 높이기 위해 부엽토, 퇴비, 톱밥 등 자연 유기물을 충분히 섞어주면 다음해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 2. 따뜻한 햇빛

보통 구근은 6시간 이상의 햇빛을 충분히 필요로 한다. 때문에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는 여름이 아닌 나뭇잎이 햇빛을 가리지 않는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종류가 많다. 하지만 개화가 시작되면 약간의 그늘이 있어야 오랫동안 선명한 색의 꽃을 즐길 수 있다. 강한 햇빛에 오래 두면 개화기간도 짧아지고 꽃의 색도 점차 희미해진다.

### 3. 겨울을 좋아한다

봄에 피는 추식구근류는 겨울에 그대로 땅속에 두면 다음해에 더욱 아름다운 꽃이 핀다. 하지만 얼리면 안 된다.

## 화분에 수선화 튤립 무스카리 심기



1. 화분에 마사토 또는 부직포를 깔아 배수층을 만들어 준다.



2. 그 위에 상토를 2cm 정도의 두께로 깐다. 빨리 꽃을 보고 싶으면 바닥에서 10cm까지 용토를 채운 뒤 심으면 빠른 개화를 유도할 수 있다.



3. 상토 위에 구의 크기가 가장 큰 수선화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올려놓는다.



4. 수선화의 구근이 살짝 보일정도로 상토를 3~4cm 정도 덮어준다.



5. 튤립 2종을 올린다. 이때 개화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튤립의 색상이나 종류를 고려하여 올려준다.



6. 상토를 다시 2~3cm 덮는다. 시루에 떡을 찌듯 켜켜이 흙과 구근을 올리면 된다.



7. 무스카리 구근을 올려놓는다. 10개의 구근을 올렸다.



8. 마지막으로 구근 끝까지 상토를 채워주면 완성.



9. 꽃이 피기 전까지 아름다운 화분을 보기 원한다면 상토 위에 색돌이나 키작은 식물들을 심으면 좋다. 피복 효과도 거둘 수 있다.



10. 구근을 꼭꼭 숨긴 위장(?) 화분이 완성됐다.



건강한 밥상

# 양파, 식탁에 오르기까지...

글 소순복 기자



양파 *Allium cepa*

양파 껍질이 양파 속보다 건강이나 미용 효과가 더 탁월하다. 양파의 주성분인 '퀘르세틴(quer-  
cetin)' 이 양파 속보다 껍질에 30배나 많이 들  
어있기 때문이다. 10월은 그 건강 아이템인 양  
파 모종을 심는 시기이다. 전남 남원의 양부군 농  
민상당소장으로부터 고품질 양파재배 기술을 배  
워보자.

## 경기 북부 노지 재배 가능

지금까지 양파는 남쪽 지방 중심으로만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신품종의  
개발로 추운지방에서도 노지 재배가 가능해졌다

고 한다. 경기북부 지방에서도 양파재배가 가능해  
졌다는 얘기가. 양파는 농가의 고소득원이다. 1평  
의 대지에서 1만 반 정도가 생산 가능한 만큼 텃  
밭을 가꾸는 도시민들도 직접 가꾸어 먹어도 좋  
을 텃밭작물이라고 양 소장은 추천했다.

텃밭에 양파를 직접 가꾸어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양파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건강지킴이  
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소장은 하  
루에 양파 1/4쪽씩만 먹어도 고혈압, 성인병은 물  
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양파  
는 피를 맑게 하고 항산화작용, 항암효과가 탁  
월한 것으로 이미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고 있다  
고 덧붙였다.

## 10월 중순 양파 정식 적기

그러나 양파 씨를 파종해 정식하려 했다면 이미  
시기를 놓쳤다. 양파 파종은 9월 5일 경에 이뤄져  
야 한다. 파종에서 정식까지는 45일의 기간이 필  
요해, 남부지방은 10월 초, 중부지방은 10월 10  
일~20일에 정식해야 한다. 마늘과 정식 시기가 필  
비슷하다. 양파 종자는 종묘상에서 구입할 수 있  
고, 당해 연도 생산된 종자를 선택해야 발아율이  
좋다. 종자의 크기는 참깨 씨만큼 작는데, 1통(약  
2만2000개 정도, 약 2만원 정도)을 구입하면 1평  
텃밭에 심고도 남을 양이다. 대부분의 씨앗이 그  
렇듯 남은 씨는 냉동실에 보관하거나 냉장고 깊  
숙이 넣어둔다. 상온에 보관할 경우에도 발아율이  
50%로 떨어진다.

## 파종 3~4일전 토양 살충제 살포

파종방법은 흙에 뿌리거나 6~9cm 간격으로  
줄뿌림 한다. 파종 3~4일전 토양 살충제 살포  
를 잊지 말고, 파종 후에는 모래와 톱밥을 섞어  
5~6mm 두께로 덮는다. 이때 톱밥은 참나무와  
같은 활엽수 톱밥을 사용해야 좋다. 소나무나 낙  
엽송 톱밥은 송진 성분이 있어 비가 오면 흘러내

려 발아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정식 1~ 2주  
일 전 인산질 비료를 얹면 싹포하면 뿌리 활착을  
촉진시키고 생육도 좋아진다. 짙이나 차광망으로  
피복해 준다. 차광망 피복 시에는 충분한 양의 물  
을 줘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자. 파종 후 5~7  
일 후에 발아를 시작하여 첫 잎의 끝이 완전히 지  
표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짙은 건어준다.

정식은 정해진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 정식이 늦  
어지면 월동 중 동해와 건조 피해가 발생한다. 또  
한 정식이 너무 빠르면 월동 중 과도한 생육으로  
분구 및 추대가 발생한다. 양파 뿌리 최저 생육온  
도는 4℃로, 정식 후 활착까지 25~30일 소요된  
다. 모종을 구입할 경우에는 모나미 볼펜처럼 생  
긴 작고 하얀 것을 구입한다. 키가 큰 모종은 꽃대  
가 올라와 버리게 된다. 시중에 판매하는 모종 중  
2~3만원 정도의 모종은 맵고 잘 자라지 않으니,  
다소 비싼 모종을 구입하는 편이 낫다.

## 물 부족은 활착 불량, 충분한 관수 필요

양파는 내한성이 강하나 수분 부족시 정식 후 활  
착이 불량해지므로 물을 충분히 준다. 병해충은  
예방이 중요하다. 잘록병, 노균병과 함께 고자리  
파리 등에 주의한다. 덜 썩은 퇴비를 사용할 경우  
냄새 때문에 고자리파리가 달려든다. 고자리파리  
는 알을 낳아 뿌리를 갉아먹게 한다. 잡초 피해도  
크다. 제초제 살포 후 3~4일 후에 비닐로 피복해  
줘야 하는 이유이다. 추비는 남부지방일수록 일찍  
준다. 늦게 주면 속기가 늦어지고 저장성이 급격  
히 떨어지므로 4월 상순에 마친다.

수확은 4월부터 6월 중순 사이가 적기이다. 수확  
해서 바로 먹을 양파의 경우, 잎이 70~80% 정도  
도복(잎의 쓰러짐)했을 때 수확하고, 저장해서 이  
용할 경우는 잎이 50~60%정도 쓰러졌을 때 수  
확한다. 도복 후에도 지상부가 완전히 마를 때까  
지 조금씩 비대하므로 도복이 진행될수록 수확량  
은 증대한다. in

## 9월 파종

### ★ 온도

- 발아 온도 15~20℃ 최저 4℃
- 내한성이 강함 : -8℃ 동해 피해 받지 않음.

### ★ 햇빛

- 호 암성 종자로 발아 후 광을 요구한다.
- 단일보다 장일에서 뿌리 증가가 왕성하다.
- 일장이 길면 길수록 구 비대 촉진된다.

### ★ 토양

- 부식질이 풍부하고 배수 양호한 사양토 혹은 식양토로 배  
수가 용이하다.
- 조생종은 사양토, 중만생종은 식양토가 적당하다.
- 산성토양에서 생육 및 구 비대기 불량하다. 질소(인산)칼리  
의 균형시비가 중요하다.

## 10월 정식

### ★ 정식에 알맞은 묘

- 육묘일수 : 45~50일묘 ● 초장 : 30cm ● 무게 : 6g
- 잎수 : 4매 ● 밑부분 직경 : 6 ~ 8mm

### ★ 정식 방법

- 이랑폭 : 120cm ● 심는 깊이 : 3cm 내외
- 재식거리 : 줄사이 20cm, 포기사이 10~15cm 6~10줄
- 추운 지역과 늦게 정식시에는 깊게 심는다.

### ★ 관수

- 양파는 내한성이 강하나 수분 부족시 정식 후 활착 불량. 겨울에는 동해.
- 정식 후 반드시 흙과 뿌리가 밀착되게 관수한다.
- 월동 중에도 수분 부족시 따뜻한 날 관수한다.
- 구비대기 4~5월에는 7~10일 간격으로 관수(30~40mm 강우).
- 저장용은 수확기 가까이에 관수를 하지 않는다.

## 양 소장이 전하는 텃밭생활의 지혜

### ★ 부추는 바짝 잘라라

부추는 땅 지표면에서 바짝 잘라야 뿌리가 번창하면서 튼튼하게 올라온다. 중간을 베면 번식이 약하다. 원예  
용 상토에 거름을 준후 물을 흠뻑 주면 텃밭에 잘 자라다가 노랑해 죽을 경우, 고자리파  
리를 의심해라.

### ★ 마늘 부추 쪽파 모두 살충제 필요

양파 마늘 부추 대파 쪽파와 같은 파속은 모두 살충제 살포가 필요하다. 또한 파속은 인산질 비  
료가 좋다. 물 20ℓ에 요소 60~100g(한 주먹 분량)을 희석해 발아 20~30일 후에 비료 부족  
시 준다.

### ★ 옥수수는 써서 냉동실 보관

옥수수는 육묘 구입후 1주일 간격으로 10주씩 심으면 여름내 먹을 수 있다. 옥수수를 보관할 때  
는 써서 냉동실에 보관한다. 냉동실에 보관할 경우 탈수되어 싱싱하지 않고, 생것을 그냥 보관할 경  
우 질겨진다.

### ★ 고추는 다양한 품종 심어라

4인 가족이 있는 집이라면 텃밭에 고추 10주를 심어라. 청양고추 2주, 일반고추 2주, 오이고추 4  
주, 아사이고추 4주 등으로 골고루 심으면 1년내 먹을 수 있다. 약을 치지 말고, 퇴비를 많이 주  
면 잘 자란다. 고통복비를 한 나무 1개씩 땅속에 묻어주면 오레도록 효과가 있다.

### ★ 파종 및 정식 시기

고추는 맑은 날 정식하고 토마토와 가지는 비오는 날 정식하는 것이 좋다.  
대파와 생강은 봄에 파종하고 양파와 마늘 쪽파는 10월 20일경에 정식한다.





Happy Halloween

# 할로윈, 추수감사절을 대비하는 자세

글 황주리 기자



▲ "늙은 호박을 심는 일은 쉽고, 재미있고 보람찬 일이다." - All About Pumpkins.com -

Q. 어떤 종류의 호박을 심어야 하나요?

A. 어떤 종류의 늙은 호박을 심느냐 결정하기에 앞서 추수시기가 되면 늙은 호박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그 목적부터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펄킨파이를 만들 목적으로 호박을 기른다면 베이비팜스 종이 제재이다. 할로윈파티를 장식하기 위해 잭오랜턴 조각을 목적으로 한다면 열매가 크고 넓은 코네티컷필드 종 또는 하우드 종을 심는 것이 좋다. 이때, 잭오랜턴 조각을 하기 위해 안에 노오란 속을 파내면 호박죽을 요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니 1석2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만일 여러 종류의 작은 호박들을 키우고 추수해 보는 것이 목적인 '호박 기르기 초보자 가이드'라면 귀여운 크기의 잭비리를 종을 추천한다.



▲ 베이비팜스(Baby Pam's)



▲ 코네티컷필드(Connecticut Field)

건강한 씨앗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호박씨가 제대로 저장되었던 것이라면 수년 간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미국의 한 가드닝 잡지 독자는 50년된 호박씨가 싹을 틔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소개한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

이름 한번 성의 없게 지었다. 하고많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늙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지다니. 예로부터 얼굴이 못난 사람에게 '호박'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을 생각하면 '늙은 호박'은 어감 자체만으로는 우리의 식욕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맥락은 다르지만 실제로 늙은 호박은 최근 '제중조절 식품' 일명 '다이어트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음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람이든 채소든 연륜을 무시할 수다 하지 않는가? 늙은 호박은 그 이름값을 한다. 못생기고 꾸부럼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을정원에서 주연 역이다.



▲ 잭비리들 (Jack-Be-Little)

리 생명력 강한 호박씨라도 처음 심는 씨앗은 패명성이 있는 회사에서 판매되는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씨앗을 고르는 것이 씨앗을 더 오래 가고 또 싹을 틔우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는 많이 없지만, 대형마트 브랜든나 편의점 구석에서나 판매되고 있는 상표 없는 일명 '펄킨 파이용 씨앗' 또는 '잭오랜턴용 씨앗'이 아닌 제대로 된 곳에서 씨앗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 기후가 그렇겠지만 만일

식물 성장시기가 짧은 기후에 살고 있다면 씨앗을 처음에 실내에서 심는 것도 방법이라 하겠다. 하지만 실내에서 씨앗을 심은 식물들은 대체적으로 줄기나 열매가 평균보다 얇고 가늘프게 성장하여 옮겨 심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 실내에서 처음 심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해야겠다.

Q. 어디에 심어야 하나요?

A. 다음 단계로는 골라놓은 씨앗을 어디에 심을까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염두 해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높은 채광량이다. 두 번째로는 최소 6미터에서 최대 9미터 정도로 광대하게 넓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배수가 잘되는 곳을 선택해야겠다. 모든 식물이 그렇듯 장마기간에 줄기가 물러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본인의 농장이나 가든에 채소나 꽃 또는 기타 식물을 성공적으로 기른 경험에 있다면 늙은 호박도 어렵없이 잘 자라줄 것이다. '늙은 호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장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생각해 보게 된다. 만일 여분의 퇴비를 갖고 있다면 사용해도 좋겠다. 좋은 파종상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다.

호박을 심을 공간이 확보됐다 생각할 때, 확보된 공간 중심에 씨앗을 심으면 된다. 만일 바람이 심한 지역에 있다면 넓물이 자라는 열이 바람과 같은 방향을 향해 신경을 써야겠다. 호박 잎과 줄기는 바람에 매우 약하기 때문. 바람이 유난히 강한 지역이라면 바람막이를 할 수 있는 도구들로 호박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Q. 언제 심나요?

A. 늙은 호박은 바람과 홍수뿐만 아니라 병해에도 매우 민감한 작물이다. 적어도 평균기온 21도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호박을 심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 주로 5월이 지나 따뜻한 기온이 유지 될 6월에는 심는 것이 중요하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을 전에는 원하는 크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서 심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호박은 완숙기간이 85~125일 정도라



▲ 호박의 싹이 트고 자라는 모습

고 알려져 있다. 구매하려는 씨앗 정보에 대략적인 기간이 나와있으니 원하는 날짜를 생각해 놓고 거꾸로 계산하여 심는 시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Q. 어떻게 심나요?

A. 씨앗을 2.5cm 에서 5cm 깊이에 심는다. 어느 쪽이 위쪽으로 가게 심어야 하는 지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기특하게도 호박은 알아서 땅을 뚫고 나올 것이다.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을 안으로 첫 새싹을 틔우게 되면 그 때 첫 퇴비를 주면 좋은 시기다. 퇴비는 잡초번식을 억제하고 수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렇다고 꼭 퇴비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 호박은 자체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자라는 기특한 식물이다.

인간 몸은 70%가 물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호박은 그보다 많은 80~90%가 물로 구성 되어있다고 한다. 그 만큼 건강한 호박으로 성장하려면 물도 많이 흡수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무턱대고 물을 주면 사들여 버릴 수 있으니 호박이 물을 필요로 할 때만 물을 주는 것이다. 굳이 날짜를 계산해서 물을 주지 않고 호박새싹이 난 곳의 토질 상태를 확인하고 말라갈 때 즈음에 갈증을 해소시켜 주면 된다. 굵고 비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건강한 호박이 나온다는 것만 명심하면 되겠다. 호박열매가 주황색 빛깔을 날 때 쯤에는 물의 양을 줄여가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하며 추수하기 일주일에서 열을 전쯤부터는 물 주는 것을 멈추는 것이 추수한 호박의 수분 함유량을 높이는 비법이다.

Q. 질병에 대처하는 법이 있나요?

A. 물론이다. 물을 주는 방법에서부터 질병을 막을 수 있는데, 일에 직접 물이 닿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호박은 진균성 질병들에 민감한데 특히 백분병균(白粉病菌)이라 불리는 일명 흰가루병균과에 민감하다. 백분병균은 기르고 있는 호박잎이 마치 어린아이가 땅에방울 파우더 (탈크파우더)를 뿌려놓은 것과 흡사한 형상을 띤다. 이 때, 호박잎만 시들시들 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전체 넉줄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따뜻하고 햇볕이 잘 통하지 않아 습한 곳에 주로 이런 백분병균 현상이 나타나니 반드시 일조량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 호박의 위치를 확인 해야 하며 백분병균현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 물 조절에 꼭 신경을 써야 한다. 집에 설치지, 세탁 혹은 제방용으로 구비해 둔 베이킹소다가 있다면 조금씩 식물에 뿌려주는 것이 좋다.



Q. 호박꽃이 핀다면?

A. 열매가 맺어야하는 호박줄기에 꽃이 핀다고 해서 너무 놀랄 필요 없다. 주로 처음 개화하는 호박은 수꽃이 많다. 꽃이 피는 형태만 보아도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 꽃 봉우리가 줄기에 바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꽃은 수꽃이다 (오른쪽). 하지만 꽃 봉우리와 줄기 사이에 작은 구근형태가 발견된다면 그 꽃은 암꽃이다 (아래). 이 때, 일찌감치 핀 수꽃의 화분은 벌들을 유인해 벌들이 호박밭의 위치를 감지하는 데 일종의 길을 만들곤 한다.

일꽃은 하루 동안만 열린다. 기후에 따라서는 하루가 아닌 불과 몇 시간만 개화될 때도 있다. 그 짧은 시간에 벌들이 수꽃의 화분을 옮겨주지 않아 수태하지 못했던 곧 시들 것이다. 그러므로 벌은 호박의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벌 때를 유인하지 못한 호박영굴에서는 가드너가 손수 화분을 옮겨야 하거나 작물을 키울 수가 없으니 말이다.

Q. 추수는 언제하나요?

A. 호박 추수시기의 호박은 여러 방면으로 신호를 보낸다. 앞서 언급했던 '잭오랜턴' 용으로 심은 잭비리를 종은 색깔이 짙은 주황색을 띄어야 한다. 만일 넉줄이 전반적으로 시들시들해지고 있다면 이 또한 추수 신호로 받아드리면 된다. 때론 줄기들이 몸을 배배 꼬거나 말라가며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추수신호는 박이 단단해졌나 확인 하는 것이다. 손톱으로 박이 금방 자국이 생긴다면 아직 추수할 시기가 아니다. 만일 아직 체 단단해지지 않은 미숙한 호박을 추수했을 경우 몇 일 안으로 금방 '푹' 쉬어버릴 테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겠다. 마트에 가서 수박이 잘익었나 '통통통' 두들겨 보듯 호박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도 된다. 박 껍질이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넉줄에서 호박을 추수하면 된다. 이렇게 직접 길러 추수한 호박으로 맛있는 달콤한 호박파이와 웅심이 뛰어난 호박죽을 요리해 먹으면 차가운 바람 부는 가을, 마음 한 칸이 그리 많이 설렁하지는 않겠다. in

(사진출처: 올버바웃펄킨스닷컴)



범씨 선택은 맡으며느리 고르기와 같다

## 오천만의 주식인 쌀(米)

글·사진 안완식 농학박사(토종종자모임 씨드림 상임대표)



鋤禾日當午 (서화일당오) 호미로 논을 매다 보니 점심때가 다 되었네  
汗滴下禾土 (한적하화토) 땀방울은 벼와 땅바닥을 적시는데  
誰知盤中餐 (수지반중손) 누가 저녁상 밥의 의미를 알겠는가  
粒粒皆辛苦 (입입개신고) 한 알 한 알에 맺혀 있는 그 고충을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선(李紳 780~846)은 그의 시에서 벼농사의 어려움을 이와 같이 표현했다. 벼농사 짓기가 그만큼 힘들고 고되다는 뜻이다. 쌀을 의미하는 한자인 '미(米)' 자는 '팔십 팔(八十八)' 즉, 여든여덟 가지의 힘든 작업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쌀이 될 수 있다' 해서 만들어진 글자라 하니, 한자에서도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묻어 난다.

### 토종 벼, 현재 약 400여 품종 보존

하루라도 밥 없이는 살기 어려운 것만 같은 쌀과는 떨어져서 해도 떨어질 수 없는 한민족이다. 벼는 가장 중요한 작물이었기에 품종의 분화도 일찍 시작되었으며 그 수 또한 가장 많다. 1900년대 초 지금의 농촌진흥청의 전신인 권업모범장의 벼품종대장인 조선도품종일람에는 1911년과 1913년에 각 도와 군에 의뢰하여 수집한 1,451 품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이 많았던 토종벼 종자들이 권업모범장이 설립된 이후로 빠르게 소멸되어 갔다. 새로운 품종들의 육성 보급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1985년 전국적으로 토종을 수집하였을 당시 벼는 24품종 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이 밭에 심는 밭벼였다. 현재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존되어있는 토종 벼는 약 400여 품종 정도로 추정된다.

### 색깔, 크기 등 다양한 특성의 토종 벼

1900년대 이전의 벼 토종 중에 전해져오는 토종 벼들도 그 특성은 아주 다양하다. 키가 50cm 정도로 작은 품종부터 130cm나 되는 키다리도 있다. 까락이 전혀 없는 품종도 있는가 하면 까락이 상당한 긴 품종도 있다. 까락의 색도 담록이나 황백색을 띠는 은조나 백색이란 품종이 있고 갈색, 홍색, 자색 또는 검은색을 띠는 흑저도나 흑대구와 같은 품종도 있다. 잎의 색도 담녹색으로 연한 품종이 있는가 하면 짙은 녹색도 있다.

잎이 넓고 긴 것 좁고 짧은 것도 있으며, 잎의 폭에 비하여 그 길이가 길거나 짧은 것도 있다. 잎의 자세도 일반적으로는 처진 것이 보통이지만 줄장벼처럼 댄 끝의 잎이 위로 서서 태양광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증대하여 수량성을 높일 수 있는 품종도 있다. 줄기 또한 굵은 것과 가는 것 강한 것과 약하여 벼품종대장인 조선도품종일람에는 1911년과 1913년에 각 도와 군에 의뢰하여 수집한 1,451 품종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이 많았던 토종벼 종자들이 권업모범장이 설립된 이후로 빠르게 소멸되어 갔다. 새로운 품종들의 육성 보급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1985년 전국적으로 토종을 수집하였을 당시 벼는 24품종 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부분이 밭에 심는 밭벼였다. 현재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존되어있는 토종 벼는 약 400여 품종 정도로 추정된다.

### 진미종의 최고 이천 자재벼 멸종

특히 밥맛을 좋게 하는 특성도 그 품종이 갖는 유전인자에 달려 있는데 지금은 찾을 수 없는 자체(自蔡) 벼 등 여러 품종이 있으며 떡을 하는데 쓰이는 찰벼도 많다. 자재벼는 전남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하여 오다가 신품종의 도입 재배로 1950년대에는 경기도 이천지방에서 주로 재배하여 왔다고 한다. 향포지에는 여주 이천에서 재배한 자재쌀이 좋다고 서술하였다.

또 이천대관(1955)에는 '자고로 이천 자재쌀하면 전국에서 유명한 이곳 특산물이다. 이천 자체는 수확기가 빠르고 식미가 좋고 절기가 많은 진미의 쌀로 음력 6월 15일이면 왕에게 진상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품종이 멸종되어 다시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 ■

### 쌀의 어원

'벼' 라는 말은 인도에서 가을에 익는 벼종류인 '브리히(Vrihi)' 라는 말이 만주 지방의 여진 말인 백미(白米)를 뜻하는 '베레' 를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벼' 로 정착되었다.

'쌀' 이란 말은 인도의 겨울에 익는 벼인 '사리(Sari)' 가 어원이다. 이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사리(舍利) 또는 보살(菩薩) 이 되고 '바' 자 발음이 없어지면서 '쌀' 로 발음되다가 다시 '쌀' 로 변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앞서 가신 이훈재 교수 의 지론이다.

현재도 경남지역이나 함남지역에서 '쌀' 을 '살' 로 발음하는 것을 보면 그럴 듯한 이론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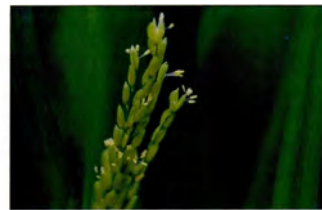
'범씨 선택은 맡으며느리 고르기와 같다' 는 속담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많았던 벼 품종 중에 좋은 벼 품종을 골라 심는 것이 벼농사의 기본이었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쌀[米] 은 벼의 껍질을 벗긴 알맹이를 말한다.

## 쌀의 종류

1. 벼는 지금의 한민족을 있게 한 가장 중요한 곡식이었다. 허수아비가 아무 상념 없이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지키고 서있다.



2. 벼의 개화: 벼의 꽃은 이삭목의 각 마디로부터 가지가 나와서 그 끝에 작은 이삭이 1개씩 달리며 1개의 꽃이 들어있다.



3.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른 벼이삭의 비교: 토종벼 중에는 검은색, 갈색, 황백색 등 여러 가지 특이한 색깔의 이삭이 있어 다양하다.



4. 자광벼(紫光稻): 자광벼는 이름처럼 붉은 까락이 빛을 발한다. 속기가 빠르고 경기도 이남 지방에 심겼던 자광벼는 김포군 하성면 석탄2리 도련마을에서 7대째 250여년간을 대물림하여 재배되고 있다. 모두가 자색을 띠고 있는 현미와 까락의 색깔에서 그 이름이 연유되었다. 자광미는 이천에서 재배하였다는 자재미와 함께 밥맛이 좋아서 임금님께 진상하였다고 한다.



5. 흑도(黑稻): 짧은 까락과 이삭 전체가 검은 자색으로 검둥이를 연상케 한다. 종만숙성인 벼 품종으로 평안남 북도 일원, 황해도 이북지방에 많이 심었다.



6. 강릉도(江陵稻): 중간 정도의 키에 성숙기의 까락은 붉은색을 띤다. 경기 안성, 경상북도의 영일 등 극히 일부 지방에서만 재배되었던 품종이다.



7. 돈나(豚糞): 돼지똥벼라고도 불렀던 돈나는 키가 크고 적갈색의 긴 까락이 많아서 이삭이 익어가는 모습이 마치 붉은 돼지의 등을 보는 듯하다. 맛이 좋으며, 찰기가 오래간다. 경남북, 충북 전지역, 전남북, 충남의 대부분 지역, 인천 교동도, 경기 안산, 안성, 양지, 여주, 용인, 평택, 강원 강릉, 삼척, 울진, 춘천 및 황성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재배하였다.



8. 백석(白石): 중간 정도의 키에 이름 그대로 희고 긴 까락이 특이하다. 서울과 충북 단양군 영춘면 등 극히 일부 지방에서 재배하였다.



9.-10. 다마금(多摩錦): 일본에서 도입한 품종으로 1900년 초부터 해방 전까지 49년간이나 널리 전국적으로 재배된 품종이다. 재배면적이 17만ha에 달하였다. 밥맛이 좋고 냉해에도 강하다. 키가 작은 편이며 낱알도 작은 편이다.



11. 원자벼: 까락이 없고 보통벼의 1.5배정도로 낱알이 크며 길다. 키는 크지만 잘 쓰러지지는 않으며 이삭이 조밀하다.



12. 황토조(黃土租): 경북 울진에서 재배하였다. 속기가 빠르고 길며, 붉은 수염 같은 까락이 인상적이다. 잎이 넓고 길다.



13. 대추벼(棗稻): 성숙하여 가는 이삭과 까락의 색택이 마치 붉은 대추와 같은 색 이어서 대추라고 이름했다. 경기 부평, 포천, 안성, 강원 이천군 인협면, 경남 거창, 고성, 경북 영일, 영덕, 천북, 고산, 무주, 임실, 남원, 평남북 및 황해도 일부지역에서 심었다.





정성훈 농촌지도관의

# 김장 관리 & 마늘심기

글·사진 정승환 기자 / 자료 DAUM 카페 '농사길잡이'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정성훈 농촌지도관)

김장채소 준비가 중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여름작물의 수확이 끝난 텃밭에 무엇을 심을까. 이런 고민의 대체작이 바로 마늘이다. 일반적인 마늘재배보다 쉬운 정성훈 농촌지도관의 재배 노하우와 김장채소관리를 전한다.



수확한 마늘줄을 묶어 놓은 상태이다. 마늘줄의 씨앗을 주아(珠芽)라고 한다.



주아를 재배하면 1년차에는 큰 통마늘이 나오기도 한다.



주아를 재배하면 1년차에 통마늘이 나오게 된다.

마늘은 발아하기 위한 적당한 온도가 15~27℃, 생육 적온이 18~20℃이므로 시월에 심기 가장 좋은 작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늘은 환경에 강한 편이 아니다. 내서성에 약하고, 내한성에도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재배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작목이 마늘이다. 마늘은 한지형과 난지형의 두가지로 구분한다. 정성훈 지도관은 "남쪽지방에서 심는 것은 난지형, 충청도 이북에서 심는 것은 한지형 마늘로써 육쪽마늘이다"라며 난지형을 중부지방에서 심으면 겨울에 동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저온 요구도 때문이다.

## 단양마늘이 조금 달아 선호

육쪽마늘이라고 마늘 한 점을 심으면 여섯 점을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육쪽마늘이라도 통이 큰 것은 6~7쪽이고, 대부분 4~5쪽이 나온다. 보통 4점을 생각하면 되겠다.

정성훈씨의 광주시 남종면 텃밭은 한지형 마늘을 선택했다. 정성훈지도관은 중부지방에 심을 마늘로 단양, 삼척, 의성재래종을 추천했다. 종자 소요량은 1,000㎡의 80~100점, 3.3㎡(1평)당 140쪽(24구)을 준비하면 된다고 한다. 그는 단양 마늘은 조금 단편이지만 구가 다른 것에 비해 약간 작은편이고, 삼척이나 의성은 늦게까지 재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 다른 작물보다 재배하기 쉬운 마늘

마늘을 심을때는 겹질을 까고 종자소독은 필수다. 마늘쫑개기를 하고 나서 씨마늘은 소독을 해줘야 한다. 마늘종자 소독은 균핵병, 잎마름병 등의 종구를 통해서 오는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건전한 씨마늘이라도 소독해서 사용해야 한다.

마늘 농사 짓는 사람은 대부분 주아재배를 하게

된다. 주아 재배 후 1년차가 된 마늘을 그냥 수확해 먹어도 큰 상관은 없다. 하지만 6쪽마늘을 재배를 위해서는 2년차 재배는 필수다.

또 신경써야 할 점은 발을 심을 때 적절한 깊이가 있게 심어야 한다. 보통 5~7cm로 심는 것이 좋다. 정성훈지도관은 알게 심으면 서리발에 의해서 얼어 죽을 수 있고, 볼에는 마늘이 흙 밖으로 보이니 가뭄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지나치게 배수가 안되는 곳에 깊이 심으면 썩을 염려도 있지만 갠 때 힘들다. 마늘은 가을에 심어놓고 땅이 얼기 시작할 때 백색비닐이나 짚을 덮으면 된다. 이것으로 마늘의 월동관리는 끝이다. 이듬해 마늘 관리는 다음 번에 언급하겠다.

## 배추, 결구를 위한 주의 깊은 관리

10월은 배추가 결구 형성 직전인 만큼, 추비(웃거름)주기와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물주기를 항상 신경써야 한다. 특히 영상 15도 정도가 되어 결구가 시작되므로 그 전에 염수를 늘려놔야 속이 꽉 찬 배추를 수확할 수 있다. 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병충해를 위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때다.

겨름은 9월달 웃거름 주기와 가뭄시 물주기 병충해 방제를 하면 된다. 하지만 3~4회째 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1~2회째 주는 방법과 다르다는 말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배추가 생육하는 단계이므로 배추가 심어진 이랑에 주게 되면 과다한 농도로 인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랑이 아닌 고랑에 주어야 한다는 것. 명심해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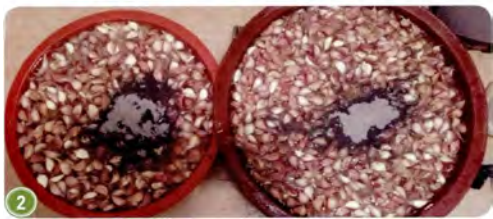
김장배추의 3~4차 웃거름은 반드시 고랑에 준다.

## 비료, 병해충, 관수... 삼박자 맞아야 한다

적은 면적을 짓는 텃밭가드너들에게는 포기당 1회에 요소 5g, 염화加里 5g 내외씩 주면 된다. 만약 엽면시비를 줄 계획이라면 요소 0.2%액(40g/물20L) 또는 4종복비를 줘야 한다. 병충해에 있어서는 민달팽이와 배추잎벌레가 활기차게 활동할 시기다. 김장배추이기에 발견 즉시 사살시켜야 한다. 또 물관리는 결구가 형성될때는 물이 많이 필요하다. 물론 배수는 기본. 항상 기상청의 날씨예보를 확인하고, 언제 가뭄이고 비가 많이 오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무를 비롯한 김장 양념채소 관리는 본지 지난 9월호의 관리법과 같다. 단 무는 주당 1분을 남긴 것은 하업을 따서 무채 등으로 이용하면 된다. 알타리무와 갓은 속음작업이 필수다. 가을의 기온이 김장채소를 좌우하는 만큼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생육 정점이 되도록 미리 손써두는 것이 현명한 가드너이다. **in**





## 김장채소밭 관리

- 김장배추밭은 10월달에는 웃거름주기, 가뭄 시 물주기와 병충해 방제를 하면된다.
- 지난 9월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장배추 웃거름은 3~4회를 15~20일 간격으로 주며 2회부터는 골 사이에 비3 포기당 1회에 요소5g, 염화加里 5g 내외 썩 준다(사진 右)
- 염면시비는 요소 0.2%액(40g/물20L) 또는 4종 복비를 준다.
- 무밭관리는 웃거름을 2회를 주는데 1차는 정식후 20일 2회는 1차후 20~30일에 주며 최종은 수확전 20일 전까지 준다.
- 웃거름 주는양은 포기당 1회에 요소2g, 염화加里 2g내외씩 준다.
- 무는 주당 1분을 남긴 것은 하엽을 따서 이용하여도 된다.
- 알타리무와 갓은 숙음 작업을 해 주는데 산파에 경우 알타리무는 5cm내외, 갓은 3cm내외에 한 개를 두고 숙여 주면 된다. (사진 下)



## 마늘 심기

1. 마늘 중구는 중부지방에서는 한지형인 단양, 삼척, 서산, 의성재래종 마늘을 선택해 심고, 종자소요량은 1,000㎡의 80~100점 3.3㎡당 140쪽(24구)을 준비하면 된다.
2. 종자소독은 소량 재배시 껍질을 제거하고, 벤레이트-티500배, 디메토유제 1,000배액에 1시간을 담근후 건져서 그늘에 말린다.
3. 마늘 심기시기는 10월 하순이 적기이다. 재식거리는 20×10cm로 (마늘전용 유공비닐은 15cm×12cm로 구멍이 나 있음)심는다. 깊이는 5~7cm로 깊게 심는 것이 겨울에 동해와 봄에 가뭄피해를 적게 받아서 큰 마늘을 수확할 수 있다
4. 마늘밭은 심기 15일 이전에 석회와 퇴비를 뿌리고, 경운 전 마늘 전용비료를 1,000㎡ 80~100kg과 토양살충제를 뿌리고 경운한다. 마늘전용 유공비닐로 피복해 25mm 정도 파이프 등으로 구멍을 뚫고 뿌리 쪽이 밑으로 가도록 심은 후 흙으로 덮어준다.
5. 마늘 월동관리는 흰색비닐이나 가랑잎, 짚 등으로 11월 하순경에 덮어 준다.



## 토란

토란수확이 거의 다 될 정도로 컸다. 토란 수확은 토란대를 벤 후 비닐멀칭을 벗기고, 토란을 떼내면 된다.



## 김장용 배추

아직 속이 꽉 차지 않았지만 잎 수가 많은 것이 생육 상태는 양호하다. 10월 기온이 떨어지면 결구가 형성하니 주의깊게 관리해야 한다.



## 농사길잡이 정성훈 지도관의 2013 가을 텃밭

## 콜라비

최근 소득작목으로 부상하는 콜라비, 정성훈지도관에 따르면 과가 마치 공중 떠 있는 듯 하다고 표현했다.



## 알타리무

포기간 15~20cm으로 파종한 알타리무이다. 계속 속아서 지나치게 밀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더덕

9월 14일에 수확한 더덕. 우측 아래쪽이라 사진에 안나왔지만 크기가 어른 손의 팔뚝만하다.



## 쪽파

배추 앞쪽으로 8월에 심은 쪽파, 새끼치기가 시작되고 잎이 무성해지기 시작했다.



## 열무

토양 성분 자체가 안정적이라 열무가 잘 자란다.





지구를 살리는 청소년농부프로젝트

# 태양열 조리기 만들기

글·사진 정승환 기자



▲ 9월 청소년 프로젝트 유기질 퇴비만들기 왼쪽부터 임준성(광주중2), 이연실(곤지암중1), 정우해(방산고3)

청소년들에게 농업에 대해 물어보면 힘들다. 어렵다 등 편견을 갖고 있다. 2013년 청소년 농부 프로젝트에 참석한 아이들도 과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농업을 청소년의 눈에 어떻게 비쳐질지 궁금함을 갖고 청소년농부프로젝트 후반기 일정에 참여했다.

청소년농부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기도 광주로 가는 도중 모바일 카페에서 경기도농업연구회 회원들이 약천후로 인한 장소 조정에 관해 바쁘게 글을 쓰고 있었다. 많은 대화 속에 오늘의 장소는 광주시농업기술센터 강당으로 정해졌다. 비속을 풀고 한 시간 전에 도착하니, 연구회 회원들이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해 재료, 간식, 아이들의 동선 등을 예상 체크하고 있었다. 일정이 갑자

기 변했지만 세심한 회원들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오늘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정대이 친환경농업팀장이 기술센터에서 실험 사육중인 닭에서 나온 배설물을 양겨와 섞어 퇴비를 만드는 것을 통해 자연순환농법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 냄새는 고약해도 자연순환농법의 원리를 깨닫다

학생들에게 퇴비만들기 참여를 권했지만 고약한 닭똥냄새 때문인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손사래를 친다. 그래도 개중 리더들은 있는 법. 몇몇 아이들이 해보겠다고 나선다.

사실 퇴비를 만드는 것을 어려워 하는 아이들이 많다. 예전 전통농법으로 인분, 축분 등으로 퇴비를

만들어 농사를 지어 온 것은 한국의 오랜 농업 방식이다. 인공적인 퇴비들이 요즘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농가에서 가족의 똥으로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함께' 라는 말 이외에 무엇이 필요한가

퇴비만들기가 끝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태양열 조리기를 만드는 강의를 시작했다. 기자도 이것은 실제로 제작하는 장면을 본적이 없어 기대됐다. 연구회에서 굿은 일을 도맡아 하는 남종우 총무가 강의를 맡았다. 엔지니어 출신의 남종우가 이런 강의를 생각한 것에 모든 회원들이 감탄했다. 남종우는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난방. 난방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경험토록 이번 강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물론 처음 접하는 아이들 책상 위 자와 칼, 큰 스



▲ 준비된 도면을 붙이는 작업이 시작됐다.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에 3조의 김은영 양이 나섰다.

▲ 여러 학생들이 같이 하니 도면을 붙이는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다.

## 청소년농부가 만드는 태양열 조리기



▲ 붙이고 난후 조립을 하기 시작한다. 3조는 다른 조보다 더디지만 세심하게 작업에 임했다.

▲ 태양열 조리기의 완성이다. 모든 학생들과 연구회 회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티로폼이 놓인 것을 보고 머뭇거리다. 하지만 실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남종우의 열의가 느껴지는지 하나둘씩 자와 칼, 가위 등을 들고 자신이 맡은 부위를 열심히 그리고 자른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동아리반과 체험반을 통합한 수업이라 어른들에게도 관리 부문에 있어서 다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태양열 조리기구 제작 참여에 열정적인 것을 보니, 양질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마지막 반사판을 붙이는 작업으로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조에서 완성된 작품에 박수를 친다. 프로그램 시간이 끝났는데도 끝까지 완성을 하려는

아이들의 열의가 곳곳에서 보였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만든 태양열 조리기구로 밖에서 달걀과 다양한 작물들을 삶거나 구워볼 예정이라 한다.

아이들 중 말쑥이 많은 아이들도 있다. 하지만 강의 끝나고 자신이 번식한 로즈마리를 집에 가져가려 하는 모습에 한 회원은 "흔내고 싶어도 이런 모습에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고 마음을 표현했다.

## 로즈마리 삼목으로 번식의 이해

마지막으로 체험반의 로즈마리 삼목법이 진행됐다. 오행농장 주인 신상천씨와 이선진 연구회부회

강의를 위해 쳐 놔둔 커튼을 걷으니 창문 밖으로 날씨가 언제 비왔냐는 듯 해가 비친다. 처음에 우려했던 걱정들이 말끔히 사라지는 순간이다. in

How to

## 청소년 농부의 유기질 퇴비 만들기



▲ 1. 닭의 배설물, 즉 계분을 모은다. 계분은 다른 똥에 비해 질소와 인산이 현저히 높다.

▲ 2. 버의 겹질인 왕겨를 계분과 1:1 또는 2:1로 섞는다. 썰드물이나 한약 찌꺼기도 넣어주면 좋다.

▲ 3. 잘 섞어 마대에 담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섞어준다. 오랜 시간 발효할수록 좋은 퇴비가 만들어진다

▲ 4. 충분히 발효된 퇴비를 상자 화분에 담는다. 작물 재배를 위한 준비가 완성된다.



# 낙엽 지는 산야에 가을을 외치는 꽃 들국화

글·사진 정승환 기자 / 촬영협조 아침고요수목원(1544-6703)



▲ 아침고요수목원에 핀 들국화. 시월의 수목원에서는 들국화가 2013년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낮에 25도 이상 올라가도 저녁만 되면 10도까지 떨어지는 가을이다. 적색으로 물드는 산야에 하양과 노랑, 옅은 보라 등 빛깔별로 무리지어 피는 식물이 있다. 바로 들국화. 국화는 한국의 정서와 많이 닮았다. 아침고요수목원 한국정원의 들국화 전시회는 국화의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낸 곳으로 평가된다.

확히 이야기하자면 산과 들에 피는 자생국화를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라 한다. 병원에서 볼 수 있는 국화라는 이미지도 강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가을만 되면 국화꽃을 보고 싶어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 가을 들국화, 한국 정서를 담다

가을이면 산과 들, 바닷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



▲ 2013들국화전시회가 열린 아침고요수목원 한국정원. 거단마다 구절초, 해국 등의 국화가 방문객을 반긴다.



절초나 감국, 산국, 해국, 쑥부쟁이 등 많은 종류의 야생국화가 바로 들국화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망초(Erigeron canadensis L.)'도 국화과이다. 원예종 국화는 산국이나 감국을 개량한 것이다. 들국화는 절화용 국화보다 더위와 추위, 병충해에도 강하고 독특한 향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작지만 아름다운 꽃송이들이 우리네 정서와도 공유되어 있는 꽃이라 할 수 있겠다.

## 구절초류, 개미취류, 쑥부쟁이류 등 세 가지 구분

한국정원 꽃밭을 뒤로 하고 계단을 오르니 계단 양끝자락에 놓인 토분에 식재된 들국화가 오는 이들을 반기고 있다. 아직 꽃이 터지지 않았지만 꽃대에서 나오는 꽃봉오리가 꽃을 피기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는 듯하다. 들국화는 종류가 수백개 지다. 아직 이름도 알지 못하는 국화들도 꽤 있다. 아침고요수목원 야생화 재배담당 홍진옥씨는 들국화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잎이 둥근 타원형이면서 깊게 갈라진 구절초류, 줄기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곧게 자라 올라가는 개미취류, 잎이 피침형이거나 길쭉한 타원형이고 잎 가장자리 톱니가 있는 쑥부쟁이류 등이 있어요." 이외에도 감국, 산국 등의 약재로 쓰이는 것들도 있다. 산야에서 자라는 만큼 꽃이 시들고 종자가 그 자리에 떨어져 다시 발아하고 꽃피는

다. 새순이 나오는 가지를 잘라 심목하면 금세 번식이 가능할 만큼 키우기 쉬운 것이 국화이다.

## 노지 재배시 생장력 강해 키우기 쉽다

들국화는 산과 들에서 피는 야생화이다. 들국화를 정원에 식재하면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취할 수 있다. 또 다른 야생화보다도 발아율이 좋은 것도 들국화의 장점이다. 지난해 북방계식물들을 가지고 실험한 적이 있었는데 들국화보다 발아율이 나 생육이 떨어진다는 것이 흥미로운 설명이다. 들국화 종류 중에서 키우기 까다로운 것도 있다. 바늘분취, 솜방망이, 산솜방망이, 금방망이 등이다. 이것들은 재배시설에서도 번식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이것 이외의 국화류들은 키우기 쉽다.

다른 야생화보다 키우기 쉬운 들국화는 월동이 잘 되는 식물이다. 보통 들국화를 파종할 때 육묘 상자에 상토를 넣고 파종한다. 파종 후 72구 트레이에 이식 하고 겨울을 난 후, 이듬해 5월에 눈이 올라올 때 포트에 정식하면 된다. 어느 정도 뿌리가 포트 안에서 돌게 될 때쯤 예쁜 화분으로 분갈이 하면 된다.

분화용으로 재배시 주의할 점은 5월 정도에 흙을 새로 갈아줘야 한다는 점이다. 갈아줄 때 뿌리를 털어줘야 한다. 뿌리가 화분 안 뿌리 사이 묵은 흙들은 더 이상 양분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씨는 "이 시기에 흙을 새로 갈아주지 않으면 꽃상대로 안 좋고, 꽃대도 안 올라 온다. 어떤 것들은 양분부족으로 죽을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 배수, 병해충 관리가 필요하다

들국화는 야생의 특성이 강한 식물이라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을 만큼 강한 식물이다. 하지만 구절초의 경우 배수에 신경 써야 하는 국화과이다.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 용토와 마사토의 비율을 1:1로 섞어야 한다. 피트와

필라이트 비율도 1:1로 섞는다. 배수가 잘 되는 용토에 물은 매일 한 번씩 주는 것이 좋다. 노지에 심어놓는 것들은 뿌리가 튼튼해 문제가 없지만 화분에 키우는 국화는 관수 간격을 짧게 해야 한다.

들국화는 야생화 특성상 해충의 노출에 약한 편이다. 5~6월이 되면 노란색의 진딧물들이 피해를 준다고 한다. 약제를 뿌려서 방제하는 것도 좋지만 심할 경우 격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잣빛곰팡이 등의 균 또는 바이러스 등의 피해에도 약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꽃에서 발생되면 삽시간에 번지므로 이것도 격리 또는 폐기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나 가을에는 살균제 등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 다양한 국화는 약재와 미용의 원료

구절초는 국화차와 술을 담글 수도 있다. 잎을 따서 전을 부치거나 수제비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섬쑥부쟁이는 울릉도에서 부지깥이 나무로 더욱 유명하다. 곤드레나물이라고 부르는 고려엉겅퀴는 곤드레밥과 나물로 곱취, 참취, 곰달비, 수려취, 개미취, 미역취 등은 목나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감국은 국화차와 국화주, 새싹채소, 나물, 치매치료제 및 화장품 원료로 이용된다. in

## 들국화의 효능

가을에 국화꽃을 채취해 잘 건조시켜 베개 속에 넣고 자면 두통이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또 이불 속에 넣으면 국화향기와 함께 숙면을 취할 수 있다. 땅속의 뿌리줄기는 약재로도 이용할 수 있고, 꽃은 말려서 달여 먹으면 눈이 맑아지고 고혈압, 중풍, 피부질환에 좋다.



▲ 노지정원에 심은 단양쑥부쟁이와 향아리를 얹어놓고 그 위에 토분으로 식재한 들국화가 조화를 이룬다.



## Tip 들국화, 화분재배

- ▶ 흙의 마사를 섞어 배수가 잘 되게 한다.
- ▶ 국화는 노지에서 월동이 잘되는 식물로, 굳이 겨울에 실내에 들여놓지 말라.
- ▶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 대청마루에서 바라 본 한국 정원. 주변 관목류와 어울리게 식재하고, 토분 등을 활용하면 정적인 정원이 동적으로 변해 보인다.



## 아침고요수목원에서 본 들국화

산야에 피는 국화는 종류가 매우 많다. 이 중 아침고요수목원의 한국정원에서 전시한 대표적인 들국화들을 소개한다. 들국화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 봤지만 지면에서는 여러 종류의 들국화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도움말

홍진욱 tiredman2@hotmail.com  
아침고요수목원 식물연구부 재배담당.  
수목원 내 재배하우스, 고산암석원,  
아생화전시장 등의 전시를 담당하고 있다.



▲ 벌개미취



▲ 좀개미취

**개미취(Aster tataricus)류\_** 개미취, 좀개미취, 갯개미취, 벌개미취 등

구절초, 쑥부쟁이와 함께 들국화의 대명사이다. 개미취 이외에 자원, 협판재, 산백재, 자와 등의 이름을 갖고 있다. 꽃 색깔은 옅은 자색, 하늘색 등이 있다. 쑥부쟁이와 비슷하나 좀 더 크다. 키가 2m이상 크는 종도 있는데, 꽃 무게로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 개미취



▲ 서흥구절초



▲ 포천구절초



▲ 한라구절초

**구절초(Chrysanthemum zawadskii)류\_** 포천구절초, 산구절초, 바위구절초, 구절초 등

9월 9일에 뜰는 것이 가장 좋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흰색, 담홍색 꽃이 피는 구절초는 보통 흰색이 대부분이다. 원줄기와 가지 끝에 한송이씩 꽃이 핀다. 잎은 길이 2~4.5cm의 잎자루가 있고, 넓은 달걀꼴이다. 가을에 뿌리채 캐어 약재로 쓰인다.



▲ 까실쑥부쟁이



▲ 개쑥부쟁이



▲ 가새쑥부쟁이

**쑥부쟁이(Aster yomena)류\_** 쑥부쟁이, 가는쑥부쟁이, 가새쑥부쟁이, 눈개쑥부쟁이 등

권영초, 자채 라고도 불리는 쑥부쟁이는 보랏빛 색깔의 꽃을 피운다. 개미취와 비슷한 꽃모양으로 혼동하기 쉽다. 개미취는 잎 가장자리 물결모양으로 구분된다. 표면은 약간 광택이 나고, 뿌리줄기는 옆으로 가는 긴 명속줄기가 있다.



▲ 눈개쑥부쟁이



▲ 미국쑥부쟁이

**해국(Aster spathulifolius)**

산지뿐 아니라 이름처럼 바닷가 바위 틈에 붙어 자라기도 한다. 잎은 주걱모양이고 양면에 미세한 털이 나 있다. 흰색 또는 옅은 자주색 꽃이 7~11월에 핀다.



**감국(육성종, Dendranthema indicum)**

감국은 전국의 산과 들에서 볼 수 있다. 꽃은 황색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육성한 것들은 흰색계열이 있다. 줄기와 가지 끝에 펼쳐지듯 뭉쳐 꽃들이 달린다. 한방에서는 약재로 쓰이고 있다.







글·사진 이명호의 아생화(www.skyspace.pe.kr)

## 시골소녀의 맑은 모습을 닮은 들국화 ‘쑥부쟁이’

맛있하면서 갈라지지 않는 반면에, 구절초는 잎이 난형이거나 둥근 타원형이면서 아주 깊게 갈라진다. 대개는 우상으로 갈라진 열편조차도 선형 또는 피침형일 정도로 끝이 아주 뾰족뾰족한 편이다. 꽃도 대개는 구절초의 경우가 크면서 꽃잎도 넓고 두툼하다. 구절초는 잎의 두께도 두껍고, 식물 전체가 훨씬 튼튼하게 생긴 편이다.

### 쑥부쟁이의 전설

옛날, 아주 깊은 산골에 가난한 대장장이 가족이 살고 있었다. 대장장이의 큰딸은 병든 어머니와 11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돌보며 틈틈이 쑥을 캐러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쑥을 캐러 다니는 불쟁이의 딸'이라는 뜻으로 그녀를 '쑥부쟁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쑥부쟁이가 쑥을 캐다가 상처를 입고 사냥꾼에게 쫓기는 노루를 보게 되었다. 쑥부쟁이는 노

루를 숨겨주고 상처까지 치료해서 보내 주었다. 쑥부쟁이가 다시 산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멧돼지를 삼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빠진 사냥꾼을 보게 되었다. 사냥꾼을 구해주고 보니 잘 생기고 씩씩한 청년이었다. 첫눈에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청년은 '가을에 다시 찾아오겠노라'는 약속을 하고 떠나 버렸다. 청년을 기다리면서 한 해 두 해 가을이 지났다. 다시 여러 번의 가을이 지났지만, 청년으로부터



### 국화와 들국화

가을철 전국의 산과 들판을 향기롭고 소담스럽게 수놓는 꽃을 우리 '들국화'라고 흔히 부른다. 사진적인 용어로는 '아생하는 국화' 식물의 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이는 재배되는 원예종의 국화와 대조되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실제로 '들국화'라는 식물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가을철 향기 그윽하게 피는 야생의 국화과 식물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들국화 무리들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누면 쑥부쟁이류, 구절초류, 개미취류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 쑥부쟁이류의 세부 분류

들국화 무리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쑥부쟁이류의 종류가 가장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모두 잎이 길면서 전혀 갈라지지 않았거나 가장자리가 약간 갈라져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계절에 따라 피는 종류가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피면서, 몸체에 비해서는 비교적 꽃이 작은 편이다.

이들의 종류는 기본종인 쑥부쟁이를 비롯해서 가는쑥부쟁이, 가새쑥부쟁이, 개쑥부쟁이, 흰개쑥부쟁이, 논개쑥부쟁이, 섬쑥부쟁이, 까실쑥부쟁이,

흰까실쑥부쟁이, 단양쑥부쟁이, 버드쟁이나물, 갯쑥부쟁이, 민쑥부쟁이, 구름국화, 웅크나물, 쑥방망이, 금방망이, 삼잎방망이, 금불초, 솜방망이, 산솜방망이, 물솜방망이, 민산솜방망이, 솜나물, 미국쑥부쟁이, 빗자루국화 등을 들 수 있다.

### 쑥부쟁이와 구절초의 구별

식물 공부에 관심을 갖는 초보자들은 흔히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분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이에 대한 간략한 구분법을 소개한다. 쑥부쟁이는 우선 잎의 모양이 선형 또는 피침형이거나 길쭉한 타원형으로 잎의 가장자리에 톱니가 조금 있거나

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쑥부쟁이는 청년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지 못해 산신령에게 치성을 드렸다.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구해 주었던 노루가 나타났다. 그 노루는 바로 산신령이었던 것이다. 노루는 보랏빛 주머니에 담긴 노란 구슬 세 개를 주었다. 그러고는 "구슬을 하나씩 입에 물고 소원을 말하면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다.

쑥부쟁이는 첫째 구슬을 입에 물고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해달라고 했다. 산신령의 말처럼 어머니는 순식간에 건강을 되찾았다. 둘째 구슬을 입에 물고는 사냥꾼 청년을 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

다. 그러자 바로 그 자리에 청년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는 이미 결혼하여 아이까지 두고 있었다. 쑥부쟁이는 청년이 원망스러웠지만,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이 불쌍하여 그 청년이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마지막 소원을 빌었다. 그 후 쑥부쟁이는 청년을 잊지 못하다가, 어느 날 그만 절벽에서 발을 헛디뎈 죽고 말았다.

쑥부쟁이가 죽고 난 뒤,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 사람들은 이 꽃을 보고 쑥부쟁이가 죽어서도 배고픈 동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을 쑥부쟁이라고 부르고, 쑥부쟁이의 보랏빛 꽃잎과 노란

꽃술을 노루가 준 주머니와 함께 세 개의 구슬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 한국적 정서를 가진 꽃

가을에 피는 야생의 꽃들 중에서 가장 소박하면서도 그윽한 향취를 풍기는 꽃이 바로 쑥부쟁이가 아닐까?

들국화가 한국적인 정서를 가득 담고 있는 꽃이라면, 쑥부쟁이는 유난히 가난하면서도 착하게 살고 있는 시골소녀를 떠올리게 하는 꽃이다. 이 가을에는 모두가 쑥부쟁이처럼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in**



꽃을 찾아 떠나는 가을 여행

# 10월의 국내 꽃 축제

글 소순복 기자

가을의 여행은 봄과 여름에 떠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동토에서 깨어나듯 충전을 위한 떠남이 봄의 여행이라면, 여름은 더위를 피해서 붓짐을 싸는 피서, 그러나 이 계절 가을은 굴곡진 삶을 살아낸 이들을 위한 위로의 여행쯤으로 다가온다. 시간이 더 지난 늦가을의 풍경과도 또 다르다. 붉은 색으로 치장하기 전, 은은하고 그윽한, 그리고 향기를 담아내며 풍요로운 색의 향연을 펼치는 산야가 바로 이 계절 초가을의 백미이다. 화려하지만 가볍지 않은 중후한 맛이 느껴지고, 봄의 수채화 대신 유화의 느낌이 강하다. 수목화 같지만 색을 입혔고, 동양적 고전미가 어우러져 우아한 풍경을 자아낸다. 그래서 한가롭고 호젓한 나만의 여행을 떠나고픈 그런 계절이다. 전국 산야에 가을 꽃축제가 한창이다. 붉게 물든 단풍을 원한다면 잠시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은은한 향에 취하고, 서정적 감성에 푹 빠져들고픈 시인 묵객들을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다.

## Theme I 국화 축제 가을 국화 자태도 아름다워라

가을 국화 자태도 아름다워라.  
이슬에 젖은 꽃잎을 따 보네.  
근심을 잊는 술에 띄워 마시니,  
세속 떠난 마음 더욱 깊어지네.

국화를 사랑한 중국 대표 시인 도연명의 '음주' 시중 제7수이다. 사군자의 하나인 국화는 이처럼 문인들의 단골 소재가 되어왔다. 다른 꽃들이 다 지고난 뒤인 가을에 꽃을 피우니 어찌 아름다운 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함평, 2013 대한민국 국향대전

가을의 대표 축제로는 단연 국향대전이다. 2013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전남 함평 엑스포공원 일대에서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개최된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지난 2004년 가을에 시작된 이후 국내 대표적인 국화축제로 자리매김해왔다. 그 명성만큼 규모나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매년 전시되어 왔는데, 올해는 특히 독립문의 크기와 모양을 본 떠 너비 11.48m, 높이 14.28m의 대형 조형물을 선보일 계획이어서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독립문 외에도 국향문과 마법의 성, 황소, 9층 꽃

탑 등의 대형 조형물 조성이 예정돼 있다. 전시장 곳곳에는 소형 국화조형물들이 동선을 따라 배치되고, 대국 및 천문작 작품, 국화분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내전시실에서도 국화동호회들이 선보이는 국화 분재작과 함께 들국화 및 야생화로 연출한 가을 산경이 보는 재미를 더할 것이다.

역새와 조·수수나무로 계절의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는 국화동산도 관람객의 발길을 머물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고무막, 콩 등 토속적인 '가을먹거리'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추억의 먹거리 행사장 등이 운영된다. 수수깡을 이용한 인경, 바림개비, 곤충 등을 만드는 공작물 만들기

체험도 계획돼 있다.

기간 : ~11월 11일

장소 : 함평엑스포공원, 화양근린공원

문의 : 함평군청 문화관광체육과

(061-320-3364, 3349, 3733)

홈페이지 : www.hampyeong.go.kr



평강식물원,  
들국화와 함께하는 추억 여행

평강식물원에서는 '들국화와 함께하는 추억 여행'이라는 주제의 제8회 들국화축제를 연다. 이달 말까지 식물원 내에 있는 전시공간에서 개최되는 들국화축제는 소중한 우리꽃 국화와 들국화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국내에서 우리꽃 들국화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곳은 흔치 않다. 그러나 평강식물원은 환경부 지정 서식지의 보존기관으로 멸종위기 식물 구절초, 산국, 미역취 등 국화와 식물의 통칭인 들국화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평강식물원엔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도 원예종이 아닌 국내에 피어나는 자생 들국화들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에 그 축제의 의미를 더 두고 있다.



평강식물원은 들국화 축제 일정을 명성산 축제에 맞춰 잡았다. 가족 나들이 길에 들리기에 좋고, 아이들에게 야생들국화에 대한 자연학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전통놀이 체험, 특히 국화차도 제공한다. 가을의 그윽한 향기와 함께 넉넉한 추억 여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평강식물원에서는 매월 다양한 식물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3, 4월 약용식물전을 시작으로 4, 5월에는 고산식물전, 5, 6월에는 만병초 전시회, 9, 10월에는 들국화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기간 : ~10월 31일

장소 : 평강식물원 내

문의 : 031-531-7751

홈페이지 : www.peacelandkorea.com



경남 마산 제13회 가고파국화축제

경남 창원시의 마산에서는 제13회 가고파국화축제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개최된다. 국내 국화재배의 역사가 담긴 마산은 국화재배에 알맞은 토질과 온화한 기후로 전국 국화 재배면적의 13%를 차지할 만큼 국화의 본 고장이다.

가고파축제에서는 매년 특화된 기술로 창의적인 작품을 제작 전시하는데 한 줄기에서 천 송이 이상을 피우는 다륜대작과 여러 개 색을 연출하는 기술, 몇 천 송이 국화를 조합하는 기술, 국화 개화시기를 조절하는 기술 등이 접목된 축제가 되고 있다.

한 줄기에서 1,315송이를 피워 내는 다륜대작 「천향여성」은 2010년 세계 기네스에 등재하며 매년 기록이 경신되는데 2013년은 1,420송이 기록 경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4미터 높이 상호와 NC 야구단 꽃벽, 다륜대작 등 물감으로 색칠한 듯 오색찬란한 색과 단아하고 웅장한 자태 203개 조형물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연출될 것이다.

가고파국화축제는 7개의 테마존에서 진행된다. 국화 및 수목 분재 전시에서부터 경연행사, 특별 행사로 축제의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국화를 일상생활에 접목한 다양한 체험거리도 즐길 수 있다.

기간 : 10월 25일 ~ 11월 3일

장소 : 마산항 제1부두

문의 : 창원시/가고파국화축제위원회

(055-225-2341, 225-3706)

홈페이지 : http://festival.changwon.go.kr/gagopa



아침고요 수목원, 국화와 단풍의 향연

아침고요수목원에서는 이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화전시회가 개최된다. 지난 1년에 걸쳐 정성스럽게 가꾼 분재작, 현애작, 단간작, 다간작, 다륜대작, 특수작 등 500여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다.

올해로 벌써 15회째를 맞이한 아침고요수목원의 국화전시회는 실내 전시실을 비롯한 약 33만㎡의 야외정원에서도 300종의 3000본의 다양한 국화꽃이 식재되어 장관을 이룬다. 아침고요수목원은 이미 잘 알려진 그 명성 그대로 매 계절마다 뚜렷하게 다른 풍경으로 각종 전시회 및 축제를 열고 있다.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접하며 추억과 낭만에 젖어들 수 있는 공간이다.

기간 : 10월 2일~11월 30일

장소 : 아침고요수목원

문의 : 1544-6703

홈페이지 : www.morningcalm.co.kr







## Theme II 구절초 축제 꽃내음 가득한 가을 산사로의 초대

구절초가 이렇게 아름다웠다. 숲속 아래 펼쳐진 구절초의 비경은 마치 선계(仙界) 같다. 그 어떤 미사여구가 거추장스럽고, 그 어떤 감탄사가 그 격을 떨어뜨릴까 우려된다. 사진에 향기까지 담아낼 수 없어서 다행이다. 숲속이나 구절초 향까지 더해진다면 아마 자리를 박차고 지금 당장 일탈을 강행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 정읍, 술숲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투어

전북 정읍에서는 구절초 축제가 이달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개최된다. 10만㎡의 술숲에서 펼쳐지는 정읍 구절초축제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10월의 대표축제 5선'에 그 이름을 올린바 있고, '전국 가을만한 축제 20선'에도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가을에 꼭 한번 가봐야 하는 축제 중 하나이다. 지난해에도 약40만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다녀갔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정읍 구절초 축제의 최고 걸작은 단연 술숲 구절초 풍경이다. 구절초포도 빼놓을 수 없는 비경중 하나인데, 비경에 곁들여지는 이벤트들 역시 고명처럼 구절초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구창모, 김범룡, 이진관 등 7080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개막축하공연을 비롯해 행사기간 동안 매일 2회씩 '구절초 꽃밭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꽃과 감미로운 재즈와의 협업은 잊지 못할 감동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야간 개장 및 다양한 체험이벤트 등이 계획돼 있다.

정읍시는 또한 올해 하천변 황토길과 코스모스 및 해바라기 경관을 새롭게 조성해 축제의 풍격을 더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 더불어 쉼다리와 징검다리도 설치해 추억과 낭만을 더할 예정. 올 가을 정읍이 가을 여행의 최적지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기간 : 10월 5일(토) ~ 10월 13일(일) / 9일간  
장소 : 정읍시 산내면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일원  
문의 : 063-539-6171~3  
홈페이지 : [www.gujulcho.co.kr](http://www.gujulcho.co.kr)



### 제14회 장군산 영평사 구절초 꽃 축제

충남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 장군산 영평사에서도 구절초 축제가 예정돼 있다. 올해로 14회째인 장군산 영평사 구절초 꽃 축제는 온통 하얀 구절초 꽃무리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는 산사의 풍경이 압권이다. 덕분에 매년 10만명 이상 찾아오는 대표적인 사찰 및 지역문화 축제로 부상했고, 일반인들에게도 가을 필수 여행지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영평사의 구절초 꽃 축제는 평소 꽃을 좋아하는 주지 환성스님이 길에 핀 한 송이 토종 꽃을 도랑에 옮겨 심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꽃이 장군산 산자락 일대를 가득 메우게 되면서 지역축제로까지 인기를 얻게 됐다. 영평사의 구절초 군락은 산사와 자연의 어우러짐이 백미. 가을 산사의 청량한 공기와 만개한 구절초를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맑아지는 힐링 명소이다.

영평사 축제는 산사음악회를 시작으로 지난 9월 28일 시작돼 도예전시회, 다례시연, 시낭송회, 지역예술인 연주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체험 등이 이달 6일까지 진행된다. 다년간 축적된 산사예술제의 노하우를 살려 고품격의 문화공연과 전통문화 체험이 공존하는 꽃 축제의 정수를 보여주며 풍요로운 가을 정취를 선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죽염수로만 간을 한 웰빙 국수가 무료로 제공되고, 구절초 찻차 무료시음, 연꽃차, 연선식, 구절초 화전, 등 다양한 먹거리와 전시·체험·이벤트·보시 및 나눔장터 등 볼거리를 테마로 한 이벤트들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기간 : ~10월 6일  
장소 : 세종시 장군산 영평사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장군산 영평사 중무실 ☎044-857-1854







### Theme III 코스모스 축제

## 코스모스 사이로 실려 오는 아련한 추억

코스모스하면 어릴 적 도로가에 수줍게 피어있던 꽃길에 생각난다. 꽃을 피우기 직전 탱글탱글하게 영글은 꽃망울을 톡 터뜨리면 물이 찌익 나오는데, 그 터지는 재미가 쏙쏙해 친구들에게 장난을 쳤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때 아닌 때에 피어나는 성급한 봄들 때문에 가을은 코스모스의 계절이라는 등식이 깨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추억도 문혀버린 듯 했는데, 그런 빛바랜 추억을 되살릴 만한 축제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 2013 구리 코스모스축제

서울 근교에서는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코스모스 군무리를 만날 수 있다. 12만㎡에 코스모스 군락을 이루고 있는 구리한강시민공원은 한강 최대의

코스모스 꽃 단지로 유명해,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한다.

구리한강시민공원의 코스모스 꽃밭은 해마다 방문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구리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거제도 가깝고 특히 한강과 어우러진 코스모스의 이색 풍경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로 유장하게 한강이 흐른다. 그 세월을 담아내듯 코스모스 단지가 화려하게 펼쳐져 있고, 강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코스모스의 춤사위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어릴 적 추억을 고집내내 동심에 빠져들고, 어른이 된 지금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이곳 시민공원이 아닐까 생각된다.

올해는 특히 고구려 관련 문화행사, 건강 체험 한마당, 건강 걷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더욱 다양한 끼리가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한다.

기간 : 10월 3~ 6일

장소 : 구리한강시민공원

문의 : 구리시청 문화예술과

☎ 031-550-2065, 2067

홈페이지 : 구리시홈페이지([www.guri.go.kr](http://www.guri.go.kr)) /

네이버카페「꽃나들이」

(<http://cafe.naver.com/guri92>)



#### 제7회 북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개최

경남 하동군에서는 북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를 하동군 북한면 꽃단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메밀과 코스모스 꽃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에 맞춰 이달 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북한코스모스·메밀꽃 단지는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한 「경관우수마을 콘테스트」에서 전국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곳이다. 2006년 농어촌 경관 보전 직불사업의 일환으로 코스모스와 메밀을 심었는데, 경전선 철도와 국도 2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는 전시, 체험과 공연 행사, 농·특산물 판매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전시관에서는 화귀박영쿨테넬을 비롯해 옛 농기구와 분재, 야생화, 그리고 나뭇 이병주문학 세계가 펼쳐진다. 군방 만들기, 미꾸라지 잡기, 코스모스 탁본, 천연 염색과 박공예, 코스모스 꽃차 등 어린이들의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축제에 먹는 재미가 빠져서는 안 된다. 향토 음식점과 농·특산물 홍보·판매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먹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메밀을 이용한 묵사발, 메밀묵, 메밀국수, 메밀전, 메밀떡 비빔밥 등의 별미 여행이 축제의 흥을 부추긴다.

기간 : ~10월6일

장 소 : 경남 하동군 북한면

직전·이명마을 꽃단지 일원

문의 : 055-880-6331, 2411

홈페이지 : [four.hadong.go.kr](http://four.hadong.go.kr)



### Theme IV

#### 태안 오색 다알리아 꽃축제

계절별 다양한 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태안에서는 다알리아 축제를 개최한다. 톨립축제, 백합꽃축제와 태안빛축제에 이어 열리는 '태안 오색 다알리아 꽃축제'는 올해의 마지막 태안 축제로, 태안군 남면 신온리에서 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감사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약 26만㎡의 대지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주 전시품목인 다알리아를 중심으로 한 다섯 가지 색의 향연이 펼쳐진다. 천일동안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천일홍’과 믿음직한 사랑을 뜻하는 ‘과꽃’, 그리고 메리골드와 리아트리스가 어우러져 자음을 가린다. 이 화려한 컬러 대결이 하이라이트이다.

또한 이번 축제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체험행사가 치러져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체험중 하나가 닥터피쉬 체험.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는 야외에 알은 풀장을 마련했다. 또한 앙무세 체험을 기존 동물 체험과 같이 엮어 운영해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오색다알리아 꽃축제는 태풍 피해가 심해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지난해에 아쉬움을 담아, 더욱 풍성한 가을꽃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주최측의 의지가 돋보인다. [www.festival.co.kr](http://www.festival.co.kr)

기간 : ~10월 20일

장 소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일원, 네이처월드

문의 : 태안꽃축제추진위원회 041-675-7881, 9200

홈페이지 : [www.festival.co.kr](http://www.festival.co.kr)



 **우리와 함께 꽃의 세계로!**

**백합, 톨립, 칼라  
글라디올러스  
초화 종자  
화훼플러그 묘**

**우리화훼종묘(주) 02-503-9094**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84-1 Fax. 02-503-9097 [www.wooriseed.co.kr](http://www.wooriseed.co.kr)



# 10월, 세계 속의 가든이벤트

글 황주리 기자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란 만큼 먹는 것도 보는 것도 풍족해지는 달이다. 한 해 동안 키우고 가꾸은 화훼, 원예 전시 및 대회들이 세계 곳곳에서 10월을 더욱 풍성한 달로 만들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전시회로 미래 그린비즈니스의 동향을 읽어보려 가는 것을 어떨까?

## Iberflora 2013 (10월 2~4일)

장소: 스페인 발렌시아 (Spain Valencia)

올 해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원예, 산림, 화훼, 가드닝, 도시계획, 조경 기술 전시회인 이베르플로라는 스페인의 그 광범위한 테마만큼이나 그 규모도 어마어마 하다. 1917년 시작되어 오늘 날까지 매년 90년간 지속된 이 행사는 231,000m<sup>2</sup>이라는 면적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큰 규모로이고, 가장 현대적인 전시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관 10곳 중에 들어

가는 곳이다. 600개 넘는 전시관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단순히 현존하는 산업의 전시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미래 그린기술산업에 대한 영감을 얻으려 많은 이들이 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가장 최신의 아이디어, 트렌드, 연구 및 개발 된 신상품들을 앞다퉈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구경 한번 해보자는 전시회가 아니라 각각 부스에서의 전문가들과 미래에 대한 토의 및 트렌드 리딩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미래의 동향을 읽고자 하는 'Entrepreneur' 정신이 있는 '가든인' 이라면 서둘러서 스페인으로 날아가자겠다.



Garden & Floral Expo Landscape Ontario (10월 23~24일)

장소: 캐나다 토론토 (Toronto, Canada)

화훼, 원예 기술이나 유통에 국한된 것이 아닌 각종 업종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 바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가든&플로럴 전시회다.

조경건축가, 도급업자, 디자이너, 도구기술자, 온실 재배자는 물론이고 꽃 포장 부티크까지 원예와 화훼 관련 모든 업종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집결지라고 할 수 있다.

도/소매 상, 유통업자부터 각종 삼오너, 농장주까지 산업의 전체 흐름을 꿰고 갈 수 있는 곳이다. 농장주들은 본인이 기른 작물들로 요리행사부터 단체 점심식사행사 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 전시회보다는 축제라는 이름이 더욱 어울릴 수도 있겠다.

이 밖에도 10월 5일 프랑스 물하우스에서 열리는 2013년 프랑스 플로리스트리 챔피언십 (French Floristry Championship 2013), 13~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2013 플로라 페어-투어&택시 (Flora-Fair 2013-Tour & Taxis), 같은 날인 13~14일 프랑스에서는 2013 살롱 노바플로레 (Salon Novafleur 2013)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in**

## Profira 2013 (10월 2~4일)

장소: 콜롬비아 보고타 (Bogota, Colombia)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프로플로라는 격년으로 10월 초에 열리는 행사다. 프로플로라는 생산자, 기술자를 위한 전시회라기보다는 남미대륙에서 화훼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다.

그러한 특정 타겟군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본 전시회는 꽃 생산자들이 주로 전시를 하고 있으며 로컬 화훼농장 투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행사를 통해 셀러-바이어와의 자연스러운 비즈니스방식도 전시회의 묘미로 손꼽힌다.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직접 축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콜롬비아의 화훼 해외 수출이 얼마나 큰 산업인지 대략적으로라도 가늠이 된다.

22년간 본 전시회를 기획해 온 크리스티나 유리코에체아는 본 전시회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거나 환경기금에 투자하는 프로그램에 본 행사의 참여자 모두에게 권유한다"고 했다.

바이어-셀러의 '매치메이킹' 프로그램처럼 진행되는 본 전시회는 작년에 비해 올해 30% 전시면적을 늘릴 정도로 활성화 되었으며 2011년에는 300명의 전시자들과 세계 47개국에서 온 4,775명의 바이어들이 참여했던 기록이 있다.

## IFEX 2013 (10월 9~11일)

장소: 일본 마쿠하리 메세 (Makuhari Messe, Japan)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훼 원예 무역전시회인 국제 꽃박람회인 IFEX (International Flower Expo)는 아시아에서 화훼산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생성 무역의 '성지' 라고 불린다. 아시아 화훼의 최신 트렌드는 모두 이곳에 모여있다고 자부하는 전시회인 만큼 이곳은 '계약체결의 메카'라고도 불린다.

화훼산업 바이어들이 대부분 화훼 및 원예 선진국인 유럽 및 서양으로 집결될 때 아시아에서도 화훼산업이 클 수 있다고 세계 바이어의 눈을 동쪽으로 끌어주는 고마운 전시회이기도 하다. 2011년에는 화훼, 원예 산업 전문가들만 26,846명이 다녀갔다. 10월 중에 열리는 행사 중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잔디 깎는 실습을 골프장에서...

# 우리꽃 아카데미 회원들 골프장에 가다

글·사진 소순복 기자



우리꽃 도시원예아카데미 회원들이 골프장에 갔다. 이날은 불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잔디 깎는 실습을 위해서였다. '골프장에서 잔디 깎는 실습을 한다.' 현 골프장 문화를 감안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골프장 회원들이 들으면 향의가 빗발칠 소리이다. 골프장, 특히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측의 배려 덕분에 아카데미 회원들은 좋은 기회를 갖게 됐다. 실습은 다행히 연습 그린 주변에서 이뤄졌다. 마침 날씨가 더워 라운딩하는 골퍼들이 많지 않았던 것도 다행이었다.

## 골프장, 훌륭한 잔디 상태 돋보여

본지 전문위원이기도 한 김광두(상명대학교) 전교수의 지휘 하에 지난 8월 22일 자유CC에서의 잔디 깎는 실습이 진행됐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자유CC의 잔디상태는 아주 양호해 보였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비가 와도 물이 잘빠지도록 철저히 배수를 관리했고, 갱신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호평했다.

"이곳 그린의 잔디는 한지형 잔디이다. 한지형 잔디는 생육 적정온도가 18~20도로 난지형 잔디보다 낮다. 옹이를 기온이 30도를 넘어 40도 가까이 올라갔는데도 이렇게 좋은 잔디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관리를 잘했다는 증거이다. 특히 잔디 안에 있는 묵은 모래를 빼내고 새 모래를 집어넣어서 잔디의 새 뿌리가 잘 번식되고 튼튼하도록 갱신을 잘했다. 뿌리가 잘린 부분에서 새 뿌리가 나와 더 푸르고 튼튼한 잔디상태를 갖게 한 것이다. 나무도 뿌리를 남겨두고 가지를 자르면 새순이 나오는 것처럼 잔디도 마찬가지이다."

## 아카데미 회원들, 잔디 깎기도 프로

본격적인 잔디 깎는 실습은 연습 그린에서 릴타입 그린모어로 진행됐다. 모어의 가운데를 올리면 전진하는 그린모어는 깎지 않는 부분에서는 들어주어야 잔디 손상을 막을 수 있다. 러프에서는 트랙터모어로 잔디 깎는 실습을 했다. 트랙터모어는 날의 개수에 따라 3갱 5갱 트랙터모어로 구분하는데, 이날 실습은 5갱 모어로 이루어졌다. 이날 아카데미 회원 대부분은 처음 모어의 운전대를 잡았다. 그럼에도 능숙하게 잔디를 깎는 모습은 역시 프로급이었다.

**용어 TIP : 모어, 잔디 깎는 기계(mower) :** 잔디 깎기에 이용되고 있는 장비를 말한다. 잔디 깎기 기계에는 크게 로터리형(rotary-type)과 릴형(reel-type) 등이 있다. 장비 종류에 따라 잔디밭 표면의 품질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관리형에 많이 쓰이는 로터리 모어는 날이 수평으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고풍력인 반면, 잔디가 찢겨지는 등 잔디 표면의 품질은 떨어진다. 반면, 릴모어는 나선형의 회전날과 고정된 밑날이 교차하는 방식으로 잔디 깎기가 되기 때문에 잔디표면의 품질은 우수하지만, 출력이 약한 단점이 있다.

다음부터는 김 교수가 코스 주변을 돌아보며 설명한 내용을 요약했다. 아울러 설명 내용 중 생소한 잔디 용어들을 TIP(팁)으로 덧붙였다.

**김 교수 :** 봄 가을 골프장의 그린 잔디는 2.5~3mm로 깎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여름철은 탄소동화작용 때문에 4mm 정도로 깎아야 한다. 러프에 있는 아지는 예고를 5cm 정도로 유지한다. 그러나 정원에 있는 잔디의 예고는 3cm 정도가 적당하다.

**용어 TIP : 예고 (刈高 cutting mowing height) :** 깎기 기계의 바퀴나 롤러의 접촉면으로부터 잔디가 잘린 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즉 토양 표면으로부터 잔디가 잘려지는 부분까지의 높이로 잔디의 종류, 생리적 조건, 이용목적 및 생육상성에 따라 깎는 높이도 달라진다.

**김 교수 :** 보식하기 위해 잔디를 기계로 뜯어냈다. 그 사이로 잡초 방동사니가 자랐다. 방동사니는 뽑아서 없애주고 배토를 해주어야 잔디가 다시 돋는다.

**용어 TIP : 보식(補植) :** 잔디가 훼손되었을 경우, 훼손된 잔디를 건전한 잔디로 교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배토 :** 잔디를 갱신하거나 고품질 잔디면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잔디 위에 흙 또는 모래를 뿌리는 작업이다.

**방동사니 :** 들이나 밭 근처에 나는 1년생 잡초로 키는 10~60cm에 달한다. 줄기는 삼각형이고 잎은 뿌리에서 나오고 화경에서는 호생한다. 폭 2~6mm로 선형이다. 화경에는 잎 같은 포가 나옴과 길이가 다른 가지가 갈라져 많은 잔이삭이 달린다.

**김 교수 :** 페어웨이 중간부분에 나선형 같은 길이었다. 이는 트랜치를 해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마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빠지지 않는 것을 대비해 물길을 유도한 것으로 보면 된다.

**용어 TIP : 트랜치 (trench) :** 관수 또는 배수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깊이로 파낸 골을 말하며 이러한 기능을 하는 기계를 트랜처(trencher)라고 한다.



## 잔디 깎는 사용 팁



▲ 스로틀을 온으로 전환하고 전원을 켜.

▲ 밧을 당긴다.

▲ 아래로 간 레버를 위로 올리면 앞으로 전진한다.



## 잔디 병해의 종류

여름철은 잔디가 물살을 앓는다. 이곳 골프장은 전반적으로 잔디 관리가 훌륭했다. 그럼에도 살짝 브라운패치 병징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벤트그라스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잔디밭에서는 탄저병과 피시움브라이트 등도 여름에 발병하는데, 이들은 낮이 되면 빨갛게 탄다.

이들 병해만 잡을 수 있으면 좋은 그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특히 "모든 병충해는 예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골프장뿐만 아니라 잔디밭에서 자주 발생하는 잔디 병해의 종류와 그 방제법들을 알아보자. 참고로 방제법은 환경요인을 제어하는 방제법, 경정적 방제법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자료 한국잔디연구소(www.ktri.or.kr)

### 라지패치 Large patch

잔디 중간에 마치 원형을 폭탄을 맞은 것처럼 잔디가 검게 죽어가고 결국은 뿌리까지 썩어버리는 병. 봄과 가을에 발생하며 잔디의 암이라고도 한다. 심할 경우 반경이 5m이상 크게 발생하기도 한다.



**방제법** : 병반지의 잔디를 제거한 후 간단한 잔디로 보식하는 것이 일반관행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병반지의 잔디를 잔디로 교체하더라도 주위의 건강한 잔디에도 이미 병원균이 퍼져 보식 잔디의 외곽에서부터 다시 발병되기 때문이다. 병반지를 보식할 때에는 반드시 약제방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 브라운패치(갈색잎마름병) Brown patch

패치의 형태 및 색깔은 발병시기의 잔디상태, 수분조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고가 낮은 벤트그라스 잔디의 경우 매우 습할

때에는 패치의 가장자리에 암회색의 경계부위가 나타난다. 스모크링(smoke ring)과 같은 형태로 건조할 때에는 패치의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여 고사한다.



**방제법** : 대취를 제거하고, 과도한 관수는 피한다. 불필요한 낮은 예고를 피하고, 질소질 비료를 과다하게 주지 말고 질소결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인산비료가 결핍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봄철의 잔디 생육기에는 버티칼로잉과 에어레이션을 강하게 실시하여 대취를 제거하고 잔디의 밀도도 낮추어 준다.

### 피시움브라이트 Pythium blight

따뜻하고 습한 기후 조건이 되면 지름 2~3cm의 원형 병반이 갑자기 나타난다. 감염 초기에는 잔디 잎이 수침상으로 되며, 이른 아침에는 암회색으로 나타난다. 정오쯤 되어 햇살에 의해서 이슬이 마르고 건조해지면 밝은 황갈색으로 되어 병반부위가 급속히 시들고 갈변하며 주저앉게 된다.



**방제법** :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린의 조성시 표면배수 및 수직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 그린은 봄철의 통기작업을 통해 수직배수성을 증대시키며, 6월부터는 속효성 질소질비료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 달러스팟 Dollar spot

예고가 높은 가정용 잔디에서는 2~15cm의 불규

칙한 표백된 패치로 나타난다. 감염된 잔디 잎의 병반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처음에는 황화된 형태로 나타나다 수침상으로 변하고 결국 보릿짚 색깔로 바래게 된다.



**방제법** : 발병시기에 질소 시비량을 높이고 살수는 습도 스트레스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능한 한 번에 충분히 하고 자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살수를 피하는 것이 좋다. 농약에 의한 방제로는 지효성 농약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프로수화제가 우수한 효과가 있다.

### 탄저병 Anthracnose

6월부터 10월에 걸쳐 고온 다습한 시기에 그린에 주로 발생하는데 발병 초기에는 잔디 잎이 담황색을 나타내며, 병이 진전함에 따라 적갈색으로 말라죽는다. 병든 잔디 앞에는 수많은 초생달 모양의 포자를 형성하고 눈썹 모양의 강모를 형성함으로써 기타의 엽고성 병과의 구분된다



**방제법** : 적절하게 시비를 하고, 집중담수에 의한 토양의 고결을 완화시키고 적절한 살수를 통하여 발병을 줄일 수 있다. 인산과 칼리가 결핍하지 않도록 균형시비를 하고 건조하고 고온기에 질소시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한다. 살수는 잔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로 가끔씩 하고 한번에 충분히 하여야 한다. 늦은 오후나 야간에는 살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호쾌한 티샷

## 장타자들이 선호하는 골프장 자유CC



자유CC는 수려한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골프장이다. 지난 1993년 개장하여 지금은 신세계에서 운영하고 있고, 18홀(파 72) 회원제 골프장으로 코스 레이아웃이나 그린상태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까운 여주에 위치하여 접근성 또한 좋다. 넓은 페어웨이와 전장이 길어 장타자들이 선호하고 있고, 탁트인 조망도 압권이다.

### 매 홀 개성 있는 편안한 코스

거의 모든 홀이 OB가 없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골퍼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도그레그홀이 없으며 엷다운 또한 극히 적은 평탄한 코스이다. 6개의 전략홀과 쉬운 듯 공략하기에만 치 않은 4개 홀이 전체 코스에 리듬감을 더해준다. 매 홀마다 저마다 독특한 개성으로 골퍼들의 도전욕을 불러일으키고, 골프장 방문객을 처음 맞이 클럽하우스 역시 중후한 멋이 돋보인다. 캐디의 친절함도 인기를 더하는 비결이다.

### 품격을 더하는 조경 수목들

자유CC에서는 소나무를 많이 볼 수 있다. 메인조경수로 소나무를 활용해 골프장의 품격을 더했다. 클럽하우스에서 코스로 이어지는 진입로에서는 활짝 핀 능소화의 자태가 시선을 모른다. 주황색이 선명하고 화려하다. 잣나무의 열매도 탐스럽고, 키 큰 칠엽수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되어줄 만큼 울창하다. 잎이 7개여서 칠엽수라 불리지만 요즘은 7개가 아닌 돌연변이도 종종 눈에 띄어 전문가들을 당혹케 한다는 것이 김광두 교수의 설명. 그는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 나무라고 소개했다. 자연을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충고도 덧붙였다. **in**



### 골프 기본 상식

**18홀** : 대부분의 회원제는 18개의 홀로 운영된다.  
**1개홀** : 코스 길이에 따라 파3, 파4, 파5 홀로 나뉜다.  
**파3(숫홀)** : 3타 만에 홀을 끝내야 한다는 것. 홀인원이 나오는 홀.  
**72타** : 18홀을 끝내야 하는 기본 타수.  
**티잉그라운드** : 티샷을 하는 곳.  
**페어웨이** : 티샷한 볼이 떨어지는 지점 중심으로 펼쳐진 잔디.  
**그린** : 홀컵이 있어 퍼팅을 하는 곳.  
**라프** : 잔디가 무성한 곳.  
 **bunker** : 코스 중간 중간에 있는 모래 웅덩이.  
**해저드** : 연못이나 호수.





## 정원으로 꿈 꾸는 사람들 박수환의 하늘 정원

글·사진 우정아 가든디자이너

서울의 빌딩 숲 사이를 걷고 있으면 정난감 블록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든다. 정리 정돈은 잘 되어 있지만 알 수 없는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은 자연이 가슴에 새겨 놓은 흔적 때문인가 싶다. 도시에서 자연에 대한 모방은 태아의 양수처럼 편안함의 기억을 찾는 것이리라. 서초동 빌딩 숲 사이에 숨어 있는 옥상 정원. 큰 공간은 아니지만 안식처 같은 곳이 하늘 아래 조성되어 있다.



### 3개의 테마 정원으로 조성된 옥상 정원

박수환(55) 대표가 회사 사옥을 건축하면서 2011년에 조성한 옥상 정원은 약 200㎡ (60평) 규모에 최상층을 옥상 잔디정원과 데크 정원, 주정원 등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눈을 정화시키는 듯한 잔디 정원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공간에 잔디만 식재하여 저관리형 옥상 정원으로 접근했다. 잔디만을 식재함으로써 토양의 높이를 최소화해 하중을 줄였고, 기본적인 단열효과나 에너지 절감, 산성비에 대한 건물 보호 기능, 방음기능 등을 가능하게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접근이 쉽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

한 데크 정원은 전체적으로 방부목을 깔았고, 방부목 플랜트 박스를 제작하여 저관리형으로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다. 방부목 데크의 마감과 플랜트 박스는 짓은 왕래에도 유지 및 관리가 쉽고, 심플한 공간미를 더했다.

플랜트 박스 외곽으로 벤치를 만들어 휴식 공간을 조성했고, 파라솔과 테이블을 배치해 많은 도시민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있는 배려도 돋보인다.

비즈니스룸과 함께 조성된 주정원은 외국 바이어들에게 간단한 다과와 차를 접대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된다고 한다. 소나무가 추가 되고 산수유, 오죽, 능수형 단풍나무, 화살나무, 남천, 측백나무, 철쭉 등과 사샤, 맥문동, 수호초, 계절 초화류로 관리형, 동양적인 식재를 선택했다.

식재 식물간의 경계선을 라운드로 돌려 안정감을 주었고, 일본식 정원에서 볼 수 있는 돌로 공간 연출을 해 물 공간이 존재하는 듯 했다. 석등과 무사 인형 등의 재료들도 소소한 재미를 느끼게 했다. 박대표는 "아직은 과도기적 과정으로 정확한 테마를 잡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식 정원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앞으로 계획"이라고 말한다.

### 가드너로의 입문 "잔디관리가 가장 힘들어"

박 대표는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원을 조성한 후 대부분의 식물이 잎이 마르거나 누렇게 변해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관리 업체에 위탁도 고려해 봤지만, 하나 둘 손이 갈수록 정가는 정







원을 직접 관리하고 싶어서 책을 사고, 인터넷으로 궁금한 것을 찾아가며 관리하고 있다.

오죽대를 엮어 주고, 소나무를 정지 전정해 주고, 철쭉 꽃이 지면 바로 가지치기를 해 모양을 만들어야 다음해에 꽃을 볼 수 있다는 것과 보석, 비료와 방제에 관한 모든 것들이 생소했지만, 백지에 글 쓰듯 채워 나가는 중이다.

그 중에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잔디 관리. 잔디 식재 후 부분적인 고사가 일어나 골프장에서 조언을 듣거나 지인에게 자문을 구해 차츰 안정적인 식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잔디는 뿌리가 완전히 내릴 때까지 관수를

자주 해 주어야 하고 뿌리가 활착되면 정기적으로 관수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번 관수시 잔디가 폭 젖을 정도로 관수해야 하며, 여름 한낮의 관수는 잎이 탈 수 있어서 피해야 한다. 겨울 오후 늦게하는 관수는 동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비료는 잔디 전용 비료로 연 4~6회 시비하고, 병해충 방제는 연 1회 정도 하고 있다.

#### 직원간 와인 한잔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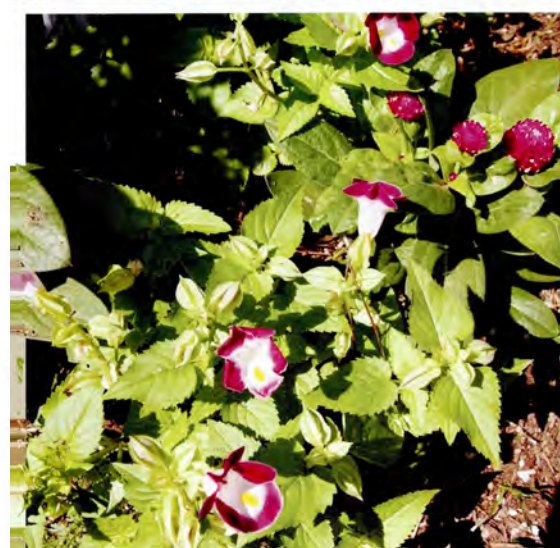
빈도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고, 자택 또한 아파트와 성남갑 속에 사는 듯한 답답함을 비워 줄 무언가가 필요했

다. 또한 예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 주고 싶어 정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 수다와 도시락, 커피를 즐기는 직원들과 마주칠 수 있다. 가끔 직원들과 일 관계로 언성이 높아져도 저녁 무렵 올라와 와인 한잔씩 나누면 앙금도 없어진다.

정원을 조성하고 직원들과 함께 관리하면서 서로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가족 같은 믿음도 생겼다.

앞으로도 정원에서 더 많은 꿈을 찾고 싶다는 그의 푸른 미소가 아름답게 느껴진다. 



Tip

### 옥상 정원을 조성하려면...

옥상 정원은 인간과 자연이 가장 가까운 동선에서 공존할 수 있는 도시형 녹화이다. 옥상이라는 공간에 식물이 생장하면서 도시의 복사열, 인공열 등을 식혀주고, 대기오염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소음을 줄이며, 냉, 난방 에너지의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와 함께 아름다운 경관에 별과 나비, 새 등이 날아드는 도시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건물이 얼마나 하중을 견디느냐는 것이다.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토양의 높이와 식재할 수 있는 식물군이 달라지며, 부수적인 연못이나 침정물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다면 관리, 종량형 옥상녹화로 나무류, 초화류를 식재하고 부수적인 파고라 연못, 장식물을 설치할 수 있다.

옥상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콘크리트 옥상면 위에 방수층을 만들고, 방근층을 만들어 누수를 방지해야 하고 배수판으로 배수층을 마련한다. 토양의 유실을 막기 위해 부직포로 마감하는 것이 기본이다. 요즘은 다양한 옥상 녹화 시스템의 개발로 어려운 과정 없이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가 적당하다. 잔디나 세덤류로 토양의 깊이가 알아도 잘 자라는 식물군을 선택하여 식재해야 한다. 관리, 종량형 옥상녹화는 여러 가지 식물군이 공존하기 때문에 경관은 아름다우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는 일단 식물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가 쉽다는 장단점이 있다.



## (주) 조아 이앤디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 디자인

◆ 공원 · 옥상정원 · 주택정원 · 벽면녹화 등 일체 조경 설계 취급.

◆ 관공서 · 민간 조경 설계 전문 업체.

조아이앤디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을 설계하고 계절별로 변화하는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며, **자연 · 인간 · 환경**이 하나되는 공간으로 책임지고 바쁘게 노력하겠습니다.

(주) 조아 이앤디 JoA E&D co., Ltd

TEL 031-726-0610  
Fax 031-726-0620



스코틀랜드의

# Cottage garden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손관화교수 <http://sohn.yonam.ac.kr>



영국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인 포레스(Forres)에서 교외로 들어가자 나무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는 숲이 나온다. 그 숲으로 들어가니 작은 시골집 두 채가 보였다. 이곳은 핀드혼 가든(가든인 9월호에 소개) 교 육을 받을 때 초청된 특강자 요정연구가가 살고 있는 집이다. 10월이라 대부분 꽃은 시들었고 낙엽이 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시골집이었다.



이 코티지 가든(cottage garden)은 전정과 넓은 후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축정은 전정에서 후정으로 가는 통로로만 이용되었다. 전정은 꽃을 심는 식재공간과 현관으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후정으로 들어가는 길 외엔 잔디로 깔았고, 후정에는 넓은 잔디밭 사이사이에 식재공간을 만들어 꽃과 관목을 심었다. 한쪽으로는 작은 유리 온실과 키친가든, 그리고 퇴비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숲과 정원의 경계에는 돌벽이 있고 후정의 끝에는 키 큰 나무를 심은 식재공간을 만들어 텃집을 가려주었다. 잔디밭에는 멋진 벤치가 놓여 있었다. 봄이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이었을까 상상해보았다.

오늘날 정원의 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코티지 가든은 자연스러운 선이나 모양으로 정원의 형태를 만들고 전통적인 재료를 많이 이용하면서 식물을 가득 심는다. 장식용 식물뿐만 아니라 식용식물을 심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시골집 정원이다. 영국에서 유래된 초기의 코티지 가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채소나 허브를 많이 심었고 과수와 벌통, 가축까지 있는 정원으로 이들 사이사이에 꽃을 심었다. 그러나 지금은 꽃을 더 많이 심으면서 지역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숲속의 요정연구가는 항상 하얀색 옷을 입고 정원을 가꾼다. 꽃을 잘라야 할 때도 식물을 옮겨야 할 때도 흰옷을 입는다. 꽃과 식물의 요정이나 데바(deva)와 직접 소통은 못하지만 꽃과 식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소중히 다루면서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보는 것 같았다. 그는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 유명 가든디자이너의 책을 참고로 하고 있었다. 집안으로 들어가자 향기로운 차를 대접하면서 소장하고 있는 요정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요정의 사진이었다. in



폭포의 웅장함과 식물원 예술미의 조화

# Niagara Park Botanical Gardens



글·사진 황한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학과 교수



정미원 정경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 걸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다. 5대호 중에서 이리호와 온타리오호로 통하는 나이아가라강이 폭포를 만든다. 폭포의 주변은 경치가 아름다워 공원화 되어 있으며, 교통과 관광시설이 정비되어 있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다. 이곳에는 세계적인 가드너 교육기관인 원예학교와 나이아가라식물원이 있어 더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꽃시계



나비원 전경

## 나이아가라식물원, 북미 최대 나비원과 유리 온실 운영

식물원의 유래는 1930년대 초부터 나이아가라폭포 주변의 공원을 확대 개발하기로 계획을 세우면서 숙련된 정원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고, 1936년 나이아가라 공원위원회에서 초급정원사훈련 학교(The Training School for Apprentice Gardeners)를 설립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59년에 나이아가라공원위원회 원예학교(The Niagara Parks Commission School of Horticulture)로 이름이 바뀌었다.

늘어난 수집 식물과 잘 가꾸어진 캠퍼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0년에 나이아가라공원식물원 및 원예학교(Niagara Parks Botanical Gardens and School of Horticulture)로 이름을 다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93년부터 3,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장기적인 식물원 및 공원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1996년에는 북미에서 가장 큰 나비원과 원예식물 생산용 유리 온실 등을 완성하였다.



나비원 내부

## 나비원을 중심으로 채소원 암석원 등 조성

나이아가라식물원은 나비원을 중심으로 허브원, 숙근초원, 채소원, 장미원, 암석원, 관목을 이용한 경계화단, 화단용 초화류 전시원, 왜성 침엽수원, 만병초원, 수백 종류의 수목과 관목으로 채워진 수목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원





다양한 초화류를 조성한 경치화



부여정원



온천나무



장미원 부분



장미원 화단



캐나다 국기모양의 입체화단

나비원(Butterfly Garden)은 나이아가라 식물원에 있던 열대식물 온실을 개조하여 1996년에 개원하였으며 다양한 열대 관엽식물과 아름다운 나비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2000마리 이상의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으며, 세계 6개 언어로 된 음성 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공원 온실, 열대식물과 관상 조류 전시

1945년에 나이아가라공원 위원회에 의하여 세워진 나이아가라 공원온실(Niagara Parks Greenhouse)은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폭포에서 약 500m 남쪽에 있다. 약 300평 면적의 온실에 다양한 열대식물과 관상 조류를 볼 수 있다. 1980년에 리셉션 센터와 전시관이 추가로 건축되었다. 연중 오전 9시30분부터 개원하며 무료이다. 봄철 특별전시, 부활절 전시, 수국 전시, 제라늄 전시, 여름 특별전시, 베고니아 전시, 국화 전시, 크리스마스 전시 등이 연중 개최되고 겨울에는 겨울 불빛 축제(Winter Festival of Lights)로 유명하다. 온실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와 조각상들은 화려한 정미들과 어우러져 경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또 공원에는 맹인을 위한 정원이 1985년에 조성되어 식물에 점자 식별표찰이 부착되어 있기도 하다.

### 허브원, 각종 방향성 식물과 허브 전시

향기원(Fragrance Garden)은 나이아가라 공원온실(Niagara Parks Greenhouse) 옆에 있으며 각종 방향성 식물과 허브를 감상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해설판도 일부 설치되어 있다. 꽃시계는 1950년에 온타리오 하이드로(Ontario Hydro)에 만들어진 것

을 이곳으로 이전한 것이다. 2년마다 시계문양이 교체되며 매년 16,000본의 초화류가 사용된다.

주요 수집 식물군에는 버드나무과, 콩과, 자작나무과, 피나무과, 너도밤나무과, 측백나무과, 느릅나무과, 뽕나무과, 버즘나무과, 칠엽수과, 소나무과, 층층나무과, 단풍나무과, 장미과, 은행나무과, 물푸레나무과, 무환자나무과, 감나무과, 두릅나무과, 조록나무과, 주목과, 가래나무과 등이 있다.

### 연중 무료, 식물과 정원에 관한 풍부한 경험 제공

나이아가라식물원의 관리에 부설 원예학교 학생들의 실습활동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점도 이 식물원의 특징이다. 모든 학생이 매일 학교 캠퍼스 측 식물원에서 다양한 원예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이론과 실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식물원 곳곳에 식재되는 초화류들은 모두 자체적으로 생산된 것이라고 한다.

사시사철 관람객에게 식물의 세계와 정원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나이아가라식물원은 연중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무료로 개방되고 있지만, 나비원에는 별도의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웅장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람한 후에, 연중 약75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아름다운 나이아가라식물원을 한바퀴 방문하여 보기를 권하여 본다. [▶](#)

‘본기사의 내용과 사진은 신구문화사에서 출간한 (2013년) <세계의 식물원 산책 1>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저자가 재편집하여 수록한 것입니다.’



연못정원의 수생식물



여름철 연못화단





▲ 토렌스에 있는 암스트롱의 표지판 로고와 전경



▲ 각종 초화류를 어렌지하여 식재한 모듈식재화본



▲ 건물입구에 장식해 놓은 컨테이너 조경



▲ 공중조경을 패튜니아

## 미국의 거대 화훼상품 판매장 암스트롱 가든

글·사진 윤명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미국만큼 화훼종류와 조경시설물들이 다양한 나라도 없는 것 같다. 물론 각 지역의 기후에 따라 화훼식물 유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열대 관엽식물이나 선인장류, 허브류, 채소류 등이 다양하게 집하되어 팔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이번호에서는 미국에서 거대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화훼판매상회, 암스트롱 가든을 소개하고자 한다.

▼ 매장에 전시해 놓은 로고 동상과 조경



▼ 선인장 코너에 배치한 선인장들



### 40여개의 브랜치를 운영하는 거대 소매상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암스트롱 가든은 약 40여개의 브랜치를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체제의 소매상이다. 필자는 암스트롱 가든의 브랜치 중 거대 판매장을 갖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토렌스를 방문했다. 규모가 1만5,000평에 달하는 가든에는 5000여평의 주차장과 2000여평의 집하장이 들어서 있고, 약 1000평에는 상품을 전시해 놓은 조경 전시장이 있다. 또 200평 정도의 건물에는 실내 관엽식물과 농약, 종자판매대, 난초류, 분재류 코너, 조경자재류 코너, 토피어리 코너, 바비큐시설물 등이 있고 외부로는 일년초화류와 선인장류, 허브식물류, 과수류, 채소류, 관상수류, 각종 화분과 용기(container)류, 각종 트렐리스(trellis)류 등 원예 총 집하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 도매상으로부터 물건 조달받아 판매

업무 종사자로는 근로자부터 매니저까지 약 30여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판매물건을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과 총지배인이 있고 부지배인이 두 명이 있다. 판매대의 직원은 네 다섯 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자기 업무 외에도 쉬지 않고 손님들 안내하고 물을 주고

▼ 판매를 위한 야외 테이블을 실내에 전시하고 있다.



▼ 패튜니아나 기타식물들을 공중걸이용으로 장식하기 위한 퍼골라



▲ 스킨십서스 '엔 조이'를 장식해 놓은 벽면식물





▲ 각종 컨테이너들



▲ 구근식물들을 심기 위한 컨테이너들



▲ 다양한 형태의 트렐리스



▲ 여러가지 형태의 컨테이너들

▼ 판매를 위한 토피어리 코너



청소하고 기타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구매자들은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화초를 카트에 담아 계산대로 가지고 오고, 일꾼들은 전기차로 모든 짐들을 나른다. 완전히 백화점 시스템이다.

이곳의 식물들은 미국의 큰 기업체인 Proven Winners나 Monrovia와 같은 큰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조달받아 판매한다. 일부는 Ball seed로부터 종자를 구매하여 직접 생산하여 각 브랜드에 보내어 판매하고, 회사 화훼식물들은 군소 화훼업자들로부터 직접 구매를 하여 판매하고 있다.

### 최근의 트렌드 '컨테이너 식물' 이 대세

이곳 매니저의 설명에 의하면 미국도 흙을 만지는 세대가 사라져가면서 원예산업도 전문업종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흙을 만지고 화초를 심어 가꾸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흙을 만지는 세대가 사라지면서 완전하게 식물을 심어 놓은 컨테이너 식물이 잘 팔린다고 한다.

또 하나 이색적인 것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저온처리가 필요한 식물들은 아

래 구매하지를 않는다고 한다. 개나리 같은 경우 오래된 쪽에서 겨울을 나고 봄에 캘리포니아에 내려오면 그해는 꽃이 피지만 그 다음해는 저온처리가 안되어 꽃이 피지 않게 되는데 이때 구매한 사람들이 환불을 요구해 갖다놓지 않는다고 한다.

### 다양한 완성품으로 불경기가 없는 호황

각 화분마다 식물 라벨이 꽂혀있다는 사실도 놀랍다. 구매인들의 요구에 의해 법제화되어 필수적으로 꽃아 놓아야만 팔수가 있다고 하는데, 라벨 디자인도 구구각각이다. 꽃아놓는 것과 매달아 놓는 것, 붙들어 매는 것, 걸고리가 있어 걸어놓는 것 등 다양하다. 라벨도 분해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식물을 팔기 위해서 그 식물의 완성품인 식물을 전시해 놓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페튜니아를 소형 화분에 심어 놓은 것을 팔기 위해 커다란 행잉 바스켓을 만들어 장식한다던지 아이비를 팔기 위해 아이비로 토피어리를 만들어 전시해 구매 충동을 일으키고 있다. 고객은 끊임없이 들락거린다. 이곳에 불경기는 없는 듯 싶다. 🌱

▼ 각종 식물들의 학명과 보통명, 재배 관리법을 구매자들에게 알려주기위한 라벨들



▼ 판매를 위한 황아리나 수도펄무, 화분등의 청원시설물들



▼ 판매 상품으로 전시된 컨테이너들



▼ 판매 상품으로 전시된 컨테이너들



▼ 판매하고 있는 지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트렐리스





## 파파야와 파프리카 소스를 곁들인 별미 보쌈

## 아롱아롱 차돌 보쌈 구이

글 사진 윤자영 (요리연구가)

슈퍼에 갈 때마다 보이는 뻔한 재료들로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고기의 담백함과 채소의 영양까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차돌 쌈 구이를 추천한다. 색깔과 영양까지 고려한 차돌 쌈 구이는 이국적인 파파야 소스와 어우러져 새로운 미각을 자극한다. 파프리카와 파파야의 화려한 색채가 어우러져 아이들 간식으로도 추천할 만하다.



## 재료

노란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취향에 따라 다른 색을 골라도 무방), 파파야, 차돌, 느타리버섯, 삶은 토란대, 부추조금

## 파파야

파파야의 주황색에는 눈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등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풍부한 엽산 성분으로 임신부에게 좋은 열매로 알려져 있다.

## 노란파프리카

오렌지의 3배나 되는 비타민을 함유한 노란 파프리카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생체리듬을 조절한다. 또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산화물에 대응하는 항산화 성분의 보고이기도 하다.

## 빨간파프리카

빨간파프리카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는 물론 주름살 감소에도 탁월하다. 골다공증 및 전립선관련 질병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1. 냉동 차돌박이는 냉장실에서 해동을 한다.

2. 파프리카 씨를 제거한 뒤 얇게 썰어 둔다. 이때 차돌박이의 높이를 생각하여 5~6cm로 준비하는 것이 보기 좋다. 파프리카는 먹을 만큼 준비하는데 2인 기준으로 파프리카 한 개 당, 반은 소스용으로 반은 채로 썰어 준비한다. 소스용은 갈기 쉽게 큼직큼직 썰어 믹서기에 담아 파파야와 함께 갈기로 한다.



3. 느타리버섯 역시 같은 길이로 얇게 찢어 준비한다.

4. 파파야는 노란색으로 잘 익은 것을 골라 반을 가른다. 파파야 겹질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스티커의 색깔과 파파야의 색깔이 비슷하면 적당히 잘 익은 것이다. 파파야를 가르면 검정 씨들이 개구리 알처럼 중간부분에 모여 있는데 스푼으로 잘 파내어 씨를 제거한다. 재배할 자신이 없으면 씨를 잘 말려서 파파야를 키워볼 수도 있겠다.

5. 파파야의 겹질을 소스그릇으로 이용하기 위해 '배' 모양으로 준비하기로 한다. 둘레를 1cm씩 잡고 과육을 믹서기에 도려낸다. 이때 과육은 파프리카와 함께 소스로 이용할 것이므로 예쁘게 도려낼 필요는 없다.

6. 부추도 같은 길이로 조금만 준비하여 색깔을 맞춰준다.



7. 잘 삶은 토란대는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굵은 토란대를 실처럼 잘게 찢어 둔다. 너무 얇게 찢으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일단 0.3cm정도로 끊어 길게 찢어두자.

8. 해동된 차돌박이를 그릇에 펴고 쌈을 쌀 준비를 한다. 이때 해동이 되어 잘 찢겨지는 것을 염두하고 두 장을 겹쳐 빈틈이 없게 떠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9. 파프리카, 느타리버섯, 부추를 넣고 잘 돌려서 썬 뒤, 토란대로 중간 부분을 감아 묶는다.

10. 파프리카와 남은 파파야 과육을 함께 넣고 믹서기에 갈아준 후, 배 모양으로 속을 파 둔 파파야 겹질에 붓는다. 참고로 사진은 도깨비방망이를 이용하였다.

11. 준비한 차돌 쌈을 불판에 구운 뒤 파파야 소스와 함께 내 놓는다.

12. 준비한 요리가 양이 차지 않는다면 차돌박이를 그냥 구워서 먹는다. 이때 소금장이나 쌈장 대신 파프리카와 파파야 소스를 곁들이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색감이 화려해서 '아롱아롱 차돌 보쌈구이' 라고 이름을 붙여봤다. 이 요리는 파프리카와 느타리, 부추, 토란줄기까지 각 재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이 고기의 육즙과 함께 어우러져 풍부하고 깊은 맛을 연출한다. 특히 파파야와 파프리카의 달콤하고 시원한 소스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맛과 기분까지 더해 준다. 캠핑장에서는 물론 손님상까지 불판을 사용하는 요리에 응용한다면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 in



## 라벤다 로즈마리는 월동이 어렵습니다.

**Q** 허브 키우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원에 라벤다 로즈마리 등을 심었는데 잘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정원에 심으면 좋은 허브도 추천해 주십시오.

**A** 허브란 뿌리, 줄기 꽃을 가지고 약이나 향료로 쓸 수 있는 식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에게 알려진 허브는 잎이나 줄기에서 강하게 자극하는 향이 많이 나는 식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우리나라의 여름 장마기 때 너무 많이 자라 스스로 녹아 버리는 경우가 많고, 겨울철에 월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경용으로 식재하는 식물들은 생육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월동이 가능한지 체크해야 하고, 많이 자랐을 때 적기에 전정을 해주어야 생육이 양호합니다. 독자께서 정원에 심은 라벤다나 로즈마리는 중부권에서 월동이 어렵습니다.

정원에 심기 좋은 허브로는 우리나라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섬백리향, 산마늘, 배초향, 톱풀, 박하, 총꽃 등이 생육이 강건하고 관리의 문제가 없어 좋습니다. 또한 숙근사르비바나 모나다, 톱풀류, 꽃파, 에키네시아 등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어 정원에 심기 좋은 허브로 추천할 만합니다.



## 식물은 생육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 심으세요

**Q** 인터넷에서 식물을 모아 심는 것을 보았는데 저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식물 모아 심기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식물을 모아 심을 때는 생육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심어야 합니다. 모아 심었을 때 물주기가 용이하게 잎이 얇은 것은 얇은 것끼리, 잎이 두꺼운 것은 두꺼운 것끼리 식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크기의 식물을 모아 심는 것보다는 키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을 모아 심는 것이 모든 식물을 돋보이게 합니다. 디쉬가든, 테라리움 등의 디자인이나 플랜트 박스를 활용하면 식물에 대한 정리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 화분의 색을 통일해야 안정되고 깔끔해요

**Q** 집안에 식물이 많아서 그런지 산만하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식물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식물이 많다고 지저분해보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잎이 모두 다 초록색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즉 화분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화분을 살 때 통일감 있게 선택하세요. 화분의 색깔이나 디자인만 통일해도 정원이 정리된 느낌을 줍니다.

정원 디자인에서 통일감은 서로 다른 형태의 사물과 공간을 하나의 균형 잡힌 형태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 요소입니다. 변화를 주고 싶다면 통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하십시오. 예를 들어 진한 녹색 잎아라우카리아, 동백, 관음죽, 맥문동 등을 가진 식물 사이에 연한 녹색을 지닌 식물(아스플레니움, 네프로네페스, 아디안텀 등)을 식재함으로써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또 거친 질감의 식물 사이에 부드러운 질감의 식물로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약 집이 좁다면 식물의 색으로 집안을 넓어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밝은 색과 광택이 나는 식물을 사용하면 집안이 넓어 보입니다. 집안이 넓어서 행할 때는 진한 색과 여린 색의 조화를 이뤄서 포근해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수경가든의 물은 흘러넘치도록 해서 갈아주세요

**Q** 지난 6월 수경가든을 만들었는데 물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수경가든은 물을 갈아주지 않아도 되어 관리가 쉽고, 물이 줄어든 만큼 채워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위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뜨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처치가 곤란합니다.

**A** 맞습니다. 수경가든은 관리가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만들 당시 마사토를 넣지 않은 것 같군요. 그랬을 경우 흙의 분비물이 지저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물이 넘치게 하여 물을 갈아주십시오.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가든이 망가질 수 있으니, 유리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가 희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5분 정도 그대로 두면 불순물이 넘쳐서 빠져 나가게 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소발생기를 넣어도 좋습니다. 단 산소발생기의 소리가 시끄러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수경가든에 액체비료를 조금 넣어주시면 더 잘 자랍니다. 수경가든은 가습효과와 함께 공기정화효과, 시각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주어서 가정에서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수경가든에 열대어를 함께 키워도 좋습니다. 특히 식탁 위를 수경가든으로 장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경가든은 흙이 날리지 않기 때문에, 식탁 위에 디쉬가든이나 화분을 놓는 것보다 좋습니다.

## 열과 현상은 건조와 과습이 반복되는 경우 심합니다

**Q** 방울토마토를 재배했는데, 자주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A** 수분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가뭄이 들었다가 비가 오면 수분의 저장능력이 부족해서 터지는 과일이 갈라지는 현상을 열과라고 합니다. 주로 과일의 성숙기에 많이 발생하는 데 건조와 과습이 갑자기 반복되는 경우에 심합니다. 즉 열과 현상은 과피와 과육부의 발달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과피보다 과육이 먼저 발달하게 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기물 등을 시비해 뿌리의 신장을 좋게 하고 토양이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건조와 과습을 피하고 질소질 비료의 과용을 피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크면 가지는 따주고, 원예용복합비료 하나 넣어주면 잘 자랍니다.



## 가지의 잎은 수시로 따주어야 잘 자랍니다

**Q** 주말농장에서 가지를 키우고 있는데, 가지가 많이 열리지 않았어요.

**A** 가지는 꽃이 피면 그 아래에 있는 잎은 따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큼니다. 잎을 따주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수시로 복잡한 곳의 연약해진 잎과 줄기를 잘라주어 아래쪽에 열려 있는 가지 열매에 햇빛이 잘 들도록 해줍니다. 햇빛이 잘 들어야 열매 색깔도 좋습니다. 수확은 품종 및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개화 후 10~20일 경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농장이면 조금 어린 가지를 수확해 먹는 편이 유리합니다. 열매가 어리다고 조금 기다려다 보면 어느새 너무 자라 단단한 열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무 익으면 쓴맛이 생기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가지는 10월 서리가 내릴 때까지 열매를 맺고 자라기 때문에 밀거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름 성분이 떨어지면 열매가 부실해지고 줄기가 잘 자라지 못하므로, 1개월 간격으로 웃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가지는 17°C 이하이면 생육이 떨어지고 7~8°C 이하에서는 저온피해를 입게 되며, 특히 서리에 약합니다.





고구마는 첫 서리 후  
바로 캐내는 것이 당도가 높습니다

**Q** 고구마에 심이 생긴 것은 먹을 때마다 걸려서 먹기도 쉽고, 식감도 떨어져요. 그런데 텃밭에서 수확한 고구마에서 심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영양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고구마 전용 비료가 있으니 그것을 사다 넣어주어도 됩니다. 고구마는 물 빠짐이 특히 좋아야 하며 통기성이 우수한 밭을 골라 심어야 합니다. 고구마를 심을 때는 퇴비를 조금 적게 넣고 갈아둡니다. 퇴비를 많이 넣으면 질소질이 많아져 잎과 줄기만 무성해지고 잎이 들지 않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퇴비와 함께 깨끗한 주역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캐낸 고구마는 박스에 넣어 보일러실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첫 서리를 맞춘 다음 바로 캐내는 것이 당도가 가장 높습니다. 첫 서리는 무서리라 하여 뽕서리라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초보자들에게 서리를 맞기 전에 캐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보자들은 시기를 놓쳐 첫 서리후 바로 캐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서리가 내리기 전에 캐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구마는 서리를 맞거나, 지면의 온도가 12℃ 이하로 내려간 후 수확하면 보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수확시기는 아주 심은 후 125일(4개월) 정도가 적당합니다.



잔디씨를 뿌릴 때, 기존 잔디는 걷어내고 파종하세요

**Q** 정원 잔디에 잡초도 많고 잔디도 죽어서 잔디씨를 뿌릴까 합니다. 기존 잔디 위에 모래를 깔고 잔디씨를 뿌리면 괜찮을지, 아니면 기존 잔디를 걷어내고 뿌려야 하는지요.

**A** 잔디 파종이나 잔디를 다시 깔 경우 기존 잔디나 잡초들은 제거하고 사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잔디밭에 종자를 파종할 경우 기존 잔디로 인해 일정한 생육이 되지 않습니다. 제초제를 칠 경우 종자 파종은 10여일 후 파종 하는 것이 좋습니다. in



수목 하단에 잔디가 죽는 것은 타감작용 때문입니다

**Q** 잔디밭에 조경수를 심었는데 그 아래 잔디가 거의 죽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다른 초화류나 관목류를 식재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식물의 세계에는 타감작용(Allelopathy)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식물체가 합성화학 물질을 배출하여 자신은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수목이 자신의 생육환경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주변에 식물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육이 좋을 경우는 타감작용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목 하단의 식물 생육은 토양과 생육환경조건 및 타감작용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목 하단에 키 작은 초화류나 관목류를 심을 경우, 통풍이 잘 안되어 생육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목 하단에 식재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목 하단이 흙으로 노출되어 그곳을 피복할 목적으로 식물을 심으려고 한다면 수목 하단에 전체적으로 식재하기 보다는 수목의 줄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 식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October 2013 Garden In News

서울에 여의도 2배의 식물 공원 들어선다

### 마곡 보타닉 공원, 2016년 준공 예정



2016년에 준공될 서울 보타닉공원의 가드닝 체험공간 경관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도시형 식물공원(Botanic park)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2배 규모인 50만 3,431㎡의 대형 화목원(花木園)을 2016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화목원은 크게 △식물원 △열린숲마당 △호수공원 △생태천이원으로 나뉜다. 약 6만㎡의 식물원에는 미래자원식물, 약초식물, 자생종 등 5000종이 식재될 예정이다. 또 3개 건물로 이뤄진 '식물문화센터'에는 사계절 식물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온실과 식물도서관, 가드닝 센터가 각각 들어선다. 시는 이들 건물의 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계 배치해 전시, 교육, 체험, 판매 집합 공간으로 통합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열린숲마당은 공원전입부로부터 시작되는 잔디광장으로, 시민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양묘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호수공원은 휴식 및 산책 공간이고, 생태천이원은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박을 보러 오세요

### 농촌진흥청 희귀박과채소 전시회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희귀박과채소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1번째인 전시회는 전통 박과채소의 국민적 관심 증대와 우수 박과채소 유전자원 수집, 보급을 위해 이달 10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특별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박, 관상용 호박, 수제비, 여주, 뽕이 등 다양한 박과채소와 공예품 300여 점이 전시될 계획이다. 또한 박과채소 씨앗 나누기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에 앞서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제일 큰 박을 뽑는 박과채소 챔피언 선발대회를 지난달 말 개최해 챔피언을 선발, 그 출품작을 이번 전시회에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고관달 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국의 박과채소 재배 고수들이 한 해 동안 정성들여 재배한 다양한 박과채소의 우수성이 인정받는 자리이자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업분야의 6차 산업 성공모델 제시를 통한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농촌진흥청 031-240-3637



# Garden In News

가을 배란다, 국화와 함께

## 분화용 국화 품종 ‘마이레이디’ 출시



마이레이디 - 반응주수 6~6.5주  
노란색 홀꽃형으로 분지수가 많고 미니다화성이다.



마이컬 - 반응주수 6.5주  
진한 녹색에 갈색포인트 점이 있으며 미니다화성이다.



마이씨니 - 반응주수 7.5주  
중륜형으로 동시개화성이다.

경기도에서 육성한 분화용 국화 신품종이 출시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분화용 국화 신품종은 ‘마이레이디’ 등 6품종이다. 특히 마이레이디는 지난 9월 16일 현장평가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품종이다. 개화반응이 빠르고 일시 개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의 분화용 국화는 단일처리 했을때 꽃피는 시간인 반응주수가 7~8.5주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마이레이디는 반응주수가 6~6.5주로 빠른 것이 장점이다. 이외에도 ‘마이컬’ 과 ‘마이소울’ 품종도 개화기가 빠르고 꽃이 특이하다.

현재 마이레이디는 중도매시장에서 1천원에서 1천 3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임성희 박사는 “현재 마이레이디를 중심으로 신품종을 2014년에 확대 보급하고, 우량계통은 품종보호출원 과정을 통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라며, “국화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내년에는 좋은 품질의 분화용 국화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 멸종위기 식물 ‘가시연꽃’

## 천리포수목원내 자생지 발견



천리포수목원에서 발견된 가시연꽃 군락

멸종위기 식물인 가시연꽃의 서식지가 국내 식물원에서 발견됐다. 천리포수목원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지의 저수지에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연구를 수행하던 차에 가시연꽃 신자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자생지는 태안군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유일한 자생지로 170,000㎡(5만여평)규모로 현재 약 100개체 이상의 가시연꽃이 대단위 군락으로 확인됐다. 가시연꽃은 농수로의 정비로 인한 저수지의 매립과 방치, 무분별한 개발로 점차 사라지고 있어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 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식물이다. 꽃과 뿌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가시가 있으며 아침부터 개화하기 시작하여 정오에 만개하고 정오가 지나면 꽃잎과 꽃받침이 닫힌다. 천리포수목원 교육팀 남수환과장은 “대부분의 가시연꽃 자생지가 내륙에 있는 반면, 금번 확인된 자생지는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가시연꽃의 생태에 대한 중요한 위치로 판단된다”며 “이 지역의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천리포수목원은 2010년

4월에도 서식지 외 보전기관 연구 중에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일대의 논에서 국내 최대 대화마름 군락지를 발견한 바 있다.

### 10월 18일 국립수목원 무료개방

국립수목원은 제12회 ‘산의 날’을 기념해 전 국민의 산에 대한 관심과 광릉 숲 보전 의지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18일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단, 관람인원은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5,000명으로 제한한다. 개방시간은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다.

문의 : 031-540-2000

### 10월 가든인 구독자를 위한 할인 이벤트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할인권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031-645-20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한국 최초의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Gardenin** 10월 이벤트 할인 쿠폰  
**50% 할인권**  
[기간] 2013. 10. 1 (화) ~ 2013. 11. 30 (토)

# 16.6% OFF

## 정기구독 안내

가든인 1년 정기구독시 2만원 SALE

정상이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사은품 가든도구 5중세트, 꽃씨증정

무통장입금 예금주: 벽화수(주)

농협 355-0023-7618-13

(입금후 꼭 가든인에 알려주시지요.)

문의 031-712-7009

**Gardenin** October 2013

정성껏 만든 이번 달 <가든인>.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좋았던 기사 등 무엇든지 적어 <가든인>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채택된 연사의 주인공께는 가든도구 선물을 보내드리며, 그 결과는 다음 달 'Gardening Reader' 코너를 통해 발표됩니다.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고 싶은 기사는 무엇입니까?

● <월간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voice!

▶ 애드지 기사를 발송하시면 시안 제와 및 선물 배송과 관련된 개인 정보 수집,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가든 인 라이브 스토리를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중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된 독자분께는 가드닝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16.6% OFF

**Garden in**  
**정기구독**  
1년(12권) 10만원(정가 12만원)

신청하시는 분

|        |           |
|--------|-----------|
| 이름     | 성별 (남, 여) |
| 이메일    | 직업        |
|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소     |           |

▶ 광범위한 '온라인' 방송을 위해 정확한 주소록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애드지 기사를 발송하시면 시안 제와 및 선물 배송과 관련된 개인 정보 수집,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            |
|---------------|------------------------------|------------|
| 구독기간          | 2013년                        | 월호부터 1년    |
| 대금납입방법        | 무통장 입금 (농협) 355-0023-7618-13 | 예금주 벽화수(주) |
|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 031-712-7009                 |            |



## 테르메덴 50% 할인권

### 이용 안내

- 본 이용권은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 (사우나 이용 제외)
- 본 이용권은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은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품으로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031)712-70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님, 여)

주소

전화번호

직업

나이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님, 여)

주소

전화번호

직업

나이

□□□-□□□□



## 월간 Gardenin 10월호

발행인 박희수(주)

발행인 김명재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박공영 우리꽃 대표 / 이학박사

전문위원 김광두 전 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중요(주) 대표

김귀순 (주)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원식 농학 박사

우정아 경기조경전문대학 강사/가든디자이너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

윤장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교수

윤평설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건 농학박사

황환주 신구대학교 원예디자인학과 교수

편집장 소순복 golf108@hanmail.net

취재기자 정승환 saintylove@hanmail.net

강은지 foxbeam@naver.com

객원기자 김지태 jsummer@gmail.com

황주리 jurie777@hotmail.com

편집 디자이너 김도연 kdu21sd@naver.com

인쇄 부광프린팅(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717호

전화 031-712-7009, 070-4811-2505~6

팩스 070-4811-2518



## 봄을 알리는 최고의 아름다움 가을식재

## 추식구근

미리 주문을 받습니다.

추식구근은 다양한 품종이 한정 된 수량이 수입되므로  
미리 주문하는 것이 더 좋은 품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품목   | 식재시기  | 화기(월) | 화색   | 키(cm) | 식재수/㎡ | 식재깊이(cm) | 가격<br>100구 | 가격<br>50구 | 가격<br>20구 |
|------|-------|-------|------|-------|-------|----------|------------|-----------|-----------|
| 튤립   | 9-11월 | 4-5월  | 다양함  | 30-50 | 30-50 | 10       | 7만원        | 5만원       | 3만원       |
| 수선   | 9-11월 | 4-5월  | 흰,노랑 | 20-40 | 25-50 | 10       | 12만원       | 7만원       | 3만원       |
| 무스카리 | 9-11월 | 4-5월  | 보라   | 15    | 100   | 5        | 4만원        | 3만5천원     | 2만원       |



구입 문의 가든조아 031.634.7990 www.gardenjoa.com



#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유일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칼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치료 후  
회복과 건강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AK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031)645-2000 [www.termeden.com](http://www.termeden.com)

**테르메덴 50% 할인**  
월간 가든인 109p를  
확인하세요!

